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청년생활

Chongnyon Saenghwal



10
195

청년생활

제10호 (73)
1955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一〇호 내용

청춘의 참다운 리상과 행복

一

청춘 남녀들에게 있어서 리상과 행복 ─ 이 두개의 단어보다 더 흥미와 관심을 끄는 단어는 아마도 찾기 어려우리라! 이 훌륭한 말은 청년들을 흥분케 하며 그들의 가슴을 희망과 랑만으로 고동한다。

앞길이 대해 같이 양양하고 정력이 왕성한 청년 남녀치고 그 누가 리상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있으며 행복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으랴! 깔리닌 선생이 말씀한 바와 같이 청년들은 『리상적인 사업을 해보려는 위대한 지향을 갖는』것이 그의 특징이다。

八·一五 해방 후 로동당의 령도하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창설된 공화국 북반부에서 청년들은 광활한 장래를 확신 있게 전망하면서 전례 없는 행복 속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많은 사실들을 들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청춘의 리상과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태연하게 토론하는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벌써 위대한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모두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살며、일하며、창조하는 것이 위대한 행복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또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저마다 위대한 리상에 불타고 있으며 직접 행복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리상과 행복에 관한 문제를 새삼스럽게 청년들의 여론에 제기하며 또 토론하려 하는가?

물론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자기의 숭고한 투쟁 목표로 삼고 혁명적 열정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로력과 학습에서 찬란한 성과를 달성하므로써 조국과 인민에게 가치 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청년들은 리상과 행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므로 하여 로력과 학습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며 심지어 고민 동요하고 있다。

금년 七월부터 「민주 청년」 지상에서 공개 토론 중에 있는 평북도 룡천 제二 고급 중학교 리 성배 학생의 립장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그는 조국의 현실적 요구를 잘 인식하지 못한 결과 자기의 전도 문제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리 성배 뿐만 아니라 기타의 일부 청년들도 진학 문제、직업 선택 문제、개인 생활상 문제、사랑、결혼、가정 문제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정확한 태도를 뵈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청년들 속에서의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명백한 해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한개의 사상상의 원칙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二

리상이란 한말로 말하여 사람들이 동경하며 그를 위하여



투쟁하는 생활의 최종 목적일 것이며 자기의 리상이 실현되였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희열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처하여 있는 생활 환경과 조건이 각이한 만치 그들의 리상도 천가지 만가지로 각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리상과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은 그것이 아무리 다종 다양하다 할지라도 오직 두 종류로 구분하여 명확한 계선을 그을 수 있으니 한 종류는 개인주의적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주의적 관점이다。

부르죠아지와 일체 착취 계급의 리상과 행복은 철두 철미 개인 리기주의에서 출발한다。 착취 계급의 생활 목표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서는 타인을 희생시키는」데 기초하고 있다。 그들의 「인생관」에 의하면 금전、권리、지위、영예、향락 ─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최대의 「리상」이며 「행복」이다。 말하자면 돈이 그들의 「행복」의 토대로 되고 있다。

부르죠아지들은 자기들의 「리상」과 「행복」을 위하여 근로 대중을 그 얼마나 가혹하게 착취하는가 그들은 녀성들을 노리개와도 같이 희롱하며 유린하는 것을 일종의 「행복」으로 인정한다。

부르죠아지는 이와 같은 「리상」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범죄의 감행도 사양치 않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다。 이 얼마나 저주롭고 파렴치한 「생활 목표」인가?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상과 행복에 대한 관점은 이것과는 정 반대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상과 행복은 전 인류와 자기 민족과 자기 계급의 집단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인류 력사상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다。 그러므로 그의 리상과 행복에 대한 관점은 가장 정확하며 고상하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최고의 리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소멸하며 전 인류가 다 같이 자유롭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공산주의 ─ 이것은 인류의 숭고한 리상이다。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를 위하여 자기의 일체 력량을 송두리채 바쳐 싸우는 것 보다 더 큰 리상과 행복은 없다。

그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반동적 부르죠아 통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폭압과 박해를 무릅쓰고 지하에서、감옥에서 법정에서 인류의 이 숭고한 리상의 실현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던가! 그들은 자기의 고상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주검 앞에서도 혁명적 기개를 굽히지 않았으며 사형장에 끌리워 가는 순간에도 혁명가를 소리 높이 부르며 나아갔던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탁월한 공산주의 투사 율리우스 푸치크는 「교형수의 수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오、친애하는 벗들이여! 이 모든 고통 끝에 또 다시 만나게 될 우리들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를 당신들은 상상할 수 있는가? 자유와 창조로써 빛나는 자유로운 생활에서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동경하고 열망하여 온 모든 것、그를 위하여 지금 사형장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실현된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죽은 우리들은 당신들의 위대한 행복의 한 부분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이 자기의 생활을 바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전사들은 인류의 숭고한 리상을 자기들의 리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개인의 고통과 희생을 두려워 하지 않았으며 도리여 그것을 최대의 행복으

로 인식한 것이다。

三

로동당에 의하여 애국주의와 혁명적 기질로 교양된 우리 나라 청년들은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 생명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들의 일체 정력과 지혜를 바쳐 왔으며 또 바치고 있다。

당과 수령이 조국 방위의 초소로 불렀을 때 청년들은 정의의 총검을 잡고 용약 전선으로 달려 갔으며 탄광과 농촌과 건설장에 청년들의 힘이 요구되였을 때 그들은 앞을 다투어 그 곳으로 달려 갔다。무엇이 청년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인민의 위대한 리상을 청년들이 자기들의 최고의 리상으로 알고 인민의 행복 속에서 개인의 행복의 원천을 찾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마뜨로쏘브 리 수복은 무엇이라고 썼던가!『나는 해방된 조선의 민주 청년이다。나의 생명도 귀중하다。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그것은 조국의 운명 보다는 귀중치 않다。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의 심장을 바쳐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아름다운 희망、위대한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리 수복 영웅은 이와 같이 조국의 운명、인민의 행복 속에서 개인의 리상과 행복을 확신하였던 것이다。이 위대한 생활 목표가 그로 하여금 기적과 같은 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하였다。

절대 다수의 우리 나라 청년들은 이와 같이 조국과 인민의 전도와 행복에 개인의 전도와 행복을 결합시키고 있으며 집단의 행복만이 개인의 행복의 담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청년들은 집단의 리상과 행복을 개인의 리상과 행복과 분리시키거나 혹은 대립시키며 심지어는 개인의 리상과 행복을 집단의 리상과 행복 우에 놓으려는 무원칙하고 착오된 관점을 뢰여 주고 있다。리 성배 학생의 경우를 어떻게 리해하여야 할 것인가? 그가「작가가 되냐、농촌으로 진출하냐、공업에 종사하냐」하고 동요할 때 그는 우선 자기 개인의 안락한 장래에 대하여 생각하였다。만일 그가 청년들에 대한 조국과 인민의 현실적 요구가 무엇이며 또 그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철저히 인식하였드라면 그는 동요하지 않았을 것이며 확고한 리상을 세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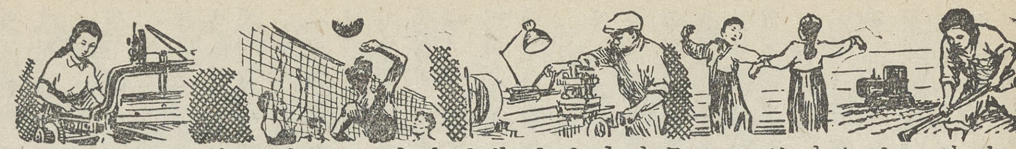
어떤 학생 청년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나는 과학자가 되려는데 조국은 청년들을 농촌에로 부르고 있으니 이것은 국가와 개인의 리익간에 모순이 아닌가?」다른 청년은 제기하기를「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나의 리상인데 기술 전문학교에 간다면 나의 리상이 실현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제출된 문제의 본질을 밝혀 보자!

첫째로 질문을 제출한 학생은 조국의 현실적 요구를 관심하지 않고 개인의 리상과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가령 문제의 제출자가 낡은 사회에서 처럼 과학자나 대학 졸업생이 되여 높은「명예」와「지위」를 획득하고 부유하며 안락한 생활을 할 것을 목적하지 않고、조국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에 더 가치 있는 공헌을 할 것을 지향한다고 치자!

오늘 사회주의 기초를 닦는 조국의 현실적이며 절박한 요구는 무엇인가? 조국은 더 많은 기술 인재를 더 속히 요구하고 있으며、전 인민적 과업인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 청년들을 더 많이 농촌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응당 조국의 현실적 요구에 수응하여 자기의 전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만일 조국의 요구에 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어떻게 실현되겠는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실현되지 못하고서야 청년 개인의 리상과 행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



가? 위대한 쓰딸린이 말씀한 바와 같이『국가를 떠나서 다만 개인을 생각하면 리상은 실현될 길이 없다』。

둘째로 문제를 제출한 학생은 조국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개인의 리상을 세우고 있다。우리 국가는 三년간의 반 침략 전쟁으로 혹심한 파괴를 당한 폐허 우에 현대적 공업을 건설하고 있다。이것은 참으로 간고한 공사이다。그러므로 국가는 모든 초、고중 졸업생들을 남김 없이 고중과 대학에 진학시키게끔 충분한 조건을 보장 못하고 있다。그것은 앞으로 건설될 것이다。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청년들이 배울 길은 열마던지 있다。즉 로력과 건설 중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도시에서나 농촌을 물론하고 지어 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학、고중에 들어갈 것만 리상으로 삼고 조국이 요구하며 또 지어 주는 조건을 리용하여 배우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찌 현실적 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째로 문제의 제출자는 로력과 직업에 대한 불건실한 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이란 몇몇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수백만 로력 대군의 집단적 로력으로 성취된다。로동자、농민、인테리 등 각이한 직업을 가진 근로자들의 공동 로력이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다 필요하고 영예로운 사회주의 건설 공사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개인의 리상과 행복은 그의 직업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직업의 의의를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에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조국이 배정한 직업에서 충직하고 창발적으로 일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더 많이 공헌하는 것이 참된 리상이며 그 속에 최대의 행복이 있을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당에 바치여」의 저자 우 윈뤄는 항일 전쟁에 참가하면서 전선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하였다。그러나 사령부는 그에게 총을 주어 전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총을 만들라는 임무를 주어 무기 수리 공장으로 보냈다。그는 조직의 위임을 접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로동자들은 한개의 라사못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중에서 직접 느끼고 있다。라사못은 작은 것이나 그것이 하나만 없어도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그러므로 개인의 감정에 맞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수요한다면 총을 만드나 총을 잡으나 모두 다 혁명을 위한 것인데 저울질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 집단을 떠난 행복은 있을 수 없다。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 간에 모순이 있게될 때는 집단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시켜야 한다。대학에 갈 것을 희망한 사람이 기술 전문에 가고 고중에 진학하려고 희망한 학생이 농촌에 들어갈 때 그는 어떤 희생을 당한 것 같이 느낄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잠시적 리익을 집단의 원대한 리익과 바꾸었을 뿐이며 근본적으로 희생 당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야 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다! 과거의 우리 애국 선렬들과 전우들은 조국의 자유 독립과 우리 젊은 세대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피 흘리고 생명을 바쳤거늘 우리들 어찌 래일의 행복을 위하여、후대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킬 수 없단 말인가!

四

인간의 참된 행복이란 결코 개인의 안일한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다。만일 우리들의 생활 목적 전체가 개인의 명예

와 지위와 향락에 있다면 그의 생활은 너무나 빈약하고 우울한 암흑 세계로 화해버릴 것이다。

극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청년들의 리상과 행복에 대한 관점이 개인주의에서 출발한 용렬한 것임을 뵈여 주고 있다。

어떤 청년은 「높은 지위」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떤 청년은 「헐한 로동에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삼으며 또 다른 청년은 「미인과 더불어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인정한다。

그래、이것이 참된 리상이며 최대의 행복이란 말인가? 이 「리상」과 「행복」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고상한 정신 세계를 찾아 볼 수 있는가? 그와 같은 「리상」과 「행복」은 철저하게 부르죠아 개인주의에 기초한 저주롭고 보잘 것 없는 「생활 목적」의 표현이다。이와 같은 저속하고 개인주의적 행복관을 가진 것은 우리의 일부 남녀 청년들의 머리 속에 악독한 자본주의 사상과 생활 양식의 잔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높은 지위」에 대한 리상을 두고 말해 보자! 이것을 리상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높은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업에서 열성을 발휘하나 「낮은 지위」라면 비관 실망하여 사업에 태공한다。그는 「지위」라는 것이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은 공헌을 하는 무겁고 책임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개인의 「명예」와 안일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헐한 로동에 많은 보수」에 대한 리상관도 마찬 가지이다。그는 본래 놀고 먹자는 사상 관점에 섰기 때문에 조그만한 난관에 부닥쳐도 동요 후퇴하며 생활이 약간 곤난하면 직장 이동을 생각한다。조건이 좋은 지방과 직장을 찾아 다니는 그는 조건이 유리하면 열성이 있으나 일시라도 조건이 불리하면 동요하며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려 한다。마치 후조(候鳥)와도 같이 ──

소위 「미인과의 단락한 가정」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가? 물론 우리는 사랑을 행복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금욕(禁慾)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문제는 남녀간의 사랑이 인간 생활의 가장 중심적 위치로 인식되거나 혹은 그 사랑이 혁명 사업에 방해를 주는 데 있는 것이다。

예술 영화 「신혼 부부」의 주인공 영철이와 은실이를 보라! 이 신혼 부부는 아담한 집에서 단락한 신혼 생활을 즐겼다。그러나 그 행복은 사회와 떨어진 보잘 것 없는 개인들의 행복이였기에 그들은 마침내 더 위대하고 참된 행복을 찾아서 나라니 어깨를 겯고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집이 아무리 아담하고 먹는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전진하는 조국의 현실을 떠나 가정에 가치운 은실은 이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일부 처녀들이 결혼만 하면 직장을 떠나 가정에 들어 박혀 「안사람」이 되는 것을 어찌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리원시 어느 국영 식당의 경리원 김 성찬이가 자기 애인을 위해 국가 재산을 훔쳐낸 사실도 그 한 실례로 될 것이다。그래 국가의 재물을 훔쳐 먹으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투사가 되지 못할 망정 우리 청년들이 어찌 사회의 걱정꺼리가 될 수 있겠는가?

사랑은 가는 손목에 아니라
생활을 틀어 잡음에 있다。
사랑은 높은 젖가슴도
별 같은 눈매도 아니다
사랑은 그 뿌리를
참된 인생의 봄에 두었다。
봄이 없을진대
어찌 높은 사랑이 있으랴!

(조기천 「생의 노래」에서)



우리 청춘 남녀들의 생활에는 고상한 사상과 투철한 사회적 활동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개인의 안일과 향락과 탐욕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망치고 그 생애가 보잘 것 없는 동식물의 생애와 같이 무목적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생이다。생은 인간에게 한번 밖에 없는 것이니 사람들은 그 한생을 무목적하게 허비한 탓으로 뼈아픈 참회를 느끼지 않도록 살아야 하며 죽으면 자기 전 생애의 모든 힘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즉 인류 해방 투쟁에 바쳤다고 말할 수 있게 살아야 한다。』

니꼴라이 오쓰뜨롭쓰끼의 말 그대로 자기의 심장을 회상하여 혁명에 바친 애국자의 심장은 멎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길로 타올라 인민의 가슴을 고동시킬 것이다。

五

자、그러면 청춘의 참다운 리상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청춘의 참다운 리상과 행복이란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력량과 재능을 바치는 영웅적 투쟁이며 창조적 로력이다。

오늘 우리 조국과 인민의 최대의 숙망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승리하는 것이다。이 혁명 임무 가운데서 조국이 요구하는 일터에서 전력을 다하여 더 많은 공헌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나라 청춘 남녀의 가장 고상한 리상이며 최대의 행복이다。

조국과 인민의 리상이 실현될 때 우리 청년들의 리상도 실현될 것이며 조국 강토에 사회주의의 꽃이 만발할 때 우리 청춘 남녀들은 더욱 행복한 생활을 즐길 것이다。우리 인민의 그 위대한 리상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인민의 자유 행복도 더욱 확고하게 약속되여 있다。

그러나 사람의 리상은 「순풍에 돛배」와 같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행복은 화원에 만발한 꽃을 꺾듯이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오늘 우리 청년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행복이 우리의 애국 선렬들과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피의 댓가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대한 리상과 행복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일정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그 댓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영웅적 투쟁이며 창조적 로력이다。

리상과 행복은 로력을 통하여서만 실현된다。엠·고리끼는 『분투── 이것이 생활의 목적이다。생활은 분투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로력── 오직 전투적이며 창조적 로력만이 조국 땅에 행복의 꽃을 만발하게 피울 것이며 행복의 꽃다발은 혁명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 전사의 가슴에 안겨 질 것이다。

난관을 싸워 이기자! 그러면 조국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조국을 행복하게 만들자! 그러면 매개 청춘 남녀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 ×

남녀 청년들이여! 끝으로 우리 청년들의 태양이며 스승이며 가장 친근한 벗인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말씀을 지침으로 청춘의 참다운 리상과 행복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행복된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조국의 장래 기초를 닦아 놓는 사람들이며 우리 조국의 장래 운명을 타개하는 조국 건설의 역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된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난관과의 투쟁을 거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하며 행복을 쟁취하여야 할 것입니다。』(북 조선 민청 제三차 대회에서의 연설 중에서)

전 인민적 관개 하천 건설 투쟁에 광범한 청년들의 애국적 열성을 동원하자!

민청 중앙 위원회
부 위원장 김 봉 운

관개 하천 건설 공사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특히 알곡 증산의 토대를 축성하는 중요 대책의 하나이다。 때문에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관개 하천 건설 공사를 광범히 전개할 데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후 시기에 평남 안주 관개 공사를 비롯한 북반부 각지에서 관개 하천 건설 공사들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 궐기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전체 농민들과 함께 알곡 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관개 하천 건설의 모든 공사장 마다에서 애국적 헌신성과 창발적 열성을 발휘함으로써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후 약 二년간에만 하여도 수만 정보의 농경지와 五一개소의 대 저수지 五七○개소의 양수장들을 신설 복구하여 三만 八천 정보의 몽리 면적을 새로 확장하였다。 안주 관개 트레스트 내 로동 청년들은 전체 로동자들과 함께 부근 농민들과 청년들의 협조하에서 작년 一○월에 안주 지구 관개 공사에 착수하여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一계단 공사를 一개월간 단축하여 一만여정보를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황해남도 농민 청년들은 금년 상반년도에만 토지 복구 및 개량을 위한 사업에 연 四五만여명의 로력을 제공하여 六六개의 중소 하천 관개 공사와 六五개소의 소규모의 관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하여 二만여정보의 토지를 복구 보호하는 로력적 성과를 쟁취하였다。 평북도 동림군내 농민 청년들은 청강 하류에、 연장 四천메터의 제방을 구축하여 八천여반보의 옥답에 수해를 방지하였으며 三백 六○반보의 수리 불안전 답을 수리 안전 답으로 전환하여 四천 五백석의 미곡을 더 증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각 농촌들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토지 복구 보호를 위한 관개 하천 공사、 간석지 개간 사업 등의 발기자로、실천자로 나서고 있다。 관개 하천 건설 공사에서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이러한 로력적 성과들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 나라의 알곡 생산고를 현저히 높이며 튼튼한 식량 기지를 확보하는 투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 자연 조건을 농산물 재배에 유리하도록 개조하는 관개 하천 공사

를 더 많이 하여 더 많은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 더 많은 쌀을 생산해 냄으로써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식량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며 공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북반부 민주 기지를 한층 더 튼튼히 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량이 풍부할수록 우리 인민 생활은 더욱 윤택하고 행복해질 것이며 농촌 경리가 급속히 발전됨으로서 농민들과 농민 청년들의 생활도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알곡 생산고를 현저히 높이기 위하여 그의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관개 하천 공사에 막대한 자금과 로력과 자재를 투하하고 있는 것이다。 관개 하천 기본 건설 공사를 추가 확장할 데 대한 최근의 내각 결정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에 의하면 명년도 영농기 전으로 三만 五천 七백 정보 이상의 관개 면적을 확장하며 一만 八천 三백정보 이상의 농경지를 홍수 피해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기 위한 관개 하천 기본 건설 공사들이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각지에는 아직 미 개발 처녀지와 황무지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수만 정보의 비옥한 땅들이 용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옥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례하면 평남도 안주、 문덕、 숙천、 평원、 四개군을 포괄하는 안주 관개 공사는 二만 五천 정보의 대 자연을 개조하는 공사인바 이 공사가 완공되는 날에는 년산 미곡 五만 三천여톤을 증수하게 된다。 이는 二四만 二천 三백여명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一년간의 식량 소비량에 해당된다。 또한 압록강 하구 충적지에서 철산 반도 및 그 남부의 가도、 대화도 일대에 이르는 근해 지역의 간석지 공사는 양수 동력 시설로써 五천여 정보의 평북도 해안 지대 간석지를 무 젓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서흥강 중력 언제의 대규모적 공사가 진행됨으로서 사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어지돈 지구에 있는 一만 一천여 정보의 평야를 새로 관개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 서해안에 있는 간석지 一一만 정보의 개간 사업은 년차적 계획에 의하여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곡창 지대로 그의 면모를 일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관개 하천 사업의 발전 전망은 무한히 광활하며 그의 발전 규모는 대단히 큰 것이다。

금번 내각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관개 하천 건설 공사는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짧은 시일내에 추수、 추경、 현물세 납부 사업을 보장하면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의 많은 부분은 동기간에도 진행되여야 한다。 그런것 만큼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로력이 요구되게 된다。 여기에서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힘이 강하며 조직적으로 훈련되였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언제나 앞장에서 일하여온 우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힘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해방후 一○년 동안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물 불을 가리지 않고 항상 로동당원의 모범을 따랐다。

오늘 쏘련의 수 一○만의 공청원들은 공산당의 호소를 받들고 화려하고 행복한 모쓰크바를 떠나서 먼 처녀지 개간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들은 비단 오늘에만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일이라면 그러하였던 것이다。 영웅적 레닌 공청원들은 벌써 오래전에 빠밀 고원에 있는 호수의 물을 따지크 벌판으로 끌어오기 위한 관개 공사의 발기자이며 돌격대로 되였다。 따지크 지방이라면 곱쁘에 떠논 물이 곧 끓어 넘치는 그런 더운 곳이며 따지크 벌판에는 물이 아주 부족하였다。 그러나 공청원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날든 새도 타 죽는다는 『죽음의 벌판』으로 용약 달려가 빠밀 고원에 있는 호수의 물을 끌어 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무서운 더위와 싸워 이겼으며 일에서 모든 곤난과 애로를 극복하였다。 공청원들의 피와 땀과 들끓

는 정열로 하여 一七五키로메터에 달하는 운하는 드디여 완공되여 「죽음의 벌판」에 빠밀 고원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꼴호즈、쏩호즈가 일어나고 농민들의 생활은 꽃피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관개 하천 공사에서 반드시 레닌 공청원들이 발휘한 이러한 모범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전 인민적 사업으로 전개되는 관개 하천 공사가 아무리 방대하고 또 어떠한 곤난과 애로가 있드라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으며 또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고향 땅을 기름지고 행복한 락원으로 만들기 위한 이 사업에 청년들의 힘과 지혜를 바친다는 것은 실로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다.

벌써 지난 九월 一八일 평원군내 민청원들은 군 민청 전원 총회에서 평남 관개 공사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 맡은바 계획을 모범적으로 실행할 것을 한결 같이 맹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농촌 민청원들이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금번 관개 하천 공사의 의의를 잘 알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우리 농촌 민청원들은 평원군내 민청원들의 모범을 따라 관개 하천 건설 공사에 적극 참가하여 모든 공사장 마다에서 애국적 헌신성과 창발적 열성을 발휘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의 선두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앙양된 청년들의 열성을 관개 하천 건설 공사에 옳게 조직 추동하기 위하여 각급 민청 단체들 앞에 제기되는 과업은 첫째로 청년 군중들 속에서 농촌 경리 발전에 대한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와 관개 공사의 건설 전망과 이 공사들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더욱 철저히 해석 선전하여 이 사업에 그들이 자원적으로 동원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민청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은 계절적으로 당면하게 제기되는 추수、탈곡、추경 등 영농 사업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며 그들 속에서 개인、초급 단체 또는 리 민청、공구 및 작업대 간의 경쟁을 옳게 체결하고 그의 활발한 운영에 일상적인 산 지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민청 단체들과 민청 지도 일꾼들은 힘들고 어려운 부문의 작업에 민청 청년 돌격대、민청 청년 돌격 공구 등을 조직하고 『리레식 작업 방법』을 비롯한 『한삽 더 넣기 운동』 『한짐 더 지기 운동』 『다삽 속보 운동』 등 새로운 작업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백방으로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로 각급 민청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은 청년들의 앙양된 열성을 더욱 고무하며 발로되는 결함들을 제때에 시정하여 주기 위하여 공사 현장들과 특히 청년들의 집단 처소들에 민청 열성자들과 우수한 선동원들을 배치하며 직외 강사들을 발동하여 강연、담화、해설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그들을 위안 격려하기 위한 연예대를 수시로 파견하며 공사에 참가한 청년들로서 되는 다양하고 활기 있는 대중적인 문화 오락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으로써 청년들의 휴식을 문화적으로 조직하며 전투적인 벽신문、속보、생산크라흐 등 직관 선전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다.

다섯째로 각급 민청 단체들은 공사에 국가가 투자하는 막대한 자금과 도구、기타 물자들을 애호 절약하며 높은 혁명적 경각성으로써 공사에 대한 암해、파괴 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적발 폭로하는데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각급 민청 단체들은 새로 확장 신설되는 관개 건설 부문내 민청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하며 특히 공사장들에 동원된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활동 정형을 제때에 평가하여 주며 그들 중에서 우수한 미 조직 청년들을 동맹 대렬에 지체없이 가맹시키는 등 동맹 조직 정치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다.

민청 생활

청춘의 건강과 활기

민청 함흥시 위원회
위원장 양 승 운

청춘 남녀치고 그 누가 건강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으며 활기 있고 명랑한 생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랴! 당은 민청에게 「청년들을 힘이 약동하고 정열이 끓어 넘치게 하며 그들의 활기와 용감성과 기세를 적극 앙양시키도록 사업할 것」을 교시하였다.

그를 위하여 민청 중앙 위원회는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대중 정치 사업 특히 군중 문화 사업을 광범히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 「민주 청년 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의 실행 대책을 토의하는 함흥시 민청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청년들 속에서의 군중 문화 체육 사업을 개선 강화할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시 민청은 전원 회의 이후 우선 군중 문화 체육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청년 체육、예술인 열성자들과의 사업을 개선하며 그들 열성자를 통하여 민청원들의 요구와 희망에 맞게 사업을 조직하는데 노력하였다.

체육 및 예술인 열성자들을 옳게 장악하려면 시 민청 일꾼들 자신이 체육과 예술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가져야 하며 그들의 생활을 료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시 민청 일꾼들은 이들 전문가들로부터 「체육 규정」「합창단 조직 방법」등 문제들을 배우며 그들과의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하는데 노력하였다.

시 민청은 금년 五월、一〇여명의 체육 및 예술인 열성자들에게 민청 단체의 체육 스포츠 및 예술 써클 지도 사업을 위임하였든바 여기에서 우리는 초보적인 성과를 얻었다.

례하면 함흥 자동차 사업소 민청 단체에 파견한 김 지각 동무는 자동차 사업소 체육단원들에게 「인민 체력 검정 규칙」을 해설하는 동시 퇴근 후에 체력 검정 종목에 해당하는 체조 및 각종 경기 종목을 련습시켰다. 그는 처음 조직한 사업이 진척되는데 힘을 얻고 체육단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매일 인민 보건 체조를 조직하였다. 그때로부터 자동차 사업소에서는 「인민 보건 체조」가 광범히 보급되였으며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인민 체력 검정」 수검 준비를 위한 맹렬한 련습이 벌어졌다.

시 민청은 이에서 얻은 경험을 三七명의 체육 열성자들에게 보급하였다. 시 민청은 체육 열성자들의 능력과 그가 행정적으로 맡은 사업 분야를 참작하여 「인민 체력 검정 규칙」 해설이라든가 혹은 「인민 보건 체조」 등 그들이 본신 사업 이외에도 능히 할 수 있는 위임을 줌으로써 시 민청의 위임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렸다.

이와 같은 경험은 역시 예술인 청년 열성자들을 장악 지도

하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였다. 시 민청은 예술인 청년 열성자들을 인입하여 장악 지도하는 사업에서 시 민청 위원인 김 보배 (그는 도립 예술 극장 배우) 동무의 역할을 제고시켰다.

시 민청 위원인 김 보배 동무의 의견을 접수하여 새로 문화인 열성자들을 선발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과 함께 시 민청은 예술 써클 지도 분야에서 첫 걸음을 대중적 노래 보급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시 민청은 금년 五월에 우선 김 보배, 리 춘삼, 박 경수 동무 등 우수한 전문 일꾼들을 견직 공장, 제사 공장, 전신 전화국 등에 파견하여 새 노래 보급 사업을 꾸준히 추진 시켰다.

생산 직장에 파견된 이들은 직장 행정측과 민청 위원회와의 련계 밑에 一주일에 一회—三회의 노래 보급 날자를 정하였다.

정기적으로 전문 일꾼들에게서 노래를 배우게 되는 민청원들은 대단한 흥미와 열성으로 이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후 시 민청은 생산 기업소 단위로 「청년 합창단」을 조직하며 유명 무실하던 三一四개의 각종 써클을 七五一개로 합리적으로 조직 개편하였다. 그리고 함흥 제사 공장에 二○○명, 제二 사범 전문 학교에 三○○명으로 되는 합창단을 각각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그간 시 민청이 새로 발견한 써클 지도자 김 화자를 비롯한 수명을 합창단 지도에 파견 하였다. 동 합창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경험에 비추어 시 민청은 로동 청년과 학생 청년으로 구성된 시적인 종합 「청년 합창단」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매개 학교별 및 직장별로 매주 토요일에 三시간씩 합창 련습을 정상적으로 가지였으며 월 二회 합창단의 집체적 종합 련습을 가졌다.

그후 학생들과 로동 청년들로 구성된 종합 청년 합창단은 『八·一五 행진곡』『옹헤야』『샘물터에서』 등 곡목으로 대중 공연을 수차례 가지여 시민들의 절찬을 받았다.

시 민청이 여기에서 거둔 중요 성과는 종합 청년 합창단이 운영된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 합창단 성원을 통하여 직장과 학교내에서 새 노래를 광범히 보급시킨 그것이다.

함흥 종합 공장 로동 청년들은 이 기간에 一○여 종목의 노래를 새로 배워 그를 능숙히 부르게 되였다. 함흥 전신 전화국 민청 위원회는 五○명 합창단을 조직하고 자체로 그를 옳게 운영하는 등 써클 운영에 대한 자주적 활동이 강화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우리 민청 일꾼들은 매개 민청원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져 하며, 어떤 체육 경기를 하고져 하는가를 잘 알고 그의 요구에 맞게 민청 단체가 관심을 가지며 사업을 계획하고 조직한다면 청년들의 기세와 활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이러한 실례는 함흥 제사 공장 민청 위원회 사업에서도 볼 수 있다. 제사 공장 민청 위원회는 공장내에 그네와 널뛰기 시설을 설비하였다. 이때까지 운동 시설이라군 배구뽈 하나 밖에 없던 공장에 그네와 널뛰기 시설을 설비하자 특히 녀성 민청원들은 이 운동 시설을 즐겨 리용하였다. 민청 단체는 계속하여 그네와 널뛰기 시설을 확장하는 동시에 배구, 탁구 등 시설도 더 많이 갖추도록 공장 행정측에 제기하였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인민 체력 검정 경기 종목을 포함시켜 직장별 대항 체육 경기, 야유회 등을 조직하였으며 밤이면 써클 경연 대회, 영화 감상회, 시 랑송회 등을 수시로 조직하였다. 이렇게 민청 단체가 로동 청년들에 대한 문화적 휴식에 관심을 돌린 다음부터는 그들의 로동 열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청년들의 생활은 한결 더 명랑해졌으며 락후한 「류행가」를 부르는 청년이 없었다. 함흥 전신 전화국 최 한규는 한때 자기 직업이 보람 없는 일이라 하면서 자유로 직장을 리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청 단체에서 진행하는 다채로

운 문화 생활에 인입된 이후부터 그는 명랑하고 유쾌한 청년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에 충직한 열성적 일꾼으로 되였다.

오늘 시 민청 산하 민청 단체들에서는 군중 문화 체육 사업이 민청원들 속에 생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실증으로서는 인민 체력 검정 수검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금년도에 들어와서 인민 체력 검정에 응시한 민청원 중 그의 八七%가 인민 체력 검정에 합격하였다. 민청 단체들에서 이렇듯 체육 문화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년들의 친선 야회, 친선 체육 경기, 문화의 밤 등 다채로운 사업이 민청 단체 호상 간에 자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청년들의 야회나 문화의 밤, 친선 체육 경기 등에 전문 부문 일꾼들이 자신 참가함으로써 모임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근로 청년들과 체육 및 예술인 열성자들과의 호상 련계는 일층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 민청이 조직 진행한 군중 문화 체육 사업에는 아직도 많은 결함이 있다.

그것은 시 민청 위원회가 아직도 군중 문화 체육 사업을 매우 조잡하고 산만하게 조직하고 있으며 응당 주의를 돌려야 할 그의 사상적 내용에는 적게 관심을 돌리고 주로 형식만 갖추려는 그릇된 사업 방법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결점은 청년들의 활기와 기세를 높이는 사업의 하나인 군중 문화 체육 사업을 민청 생활과 밀접히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름철에 우리가 진행한 군중 문화 체육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즉 민청 중앙 상무 위원회 결정 『청년들 속에서 진행하는 체육 및 스포츠 사업을 개선 할데 대한 대책』에 근거하여 인민 체력 검정 규정을 꾸준히 해석 침투하여 민청원들로 하여금 이에 적극 참가하여 합격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동기간 대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스켓트, 스키 등 동기 체육 경기를 발전시키며 각 민청 단체들에서 조기 체조 및 보건 체조를 대중적으로 보급하려 한다. 시 민청은 현존 스켓트장을 청년들의 힘으로 수리하여 동기간에 광범한 청년들에게 리용되도록 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청년들의 전반적 문화 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활기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합창단, 예술 써클 경연 대회 등을 수시로 조직하며 민청원들의 생활과 감정에 맞는 야회, 문화의 밤 등을 시적으로 혹은 생산 기업소 및 학교 단위로서 조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민청생활문답

선거 받은 민청 초급 단체 위원이 사업을 잘 못하거나 이동 되였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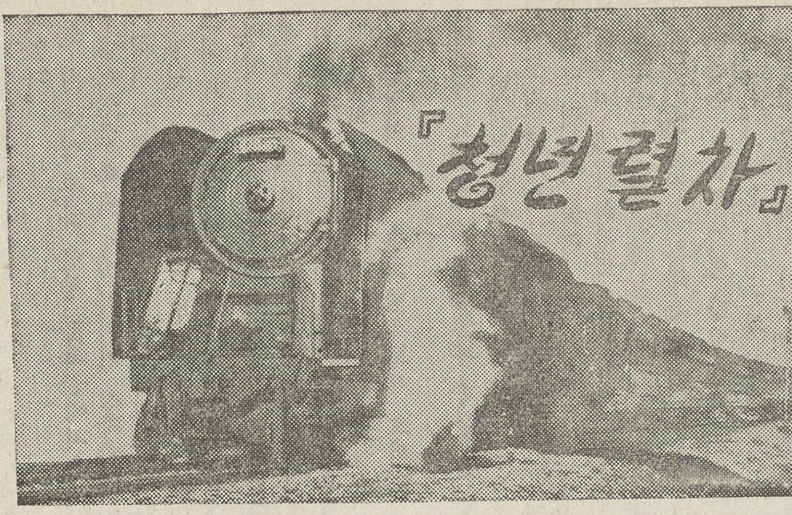
초급 단체 위원회는 지난 시기 진행된 민청 결산—선거 회의들에서 민청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선거 받은 초급 단체의 지도 기관이다. 그러므로 선거 받은 지도 기관은 다음 결산—선거 기간까지 개선하지 않게 되여 있다. 그러나 개별전인 위원들이 위원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태공하여 위원으로서 계속 사업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민청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를 소환하고 초급 단체 위원으로 능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동무들로 보선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 받은 초급 단체 위원들이 다수 이동되여 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였을 경우에는 초급 단체 총회에서 보선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급 단체 위원들 중 일부 위원들만이 이동되여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면 그를 보선할 필요가 없다.

위원들을 개선 또는 보선할 때에는 해당 시(구역) 군 민청 위원회와 련계 밑에 진행해야 한다.

『청년렬차』



「청년 렬차」—이름만 들어도 한번 타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렬차!「청년 렬차」는 오늘도 수많은 려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국의 동맥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지난 四월 一二일 그의 첫 운행을 시작한「청년 렬차」의 력사는 오래지 않다。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청년 렬차」의 젊은 민청원들은 자기들의 애국적 발기의 성과를 훌륭히 뵈여 주었다。불과 반년도 못되는 기간에「청년 렬차」승무조는 二개조로부터 一五개조로 장성하였다。

기자는 어느날 一五개 승무조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일하는 최 덕순 려객 전무 승무조원들과 함께「청년 렬차」에 동승하였다。

× ×

제三「청년 렬차」는 정시에 평양역을 떠났다。

불빛 휘황한 차내—여기는 군인 차칸이다。

『야 이 렬차는 가는척 없이 슬그머니 떠나네』휴가를 말아 고향으로 간다는 한 전사가 놀란 목소리를 내였다。곁에 앉았던 전사 한명이 엉거주춤 창가로 다가서며 창 밖을 내다 본다。

『이 차의 기관사가 누구인지 정말 차를 솜씨 있게 모는데…』

맞은 편에 앉았던 철도 제복을 입은 한 동무가 말참례에 들었다。

『이 차를 운전하는게 누구라구요。평양 기관구에서도 이름난「민청호」기관사인데요。』

「민청호」기관사 이라는 말에 두 전사는 호기심이 끌렸다。

『그럼 이 차를 모는 기관사도 전시에는 우리를 도와 무척 잘 싸운 동무겠군요』

『그럼요。다른 기관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차의 기관사도 전쟁 기간에는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난관과 싸워 이긴 훌륭한 기관사이지요』하고 평양 기관구에 있다는 동무는「민청호」「스코다 一四八호」의 김 종성 기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섬주섬 꺼내는 것이였다。

—종성 기관사는 포연 탄우 속을 뚫고 전시 수송을 훌륭히 보장한 二五세의 청년이다。그의 투쟁 업적은 넓직한 가슴에 번쩍이는 국기 훈장 제一급이 잘 말해 주고 있다。

그가「스코다 一四八호」를 운전하게 된 것은 정전 직후였다。종전에 다루던 기관차와는 그 형이 다른「스코다」를 익숙히 다루기 위해서는 남다른 로력과 시간이 필요했다。처음에는「쓰또까」(자동 석탄 투입 장치)조정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애태운 때가 한 두번이 아니였다。석탄이 연실에 고루 덮히지 않거나 타지 않은 석탄이 무데기로 떨어진 것을 볼때 그는『제—길할、차라리

자동 장치가 아니라면 마음 내키는 대로 불을 때여 보겠건만』하고 기계화된 자동 장치까지 원망스러워지는 것이였다。그러나 그는 새 기관차의 구조 성능에 익숙해지며 선진 운전 조법을 배우기에 힘썼다。

그때로부터 二년 그는 지금「스코다」의 능숙한 주인으로 되였다。

김 종성 기관사는 자격 자수와 타력 운전에서 이름 높다。그는 구배가 심하고 서행 구간이 많은 신성천—양덕간의 선로 상태와 지형지물까지 환히 꿰들고 있다。그러므로 어두운 밤이라도 자기 기관차가 어느 지점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고 타력 운전 비률을 높이고 있다。그는 벌써 자기 승무원들과 함께 금년도 년간 주행키로를 무사고로 六월 八일에 완수하고 현재 一만 五천키로를 더 달리고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 하고난 철도 종업원은 맛나게 담배를 한목음 들이켜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이 승무 조원들은 一○월부터는 자기들이 절약한 석탄 三五○톤으로 년말까지 달리게 될 것입니다……이외에도 려객 렬차를 모는 기관사에게는 기관차에서 검은 연기를 덜내며 충격 없이 렬차를 끄는 것이 증산 경쟁 의무 조항에 더 첨가되여 있답니다』

영웅 도시 평양을 뒤에 두고 렬차는 평양 벌을 쾌속도로 달리고 있다。티 하나 없이 말끔히 닦은 차창으로 불꽃이 스쳐 지난다。

렬차는 신성천역에 도착하였다。

기관차에 급수하는 틈을 타서 김 종성 기관사는 다시 한번 기관차 주행부를 점검해 본다。이상은 없다!

『자— 한바탕 또 달려 봅시다』무더운 열기가 품기는 기관실에 올라서며 그는 기관 조사들을 격려한다。기관 조사 김 준견은 연통을 쳐다 보았다。연통으로부터 솟아 오르는 흰 연기는 석탄 연소 상태의 만족을 알리고 있다。

『기관사 동지、오늘 저녁도 양덕까지 三톤 절약은 문제 없습니다』

정압에 오른 증기 압계의 바늘은 갈 길을 재촉하듯 가볍게 떨린다。

푸랱홈에서는 렬차원들이 오르 내리는 손님들을 친절히 보살피고 있다。발차 시간이 림박하자 푸랱홈은 한결 조용해진다。허나 렬차원들은 마지막 손님들을 기다려 자세 좋게 자기의 승무 위치에 서 있다。

『보다 싶이 렬차원들은 야밤 잠경일지라도 이렇게 승무 위치를 비여서는 안됩니다。—려객 전무 최 덕순은 말한다—여기 지금 서 있는 一四명의 처녀 렬차원들은 봉사성 제고에서 뿐만 아니라 규률을 지키는 데서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이들은 모두가 지난 七월에 민청 중앙 위원회「영예 등록장」에 그 이름이 등록되였습니다。』

푸른 신호등이 켜지자 기관차는 힘찬 기적을 울렸다。

밤은 깊어 간다。

웃음소리、노랫소리 소란하든 차칸도 깊어가는 밤과 더불어 고요해진다。이따금 오르내리는 손님들의 다정한 인사의 말소리가 들려올 뿐。

공무칸 제一실을 맡은 민 옥란은 물걸레를 헤워 짰다。바닥엔 갓친 걸레 자욱이 채 마르지 않았다。그는 또 바닥을 닦기 시작한다。

소제를 하는 렬차원에게 나이 듬직한 한 손님이 말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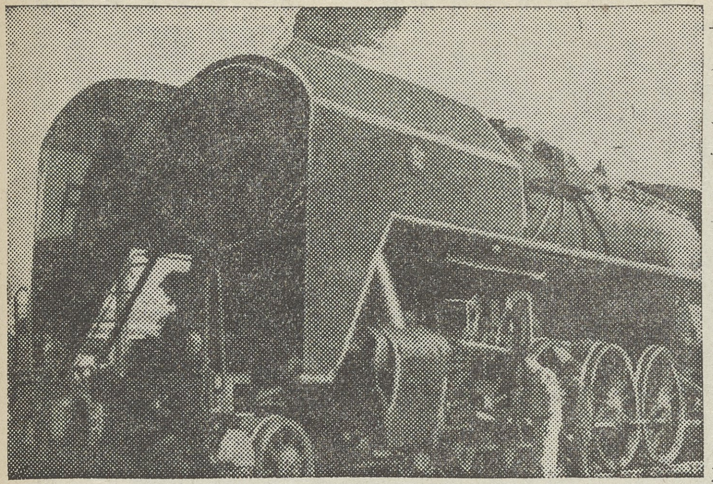
『동무 아직 닦지 않아도 깨끗하군 그래。차칸이 조용할 때 동무들도 조금 쉬여야지……』

『네—괜찮습니다』홍조 띤 량볼에 웃음을 띄우고 그는 일손을 멈추지 않는다。

달리는 렬차에서 렬차원들이 할 일은 많다。차에서 오르 내리는 손님을 돌봐야 하며 철도 규정을 지켜 차내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차내 설비의 애호 보관、정차역에서 역명 환호 및 안내 사업—이 모든 것이 높은 규률성과 봉사성에 의하여 보장되여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한 인내성과 용이 주도한 치밀성이 요구된다。

이런 복잡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그들은 유쾌하고 문화적인 려행을 즐기는 려객들을 볼때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궁지감을 가슴 뿌듯이 느끼는 것이였다。바로 그들은 이 궁지감으로 하여 어렵고 고된 일에 부닥쳐도 웃음 어린 얼굴로 려객들을 대하며 제정된 철도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렬차 운행 도중에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이들의 사업에는 모두가 원만한 일만이 있을 수 없다。



※기관차 승무조원들의 자검 자수

이런 점에 대하여 려객 전무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이였다。……어느날 일반 차칸을 맡은 렬차원 홍 명월이 승무 도중에 려객 전무를 찾아 왔다。그는 려객 전무를 보자『난 이런 "천한 일"은 못하겠어요』하고는 흐느껴 우는 것이였다。

그날 홍 명월은 소제를 하다가 잠든 손님의 신발에 물을 떨구었다。홍 명월은 자기 잘못을 사죄하였으나 손님은 그를 지나치게 꾸짖었든 것이다。

사실은 극히 사소한 일이였다。려객 전무는 그를 잘 타일러 차칸을 교체하여 승무시켰다。그 이튿날 그는 이런 경향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청 초급 단체 열성자들과 토의하고 초급 단체 총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총회는「우리의 직업은 고상하며 영예롭다」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총회에 보고는 당일 손님들로부터 받은 다음과 같은『감사문』을 대신하기로 하였다。

『교통성 중앙 렬차 구장 앞

……전략……

우리는「청년 렬차」승무원들이 차내 청소를 남달리 세밀하게 또 깨끗이 하는데 놀랐습니다。하루 자주 소제를 하길래 렬차원의 청소 회수를 헤여 본 결과 바닥은 二八회、창문 가장 자리 닦기는 八회가 넘었습니다。(당일 동렬차 담당은 주 옥선이였음)

……중략……

렬차가 정주역에 다달았을 때 우리는 렬차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하나 보았습니다。우리 차칸에 한 로파가 칸을 어기여 올랐습니다。이것을 본 렬차원은 그 로파를 부축하여 일반 차칸에 모셔다 드리는 것이였습니다。렬차원의 이처럼 친절한 행동은 차내 려객들에게 로인을 존경하도록 하는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미덕은 차칸에서도 꽃 피였습니다。

렬차원들의 봉사성 높고 친절한 안내에 의하여 질서 정연한 가운데 우리는 명랑하고 유쾌한 려행을 끝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일 잘하고 우수한「청년 렬차」원들에게 적절한 표창을 실시할 것을 려객의 립장으로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평양에서 란 공무원 一二一명을 대표하여

김 형관、조 학、강 중애、

신 상준、김 철』

감사문을 다 읽고난 최 덕순은 이렇듯 려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렬차원들의 사업은 결코「천한 일」이 아니

라는 것을 말하였다。그는 끝으로 국가와 인민을 위한 로동에는「천한 일」과「고상한 일」을 구별할 수 없으며 그어느 것이나 다 신성하며 영예롭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총회에서 홍 명월은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뉘우쳤다。렬차원 림 홍섭이도 차내 청소를「부끄럽다」는 구실에서 대강대강 해 치운데 대하여 자기 비판하였다。

그후 이들의 사업에는 현저한 개진이 있었다。손님들로부터는 더 많은 감사와 격려문이 답지하였다。四월 一八일과 一九일의 량일간만 해도 동 승무조원들에게 보내온 감사문은 무려 五六통이나 된다。

또한 이 승무조는「六○○차량 승무사고」운동을 전체 렬차원들에게 호소하고 九월 五일까지 사고 없이 二五二차량을 운행하였다。동 승무조 화물원들의 六、○○○개의 화물 무사고 수송 운동도 역시 三、○五○개를 무사고로 수송함으로써 전체 화물원들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렬차는 어두운 장막을 뚫고 양덕—고원간의 심산 계곡을 지나 지금 함남 평야를 달리고 있다。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은 백리 함주벌은 황금 파도 늠실댄다。

함흥역에 렬차가 도착하자 렬차원들은 잠간 승무원실에 모인다。여기에서 평양—청진간 제一차 승무 중간 평가회가 열린다。평가회에서는 공무칸 제二실을 맡은 주 옥선이「승리의 기」를 쟁취했다。

정차한 차량 밑에서는 검차원들이 바삐 오간다。「뚱땅뚱땅」마치로 두드리고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메다루며 부레끼를 들여다 보는 긴장한 검차 작업이 짧은 순간에 진행된다。

그들 검차원들 역시 무사고 검차 운동의 불길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퇴조역을 떠났을 때 공무칸 제二실에서는 요란한 박수 갈채가 일어났다。손님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승리의 기』를 받은 주 옥선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였다。손님들 중에 누구인가 소리 높이 웨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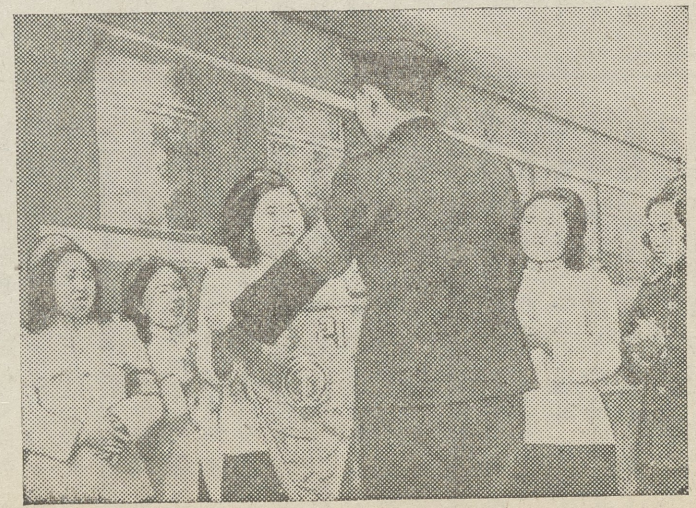
『인젠 이「승리의 기」를 빼끼우지 맙시다。우리도 있는 힘을 합해 렬차원의 사업을 협조 보장해 드립시다!』

차칸은 더욱 명랑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휩싸인다。

끝없이 넓고 푸른 동해 바닷가를 구비쳐 렬차는 청진을 향하여 정시로 달리고 있다。

마치 즐기로운 우리 인민들의 전진을 상징 하듯이……

본사 기자 **김 성진**



※「승리의 기」를 받는 주 옥선

총회에 활기를 띠우게 하려면

강원도 창도군 점방리 민청
제一 분 초급 단체
위원장 김 창 준

초급 단체 총회가 민청원들의 참다운 학교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청년들이 자유로히 활발하게 자기의 의사와 열정을 표시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대담하게 전개할 수 있는 무대로 되게 하여야 하며 자기의 신소와 애로、그들이 말하고져 하는 바를 투철하게 표시할 수 있는 처소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당은 우리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지난 기간 우리 분 초급 단체에서 진행된 모든 총회는 이렇게 활기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회의 때마다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가하는 동무들은 극히 적었고 다수 경우 회의 집행부에서『토론 독촉』을 해야 몇명 토론에 참가하는 정도였다。 또한 회의 진행 중에 잡담을 하며 심지어 일부 민청원들은 조는 현상까지 있었다。

그러나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총회가 이렇게 질서 없고 활기 없이 진행되여도 어째서 그런가에 대해서 심각히 연구하지 않았으며 거저『민청원들이 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왔다。그러면서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총회의 활기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청원들을 토론에 열성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한『방법』으로 민청원들을 三―四명 정도 집행부에 앉치기도 했고 때로는 마치 연극 각본 처럼 누가 집행부를 누구누구로 하도록 제의하게 하고 누구누구가 토론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 등 모든 사소한 것들 까지 미리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한 때도 있었다。 그래도 총회는 여전히 활기를 띠지 못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총회의 활기를 띠우지 못하게 하였는가?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만 민청원들이 열성이 부족하여 그랬던 것은 아니였다。 민청원들은 언제나 생기 발발하고 명랑하였으며 농사일도 열성적으로 잘 하였다。 문제는 어데 있었는가? 민주 청년 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에 명백히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민청 회의를『불필요한 형식과 틀속에 넣어서 진행』함으로써 민청원들이 활발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전환시키지 못한 데 있었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 없는 형식을 많이 갖추었으며 회의 진행 방법은 언제나『틀』에 맞춘 것이였다。

매번 총회 때마다 집행부는 민청원들과 멀찌간이 떨어져 앉게끔 만들었으며 옆에다는 토론석까지 따로 만들었다。 때로는 총회의 집행부를『화려하게』장식하노라고 책상보를 깔고 물주전자에 곱뽀 그리고 꽃병 등을 가져다 놓았다。

나를 비롯한 분 초급 단체 위원들은 이렇게 하여야만 회의 집행부의『위신』을 높일 수 있고 총회가 더『엄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후의 경험이 증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회의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며 민청원들이 마음 놓고 토론에 참가할 수 없게 하였다。

지난 五월 초순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총회의 진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청원들과 협의회를 가지였는바 여기에서 그들은 대부분이 토론석에 나가 토론하려고 생각하면 어쩐지 마음이 떨리고 실수할 것 같아서 토론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정당한 의견이라고 우리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인정하였다。 사실 나도 역시 초급 단체 총회 때에는 민청원들 앞에선 마음 놓고 이야기 하지만 때때로 열리는 군 민청 전원 회의에 참가하여 토론하려면 이러한 기분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분 초급 단체 위원회로 하여금 총회 진행에서 불필요한 형식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체득케 하였다。

그리하여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지난 六월 초순『제三 작업반내 민청원들은 제초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토의하는 총회 때 부터 일체 불필요한 형식들을 없이 하였다。 즉 그전 처럼 집행부를 만들어 민청원들과 떨어져 앉게 한 것이 아니라 회의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여 민청원들을 피여 앉게 한 결과 이날 총회는 그전보다 어느 정도 자연 스럽고 활기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총회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전에는 총회 장소를 언제나 민주 선전실로 고정화시키고 밤에만 총회를 진행하였으나 마을에

그들은 자기들의 과오를 알았다

공청 이조벌렌스크
구역 위원회
비서 주 꼬 브

작년에 우리 구역의 수백명의 청년 남녀들은 중학교와 七년제 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생들 중에서 절반은 전문 학교、중등 기술 학교 및 여러가지 훈련반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공청원 졸업생들은 무엇을 하는가? 대체 그들을 어디에 보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들이 한 공청 위원회 회의에서 초급 단체의 성원들을 심사할 때에 초보적으로 고려하게 되였다。

그 결과 지방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례를 들면 모쓰크바촌의 꼴호즈에는 일하지 않고 한가하게 보내는 공청원들이 一八명이나 있었으며 전 지구에는 근 五〇명이나 있었다。

우리들은 이 촌의 공청 지부 비서 니나 쓰마츠늬호에게 공청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려고 하였다。

『우리에게선 세사람만 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하고 그는 대답하였다『나머지는 다들 집에서 놀고 있지요』『그런데 그들이 꼴호즈의 공청 조직에 와서 등록하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니나는 잠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도 그들이 꼴호즈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가 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그들과 이야기 하여 보십시요。 오늘 공청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니나 쓰마츠늬호는 규정된 시간에 구락부에 와서 수심에 잠기여 말하는 것이였다。『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이래요 공청원들은 시간마저 지키지 않지요。』

많은 노력을 들여서야 공청원들을 소집하고 개회를 선포하였다。 니나 쓰마츠늬호 동지는 공청 구역 위원회 제一一차 대표 회의의 결의와 이곳 조직에 있어서의 공청원들의 임무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여 민청원들이 집단 로동에 참가 함으로써 집체적으로 휴식하게 됨에 따라 이 시간을 리용하여 총회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 때문에 초급 단체 위원회는 때로는 점심 시간 또는 퇴근 시간을 리용하여 민청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총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七월 六일 점심 시간에 비맹원 윤 순근, 오순녀, 박 춘자 동무들의 가맹 문제를 토의하는 총회는 그들이 풀베든 장소에서 진행되였는데 민청원들의 열렬한 토론으로써 활기 있게 진행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전 처럼 민청원들이 밤에 회의에 참가하여 존다던가 피곤을 느끼게 하는 현상들을 없이 하였다.

경험은 민청원들의 마음에 맞도록 그들이 자유로히 자기의 의사를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임 형식만이 회의의 활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총회의 활기를 높일 수 없었다. 그것은 회의 진행에서 『고식화』된 방법들을 개선하지 않는 데 있었다. 매번 총회 때마다 七○여명이 넘는 민청원들을 개별적으로 호명하여 출석부를 정리하고 맹원증 까지 검열하는데 근 한시간, 개회 선언, 회의 집행부 선거, 보고까지 약 시간 반, 질문 및 토론이 한시간 이렇게 하여 폐회까지 하고 나면 총회는 보통 三—四시간 결려야만 끝났다. 회의 시간이 이렇게 지루함으로써 처음에는 질서 있게 진행되든 회의가 나종에는 문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총회가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에 끝나도록 하였다.

출석부 정리는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동무들만 해당 민청 반장들에게 구두 보고를 받아 정리하였으며 맹원증은 민청원들 호상간에 검열하여 만약 부정적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분 초급 단체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종전과 같이 출석부를 정리한다든가 맹원증을 검열하는데 허비하던 불필요한 시간을 없이하였다. 그리고 보고는 二○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지금 우리 분 초급 단체의 총회 시간은 대체 한시간 내외로 되고 있다.

다음으로 회의 진행에서 집행부를 선거한다든가 보고자를 선택한다든가 또 토론과 결정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고식화』된 방법들이 적지 않게 개선되였다. 지난 五월부터는 다수 민청원들 속에서 회의 집행부 성원들이 추천되였으며 회의의 의장으로 한번도 출현해 본 일이 없는 박 연상을 비롯한 五명의 민청원들이 회의를 지도하였다. 이는 회의 분위기를 더 생생하게 만들었으며 민청원들을 총회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의 하나였다.

또한 우리 분 초급 단체는 총회의 보고를 초급 단체 위원장, 부 위원장들만이 하든 지난 날의 방법을 시정하고 민청원들과 리 행정 및 협동 조합 관리 일꾼들도 총회의 보고자로 선택하고 있다.

지난 八월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민청원들 속에서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청원 방 창묵 동무의 학습 정형을 총회에서 듣기로 하였다. 그는 자기 보고에서 자체 학습에서 얻은 경험들, 선전원의 강의에서의 부족점들,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참고 서적들을 알선하여 줄 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많은 민청원들은 보고에 뒤이어 자체 학습에서 얻은 경험들을 내 놓았으며 또한 부분적 민청원들이 학습을 태공하며 선전원이 학습 지도를 옳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비판과 자기 비판이 날카롭게 전개되였다. 이러한 회의 방법들은 민청원들의 감정과 요구를 흡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경험들을 보편화시키며 민청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또 지난 九월에는 추수 탈곡과 만기 작물 현물세 납부 준비를 위한 사업에서 민청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총회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동무가 보고하였다.

그런데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동무는 자기 보고에서 일반적 문제만 강조하고 말았으므로 민청원들에게 큰 자극을 주지 못하였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동무에게 보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치고 그에게 민청원들 속에서 나타난 산 재료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였다.

경험은 이런 경우에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보고자에게 산 재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고를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다음으로 지난 기간 우리 분 초급 단체는 총회 진행에서 질문 시간에 민청원들이 질문한 문제들을 즉시 해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기가 기록하였다가 결론에서 종합적으로 해답해 준다든가 토론 시간엔 토론만 하게 하고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고식화」되여 있었다. 이는 민청원들을 토론에 광범히 자유롭게 참가할 수 없게 하는 유해로운 방법이였다. 왜냐 하면 질문 시간에 민청원들이 보고에서 의문된 문제들을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론에서 종합적으로 해답해 줌으로써 토론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또 토론 시간에도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도 질문 못하게 하였음으로 자유롭게 토론이 전개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때문에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이러한 방법들을 제거하고 회의 진행 행정에서 어느 때라도 민청원들이 의문된 문제들을 제기하게 하

를 전달하였다.

다음에 사회는 누가 발언하겠느냐고 물었다. 일분이 지나고 이분이 지나 시간은 흘러도 발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니나 쓰마츠늬흐는 한 녀 공청원을 지명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기를 『난 아무 것도 말할 것 없어요』하였다.

이 녀 공청원의 대답에 나는 연단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공청원이란 숭고한 칭호가 그들에게 그 얼마나 중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는가 하는 말로써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한 건강한 청년들이 어데서나 일하고 있는 환경에서 번들번들 놀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책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청원들이 자기들로서는 이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구역의 기타 마을의 공청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일하며, 또 그들이 어떠한 영예로운 사적으로 공청 구역 위원회 대표회의 결의에 대답하고 있는가를 이야기 하려고 마음 먹었다.

대표 회의는 공청 조직에 六○명의 공청원을 목축업 부문에 보낼 것을 책임 지웠다. 며칠 후 농장에는 六○명이 아니라 一一三명의 공청원들이 갔던 것이다. 지금 목축업 부문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은 공청원들인 끌호즈원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례를 들면 까가노위츠 끌호즈의 공청 조직은 농장에 二○명의 공청원을 보냈던 것이다. 그 중에서 많은 청년 남녀들은 중등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 공청 지부 비서 니끌라이 꾸즈네쪼브는 중학을 졸업하자 즉시로 목양 작업대의 대장으로 일하였다. 제二七중학교를 졸업한 녀학생 一三명은 공청 비서 라이싸 보보니끄와를 선두로 양돈원으로 일하고 있다. 一九五四년에 졸업 증서를 받은 녀 공청원 니나 이그나또와는 목우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따찌야나 끄노례와는 착유원으로 일하고 있다. 니나 이그나또와와 니끌라이 꾸즈네쪼브는 끌호즈의 작업과 전문 학교에서의 통신 학습을 결합시키기로 결심하였

였다。

다음으로 우리 분 초급 단체는 지난 기간 결정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민청원들이 토론에서 새롭게 제기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하지 않고 이미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준비한 결정서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때문에 총회 결정서는 사실상 사업을 위한 결정이 되지 못하고 다만 한개의 형식적인 문건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이러한 결함들을 퇴치하고 실천성 있는 결정을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물론 지금도 우리 분 초급 단체 위원회에서는 총회를 진행하기 전에 결정서 초안을 만든다。 그러나 지금은 총회에 참가한 민청원들의 광범한 의견을 보충하여 결정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민청원들은 자기가 제기한 의견이 결정서에 첨가되였을 때 긍지감을 느끼게 되며 다음 총회 때는 더 창발적 의견을 제기한다。 그리고 우리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결정서를 길다랗게 만들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언제까지 누가 집행한다는 방향에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정서 초안은 그전과 같이 단거번에 읽고 거수 가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청원들에게 결정 내용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조항씩 해설한후 민청원들의 의사를 듣고서 통과시킨다。

이상과 같이 총회 진행에서 모든 부면에 계속되여 오던 『고식화』된 방법들을 없이하고 민청원들을 총회에 주인답게 참가시킴으로써 총회는 더욱 활기 있고 내용 있게 진행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만 회의 진행에서 불필요한 형식과 를 속에 넣어서 진행하든 방식들을 없애 버리는 것으로만 총회의 활기를 높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함과 동시에 총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총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분 초급 단체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과 병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였다。 우리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민주 청년 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총회의 진행 방법을 개선 하는데서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민청원들을 교양 훈련하는 학교인 총회를 이미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더욱 내용 있고 활기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다。 내가 여기까지 말하니 누구인가 항의를 제출했다。

『끌호즈에서 일하면서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어데 그렇게 해 보시구려、아마 해 나갈 수 없을 것이요』『곤난은 공청원을 위혁하지 못한다』고 나도 역시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나자신이 어떻게 예정한 목적에 도달하였는가를 한바탕 이야기 하였다。

나는 학교에서는 六년 밖에 공부하지 못하였다。 一九四二년에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였기 때문에 학교를 나오게 되였다。 나는 소몰이를 하면서 야학교에서 공부하였다。 一九五〇년에 나는 졸업 증서를 받았으며 쓰따브로뽈리쓰크 교원 통신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계속하였다。 이 학교를 마치고 나는 한 시기 동안 교원을 하였으며 그후 나는 소몰이를 하던 마을에서 소학교 교장을 담임하였다。 지금 나는 공청 구역 위원회 비서로 공작하고 있으면서 한편 교원 대학 지리 학부에서 통신 학습을 하고 있다。

민청생활문답

초급 단체(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새로 가맹한 민청원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초급 단체 위원회는 새로 가맹한 민청원들과의 사업에서 우선 민청 생활 년한이 오랜 민청원들과 구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지도하려는 경향들을 없이해야 한다。 이는 신입 맹원들이 사회 생활과 정치 생활 경험이 어리므로 민청내에서 오랫동안 교양 훈련 받은 민청원들에 비하여 정치 사상 의식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초급 단체 위원회는 비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입 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초급 단체 위원회는 우선 새로 가맹한 민청원들에게 조선 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로서 민청이 담당한 영예로운 과업에 대해서와 민청원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리를 철저히 인식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민청의 강령과 규약을 해설해 주는 학습을 조직한다든가 또한 그들과의 개별적 담화를 통하여 해설해 주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민청원들이 민청 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초보적인 규률부터 즉 민청의 위임 실행에 대한 문제、맹비 납부、규률 준수 문제、민청 총회와 학습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문제 민청원들의 이동 수속 절차에 대한 문제 등을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초급 단체 위원회는 신입 맹원들의 정치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을 빠짐 없이 민청 교양망에 망라시켜 열심히 학습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개별적인 방조를 더욱 주어야 한다。 즉 초급 단체 위원회는 그들과 자주 접촉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당과 정부의 중요 결정、국내외 정세、인류 사회 발전 법칙의 초보적인 문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위대한 전망、그리고 로동당원들을 선두로한 근로 계급의 로력적 위훈을 널리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방조하여야 한다。

신입 맹원들과의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을 일정한 민청의 위임 실행을 통하여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신입 맹원들이 수준이 어리다고 하여 민청의 위임을 주지 않고 그들을 사업에 인입하지 않는 현상이라든가 또한 신입 맹원이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중한 과업을 맡긴다든가 하는 그릇된 경향들을 없애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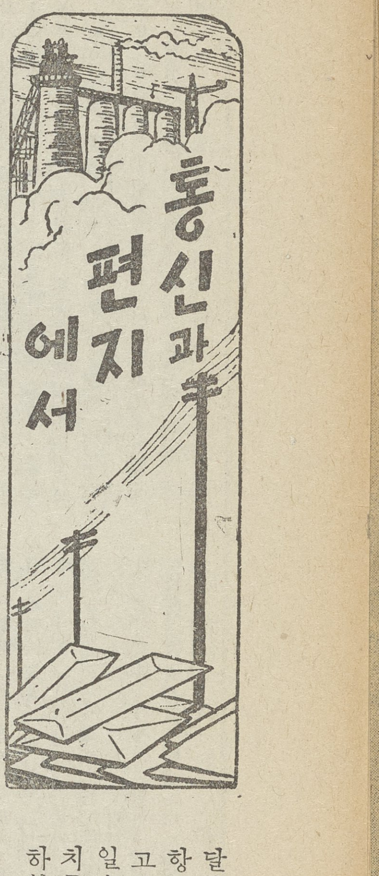
초급 단체 위원회는 신입 맹원들을 민청의 위임 실행에 적극 인입하여야 하는바 과업을 줄적에는 반드시 그들의 준비 정도와 취미를 잘 알고 그에 적응한 과업을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과업을 준 후에는 그의 위임 실행 정형을 알아보고 제기되는 애로와 곤난을 제때에 해결해 줌으로써 그에게 위임된 과업이 옳게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초급 단체 위원회는 그들이 실행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총화와 평가를 하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수행한 사업 성과에 대하여 긍지감을 가지게 하며 자기의 부족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고 그 결점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의 발언이 끝나자 공청원들은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였다。 나제즈다 야레마가 발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더는 이렇게 생활하여 갈 수 없습니다。 량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래일부터는 끌호즈에 가서 일하겠어요。』 리다 몰로되흐도 야레마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발언들이 쉴새 없이 계속되였다。

현재에 있어서는 거의 지방 조직의 모든 공청원들이 끌호즈에서 일하고 있다。 나제즈다 야레마가 지도하고 있는 청년 작업반에서는 중학교 졸업생인 따이씨야 치쓰또끌레또와와 왈렌찌나 쩰루찌나가 일하고 있다。 유리・줴르진 니끌라이 깔루긴 이완 마즈니끄브 및 기타 세 공청원은 양마장에서 일한다。 따마라 줴르지나는 가금을 사양하는 직업을 선택하였다。 공청 지부 비서 니나・쓰마츠늬흐는 식당 관리원의 직무를 사직하고 끌호즈 생산 부문에 넘어가서 일한다。

이 외에도 공청 구역 위원회



조국과 인민 앞에 솔직하자

나는 一九五三년 七월부터 건설성 강원도 제一七 건설 트레스트 직장 상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였다。 나는 상점의 물건들을 애호하며 맞겨진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는 하루에도 몇 만원치의 상품을 팔고 그것을 매일 정확히 결산하여 상부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결산할 때마다 손님에게 내여 주지 못한 거스름 돈 三〇—四〇원의 금액이 남았다。 판매원 생활을 처음 시작한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바로 이때 내가 옳은 립장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후회된다。

나는 이 돈이 몇푼되지 않는다 하여 그 돈으로 과자도 사먹고 어린 동생들에게 학용품도 사다 주었다。 여기에 재미를 부친 나는 매일 남는 거스름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 한달이면 몇백원의 금액에 달하였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들었든 고급 화장품과 기타 일용품들을 사서 사치를 피우는데 허비하였다。

그 다음부터 상점에 잔돈이 있어도 좀 허줄하게 의복을 입은 사람이라든가 늙은이들에게 일부러 잔돈이 없다고 거스름 돈을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바늘 도적이 소 도적이 된다』는 격으로 나의 나쁜 버릇은 점차 더 커갔다。 상점에 있는 과자와 실과들은 사람이 없는 짬을 타서 마음 놓고 먹었으며 때로는 집에도 가져 갔다。 이렇게 하여 부족된 숫자들은 저울눈을 속여서 손님들에게 약간씩 덜 주었든 것이다。 또한 국내산 면직물을 판매할 때 나는 면직물을 잡아 당기여 재여 줌으로써 많은 자토막들을 남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이것을 가져다 손수건을 만들어 시장에다 비싼 값으로 팔았으며 자가용으로도 사용하였다。 나의 이러한 도적 행위로 말미암아 상점에 물건을 사려 오는 손님들의 수는 점점 적어졌으며 매상고 계획량도 완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범죄 행동을 조금도 뉘우쳐 본적은 없었다。 나의 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커갔다。

엄중하게도 술독에서 술을 몇병씩 퍼내여 시장에 갖다 팔고는 그의 부족되는 수량은 그만한 수량의 물을 술독에 퍼 넣었든 것이다。 이러 저러한 행위로 나는 一만 二천여원의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탐오、랑비하였다。

나는 이렇게 하여 소박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국가와 인민을 속여 사리 사욕을 채우는 탐오배로 점점 전락하여 갔다。 나는 이러한 행위를 감행하면서도 이것이 국가와 인민에게 어떠한 해독을 주게 되며 또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 학습을 통하여 내가 범하고 있는 죄행의 원인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인 즉 국가와 인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개인 리기주의 사상에서 출발하였다는 것과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인민 앞에 범한 엄중한 탐오、랑비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였다。 그후 몇달 동안 나는 고민 속에 싸여 있었다。 과거 자체의 잘못으로 이렇게 엄중하게 된 사질을 자아 반성도 하여 보고 이미 저질러 놓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근히 근심도 하여 보았다。 과거의 나의 죄상을 솔직히 자백하고 처분을 받을 것인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끝까지 숨길 것인가? 하는 두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갈팡 질팡하였다。 한때 나는 「一만 三천원 쯤이야 자백하지 않아도 일없겠지! 에…숨기고 말자』는 생각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어쩐지 내 마음은 흐리터분 하고 『그러다 검열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할가』는 근심과 함께 또 고민하게 되였다。

학습과 생활이 흐르는 과정에서 탐오와 랑비를 반대하는 자백 운동은 낡은 사상 잔재를 숙청하기 위한 전 인민적인 심각한 사상 투쟁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또 당과 국가는 이런 죄과에 대해서도 자백하면 관대히 용서한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였다。 그래 나는 자백을 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또 자기의 탐오、랑비 행위를 자백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자기 사업에 전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정신적인 고민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나는 지난 八월 一〇일 다른 직장 상점으로 이동되기 전에 나의 죄상들을 솔직하게 자백하였다。 고민 끝에 자백하고 난 후에 내 마음은 시원하였다。

나는 결심하였다。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청백하고 깨끗한 량심으로 조국과 인민 앞에 충실할 것을。

강원도 원산시 상업 관리소
중앙리 종합 상점
판매원 **한 순 옥**

는 기타 네 지방의 공청 사업을 보았다。 이들 공청 사업도 그리 좋지 못하였다。 공청원은 적지 않았으나 그의 역할은 사실 대단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꼴호즈가 진행한 사업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우리 구역의 졸업생들이 자기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청년 좌담회를 조직하였다。 지구 구락부에는 상급반 학생들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근의 졸업생들이 전체로 二백여 명이나 왔다。

제 三二 중학교의 녀 교원인 야싸니지 동무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지구의 생활이 그 얼마나 찬란하고 다채로우며 꼴호즈의 생산 부문에서 얼마나 영예로운 사업이 청년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가장 설복력 있게 풍부한 내용으로 말한 사람은 까가노위츠 꼴호즈의 목우원 니나 이그나또와였다。 니나는 중학을 졸업한 후 목축장에서 일하였다。

『나의 결심에 대하여 꼴호즈원들은 여러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하고 니나는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지요。 한 녀성은 그 자리에서 다짜 고짜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꼴호즈에 남아 있다면 너는 한 평생 바보가 되여 버릴거야」 그러나 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로련한』 목양자 니꼴라이 꾸즈네쪼브는 그의 젊은 목양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하였다。 젊은 면양 사양원은 금년에 매 양에게서 가늘고도 엷은 양모를 전모할 것과 매 백마리의 암양에게서 자양 一二五 마리를 번식시키겠다는 것을 제의하였다。『로

초、고중 졸업생들은 농촌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

농촌에 진출한 초、고중 졸업생들과의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잘 료해하고 그들의 소질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맞는 사업을 조직해 주는 데 있다。

이런 견지로부터 볼때 지난 기간 군 민청은 그들과의 사업에서 매우 그릇된 방식을 써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사실 우리는 몇달전만 하여도 그들에게 강연이나 진행하고 일부 락후한 학생들의 여론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이 떠들고 「비판」 하는데만 그쳤다。

군 민청은 그들의 결함을 일면적으로 지적할 뿐이고 졸업생들 속에서 싹트는 좋은 면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다。당 단체의 지도 밑에 군 민청은 졸업생들이 속 시원하게 마음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즉 졸업생들과의 좌담회、이미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과의 경험 교환회 등을 수시로 가지였다。

이런 사업을 통하여 군 민청은 일부 리 민청 열성자들 까지 졸업생들을 멀리하며 그들을 민청 사업에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미약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군 민청은 졸업생들이 농촌에서 활동하는 데 애로가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져 하는가를 알게 되였다。 그 후 군 민청은 졸업생들과 민청 열성자들과의 야회、청년의 밤 등을 조직하여 그들을 민청 사업에 인입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신호리 민청 단체는 농한기를 리용하여 처음으로 리적인 야유회를 조직하였다。 리 민청은 야유회 진행 과정에서 리내 초、고중 졸업생들 一六명 중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질과 특성들을 충분히 료해할 수 있었다。 그후 리 민청은 이에 근거하여 체육에 소질 있는 김 복섬을 비롯한 五、六명에게 리적 체육회를 소집할 것을 위임하였다。 졸업생들은 자기 맡은 일의 실행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 리내에 처음으로 륙상 등 역원을 선출하여 축구、배구、체육회를 훌륭히 조직하였다。 체육회는 분 초급 단체 대항 경기로서 민청원들의 활기를 제고시켰다。 이러한 대중적 야회와 체육회를 통하여 농촌 민청원들과 초、고중 졸업생들은 서로 어울리며 호상 도와 지금 리 민청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고중 졸업생 동 정심(협동 조합 부기원) 김 복섭 등은 협동 조합내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 잘하는 동무들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련대리 민청에서는 졸업생들을 군중 문화 사업 부문에 인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 써클 지도자 전 학렬은 문화 써클에 졸업생들과 농촌 민청원들을 다수 망라시켰다。 그는 처음 써클원들에게 인민 군대에 보내는 편지와 벽보 원고 쓰기를 장려하는 동시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모든 것을 당에 바치여』 등 문학 작품 랑독회를 수시로 가지였다。 써클원들은 전 학렬의 지도 밑에 많은 속보와 벽보를 썼으며 마을 출신 군무자들에게 자주 편지를 하군하였다。 특히 전 학렬이 쓴 전 춘수 조합원의 전달 행위를 비판한 벽보 기사는 협동 조합원들의 로력 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

리 민청의 지도 하에 김 종춘은 一〇여명 초중 졸업생들을 망라하여 고중 교과서를 공부하며 선진 영농법을 배워 일반 농민들에게 해석 선전하는 사업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리 민청은 부근에 있는 단천 제五중학교 교원 김 성언、리 희선을 인입하여 졸업생들에게 음악과 무용을 배워 주게 하였다。 교원들로부터 배운 새로운 노래와 재미나는 무용들은 졸업생들을 통하여 광범히 보급되고 있다。

군 민청은 이와 같은 경험을 집체적 또는 개별적 지도 사업을 통하여 대중화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의 실증으로서는 현재 농촌에 진출한 三〇여명 졸업생들은 안착하고 농촌 경리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소질에 따라 선진 영농 지식 보급과 군중 문화 체육 사업 부문에서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유감 없이 발휘하면서 농사 일에 잘 참가하고 있다。

군 민청은 지난 九월 五일 우수한 졸업생 민청원인 신호리 김 복섬 외에 二二명을 표창하여 그들에게 문학 도서를 상품으로 주었다。

군 민청은 이미 얻은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계속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 대한 화려한 전망을 인식시키는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농촌에 튼튼히 발 붙이고 일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함남 단천군 민청
위원장 **윤 사준**

민청원들 속에 더욱 접근하는 하나의 대책

평북도 민청은 지도 일꾼들이 하부 지도 사업에서 一건 이상의 노래 보급과 좌담、해설 등을 의무적으로 하는 과업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도 민청 일꾼들은 우선 매주 一회—二회 정도로 지도자를 초빙하여 새 노래를 배우고 있다。 도 민청 선전 선동부 지도원 조 성룡 동무를 비롯한 몇몇

편한』 목양자는 자기들의 로동에 대한 보수가 얼마나 좋은가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례를 들면 그들의 기본 로임은 거의 二천 루블리가 되는데 그 밖에도 작업대가 자기의 작업 임무를 완수하는 경우에는 자양 七〇마리의 보충적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야회는 청년들이 꼴호즈 로동의 영웅성을 일층 더 인식하도록 도와 주었으며 곡물 생산고를 높이고 공동적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그 생산률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인 열렬한 지향을 그들에게 불러 일으켰다。

우리들은 七년제 학교와 중등 학교 졸업생들을 지방 공청에 편입시키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고려한 바 있었다。 과거의 七학년 및 一〇학년 학생들은 꼴호즈의 조직에 망라하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은 증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생활 자체와 꼴호즈 청년들 호상간의 래왕은 청년들에게 자기들의 힘을 발휘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리용할 기회를 찾을 것을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진 이러한 보충적 력량으로 꼴호즈의 조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과 청년들 사이에 있어서의 대중 정치적、문화적 사업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서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교의 졸업생들을 등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꼴호즈、쏩호즈 및 농기계—뜨락또르 정류소의 공청 기본 조직을 공고히 하는 것은 농업의 급속한 앙양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공청원들의 역할을 높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지
一九五五년
一월 二八일 부에서 초역

동무들은 교원들에게서 『민청원의 노래』 외에 一〇여곡을 배웠다. 도 민청 일꾼들은 배운 노래를 하부 지도 사업 때에 보급시키고 있다.

도 민청 선전 선동부 강사 박 원명 동무가 광성군에 나갔을 때 일이다. 그는 민청원들이 집체적으로 동원되여 일하는 마전 제방 공사에 나갔다. 그는 쉬는 참에 민청원들을 모아 놓고 『청춘의 자랑』이란 노래를 보급시켰다. 공사장의 민청원들은 단자리에서 그것을 능숙히 부를 수는 없었다. 다음 휴식 시간에는 더 많은 민청원들이 『아까 배워 주던 노래를 마저 잘 배워 달라』고 청하는 것이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오후에는 전 공사장에 노래 『청춘의 자랑』이 퍼졌다.

민청원들은 흙짐을 지고 기세 좋게 노래를 부르며 작업 능률을 높였다.

그날 저녁 박 원명 동무는 민청원들과 담화하던 끝에 『모든 것을 당에 바치여』에 대한 작품 내용을 민청원들에게 들려 주었다. 이날 저녁 민청원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밤도 이슥히 깊어 갔을 때 박 원명 동무는 『나머지 이야기는 래일 공사장에서 휴식 때 하여 주마』고 약속하였다.

도 민청 지도 일꾼들의 친절한 지도 사업은 민청원들을 로력에만 고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청 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민청원 홍 금실과 장 재춘은 『민청 사업이 이렇게 노래와 이야기가 늘상 있다면 누가 흥미를 느끼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그는 자기의 동원 일수를 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계속해서 제방 공사에 나갔다.

나는 박 원명 동무의 경험을 나의 지도 사업에 적용시켜 효과를 보았다.

내가 지난 八월 동림군 삼성리 향상 분초급 단체를 지도할 때였다. 나는 그때 당면한 풀베기 사업을 추진시킬 대책을 토의하는 회의를 조직하였다. 회의는 활기가 없었으며 토론도 열렬하지 못하였다. 나는 초급 단체 위원장에게 회의 휴식 시간에 시、노래를 부를 것을 제의했다.

그래도 민청원들은 도 민청에서 온 나를 낯서러 그랬는지 노래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리기 위하여 『청년 복구 행진곡』을 그들에게 보급시키기로 하였다.

이렇게 서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 계속한 회의에는 한결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회의에서는 풀베기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토의되였다.

다음날 나는 풀베기 장소에 같이 갔다. 노래 보급을 하며 그들과 같이 일하며 담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분초급 단체는 이 마을에서 작년 협동 조합을 조직하는 당시 가축을 많이 도살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정을 안 나는 풀베기 작업의 휴식 시간에 소설 『개간된 처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들은 쏘련의 꼴호즈 조직 당시의 정경을 들으면서 가축을 도살한 것이 결국 자기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였다.

나는 이날 될수 있는 대로 작업이 지루하지 않도록 휴식을 자주 조직하고 노래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날 휴식 시간은 비교적 많았지만 작업 능률은 다른 때 보다 훨씬 높았다.

나는 이 마을에 五일간 있으면서 새노래 五종목을 보급하고 두편의 작품을 六회에 거쳐 소개하였다.

내가 이 마을을 떠난 이후 알게 된 소식이지만 그들은 지금 민주 선전실을 중심으로 二〇명 합창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한다.

특히 그들은 지금 풀베기 계획을 一二〇%로 완수하였으며 무축 농가를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나에게 알려 왔다.

나의 지도 경험에 의하여 민청 지도 일꾼들이 새 노래를 알고 그것을 지도 사업에 적용하며 가는 곳마다에서 문학 작품을 해설하는 것은 우리의 지도 사업을 하부에 접근시키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평북도 민청
선전 선동부 지도원
김 상훈

☆ ☆ ☆

쏘련에서는 왜 여전히 자급 비료를 쓰는가

분변、구비、록비 등、자급 비료 등에는 풍부한 유기질이 포함되여 있다. 자급 비료의 좋은 점은 당지에서 얻을수 있고 원천이 풍부하며 사용하기에 경제적이라는 데 있다. 자급 비료는 농작물의 생장에 수요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외에 또한 토양을 개량하며 토양의 수분을 보존하고 보온 및 비옥성을 보호하는 등 성능이 있으며、그리고 폭우의 충쇄에 대한 토양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토양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의 번식을 촉진시키며 토양내의 광물질의 분해를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자급 비료는 어떤 토양이나를 물론하고 적어서는 안될 것이며 더우기는 알칼리토、점질토 등 토양에는 더욱 많은 자급 비료가 수요된다. 공장에서 제조하는 화학 비료는 거기에 포함된 성분이 매우 단순하여 어떤 것은 질소、어떤 것은 린、혹은 칼리 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의 작용은 자급 비료에 결핍되는 어떤 성분을 보충할 수 있으나 자급 비료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어떤 땅에 해마다 화학 비료만을 사용하고 자급 비료를 쓰지 않았거나 혹은 적게 썼다면 결과 토양은 고결되여 좋은 밭이라도 보잘 것 없는 척박한 밭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쏘련의 공업이 비록 화학 비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만 밭에 사용하는 비료에 있어서 여전히 자급 비료를 위주하고 오직 토양의 특점과 농작물의 수요에 근거하여 화학 비료를 적당히 사용할 따름이다. 작년 九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후루쑈브 동지는 자급 비료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들에 대해 비판하였다. 후루쑈브 동지는 『구비는 매우 가치 있는 비료의 하나다. 五개년 계획(一九五一～一九五五)이 결속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대략 매년 四억톤의 구비가 있을 수 있는바 이는 二천만 톤의 화학 비료에 거의 상당하거나 혹은 목전 공업 생산 비료의 三·五배에 상당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바 쏘련에 있어서의 자급 비료는 지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비료의 하나인 것이다. 왜냐 하면 자급 비료는 수량이 많고 비료의 효과가 클 뿐더러 더욱 중요한 것은 그에게 토량을 개량할 수 있는 작용이 있어 이런 작용은 화학 비료로써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 지원군과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을 더욱 강화하자

공화국 영웅 옥 치 선

一〇월 二五일은 영웅적 중국 인민 지원군이 조선 전선에 참가한 五주년 기념일이다. 우리는 뜻 깊은 이 날을 맞으며 우리를 피로써 원조하여 준 중국 인민 지원군 용사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영예를 드리고 있다.

형제적 중국 인민 지원군은 우리 조국이 미제의 발악적 침공으로 인하여 엄중한 위험에 처했을 때 항미 원조의 성스러운 기치를 높이 들고 용약 조선 전선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중국 공산당과 모 택동 주석에 의하여 고상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로 교양된 중국 인민 지원군은 조선 전선에 참가한 첫날부터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생사와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인민의 군대로서의 고상한 전투 도덕적 품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중국 인민 지원군 장병들은 우리 조국의 자유와 아세아의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의 평화를 고수하기 위하여 항미 원조 전선에서 자기의 피와 생명을 서슴치 않고 바쳐 싸워 우리 조국 력사에 영원 불멸할 위훈을 세웠다. 이것은 조선 전선 참전 이래 二년 九개월 동안에 지원군 대렬 속에서 五천 一백여에 달하는 집체 립공의 구분대들과 三〇만 二천 七백여명의 각종 공신들이 배출되였다는 사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한 례로서 一、〇七一 고지를 피로써 고수한 양 근사 영웅 소대 용사들의 위훈을 들 수 있다。一九五一년 一一월 一、〇七一 고지를 고수할 전투 임무를 받은 양 근사 동무와 그의 소대원들은 수一〇대의 적 항공기의 폭격과 가혹한 포격 속에서도 『한치의 땅도 놈들에게 빼앗기지 말자! 한놈의 적이라도 살려 보내지 말자!』라고 서로서로 고무 격려하면서 용감히 싸웠다. 一、〇七一 고지는 포연 속에 잠기였고 적 비행기는 계속 맹폭을 감행하였다. 양 근사 소대원은 불과 몇명 밖에 남지 않았다. 탄약도 거의 떨어졌다. 그러나 적들은 아홉차례나 공격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소대 전투원으로는 단 한 사람 양 근사 동무만이 남았다.

그러나 아직 四〇여명의 오만한 적들은 집요하게 기여 올라오고 있었다. 위급한 순간이 닥쳐왔다. 양 근사 동무는 一〇여근의 작약을 끌어안고 기여오르는 적진에 뛰여들어 자폭으로써 적을 소멸하고 一、〇七一 고지를 끝내 사수하였다.

이 밖에도 자기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고 부대의 돌격로를 개척한 특급 영웅 황 계광、전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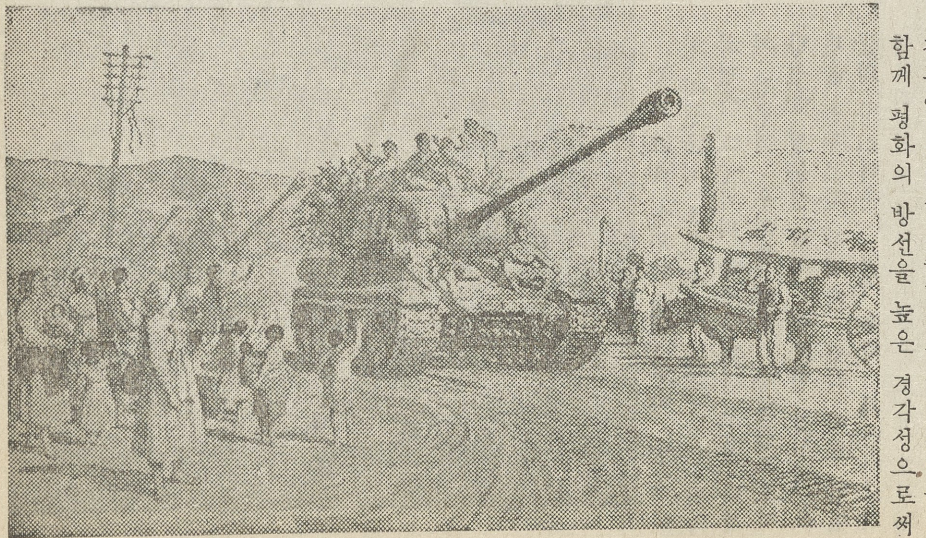
생한 一급 영웅 구 소운、적탄에 의하여 두 다리를 잃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적을 격멸 소탕한 특급 영웅 손 정원 동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공신들의 찬란한 전투 사적들은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남아 있을 것이다.

영웅적 중국 인민 지원군 장병들이 조선 전선에서 발휘한 이러한 불멸의 위훈들은 항상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불요 불굴의 투지와 승리의 신심을 고무하여 주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 장병들과의 긴밀한 협동 작전하에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친 형제와도 같은 우의와 친선 관계를 맺고 있다. 청천강 및 장진 호반에서、한강 남안 및 소양 강변에서 그리고 현리 계선 및 문등리 계선 등 수많은 대、소 작전들에서 조、중 인민군 부대 지휘관들은 공동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에 조、중 인민군 부대 장병들은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같은 진지에서 같이 전투하였으며 생명의 분초가 위급한 시각에는 서로 희생을 무릅쓰고 전우들을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높고 낮은 고지와 들、골짜기들과 강들에는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전에서 조、중 인민군 부대 용사들이 협동 작전에서 세운 불멸의 위훈이 아로 새겨져 있으며 고귀한 피가 스며져 있다.

세계의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무력 침략자들은 전쟁 三년동안에 가장 야수적、략탈적 전쟁 수단을 다 하였으나 끝내 자기의 침략적 야욕을 달성하지 못한채 자기들이 침략 전쟁을 도발하던 계선에 주저 앉아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는 『우리 조선 인민들은 조선 전선에 참전한 중국 인민 지원군 장병들에게서 위대한 중국 공산당과 그의 수령 모 택동 동지가 령도하는 영광스러운 인민 중국의 새 아들 딸들을 보며 조선 인민의 간난 신고를 자기의 간난 신고처럼 생각하고 그를 타개하기 위하여 분투 로력하고 있는 숭고하고 결백한 새형의 인간들의 참된 모습』을 본다고 하시였다. 이 말씀과 같이 실로 그들은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조선 인민들의 영농 사업을 방조하여 주었으며 적의 폭격에 의하여 파괴된 철도 교량들을 복구 수리하였으며 집을 지어 주고 의료상 방조를 주는 등 우리 인민들을 백방으로 원조하여 주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조선 소년 최 형을 구원한 국제주의 전사 라 성교、적기의 맹폭 속에서 조선의 할머니를 구원하고 희생된 왕 영유 동지 등 수많은 국제주의 렬사들의 장거는 그들의 혁혁한 전투 위훈과 함께 조선 인민의 가슴 속에 맥맥히 살아 있다.



영웅적 중국 인민 지원군 장병들은 전후에 있어서 조선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평화의 방선을 높은 경각성으로써

수호하는 한편 조선 인민의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투쟁에 막대한 로력적 협조를 주고 있다。

그들은 『전후 조선 인민의 복구 건설을 적극 협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평양 대동교 복구 사업을 비롯한 생산 기업소、학교、문화 기관、기타 고층 건물들의 신축 및 복구 사업과 관개 수리 공사 등 도시와 농촌의 복구 건설장들에서 성심 성의의 원조를 주고 있다。

조선에서 정전이 달성된 후 중국 인민 지원군은 세번에 거쳐 철거하였다。작년에 七개 사단、금년 봄에 六개 사단、또 이달에 六개 사단이 조선에서 철거한다。

이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중국 인민의 변함 없는 성의와 신념의 표시이며 동시에 이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로력의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조선 인민군 장병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 장병들과 같은 믿음직한 전우들을 가진 것을 무한한 행복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을 존경하며 신뢰하고 있다。

오늘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장엄한 로력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인민 생활은 날로 안정 향상되여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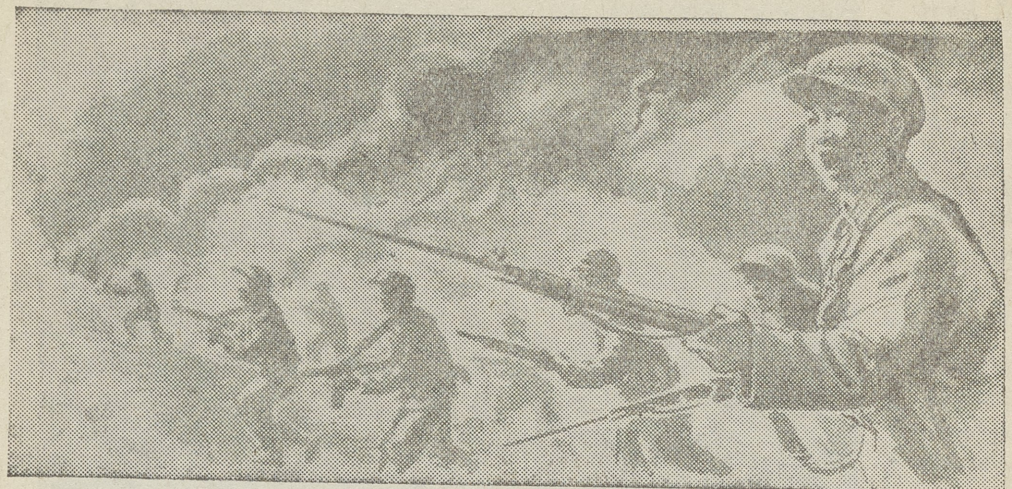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백방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정전 협정을 파괴하기 위한 온갖 배신적인 책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병력을 증강하는 등 발광적인 전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놈들의 어떠한 간악한 흉모도 과거와 같이 파탄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놈들의 흉계와 발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들은 조선 정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조선 인민의 평화적、창조적 로력 성과들을 철옹성 같이 수호하기 위하여 평화의 방선에 굳건히 서 있으며 원쑤들의 어떠한 군사적 모험도 능히 격파 분쇄할 수 있도록 자기의 군사적 기술을 부단히 제고하며 무기와 전투 기자재에 정통하며 항상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군 장병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의 조선 참전 五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과 전투적 우의를 더욱 강화함으로서 쏘련을 선두로 한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성스러운 평화 유지 사업에서의 믿음직한 초병이 될 것을 굳게 결의하고 있다。

☆ ☆



영원히 잊지 못할 이야기

一九五三년 六월 一〇일 북한강 동쪽에 유달리 높이 솟은 대성산 전투시였다。이날 밤 정각 八시 四〇분이 되자 아군 부대들의 강력한 포화는 적진에다 맹렬한 포격을 개시하였다。이어서 중국 인민 지원군 용사들은 번개같이 적진에로 돌진하였다。중국 인민 지원군의 六〇포 분대장 리 운봉은 분대원들을 신속히 지휘하여 주공 돌격 소대 용사들과 함께 적진에 접근하였다。

그러자 적들도 맹렬한 포격과 중、경기관총 사격을 가해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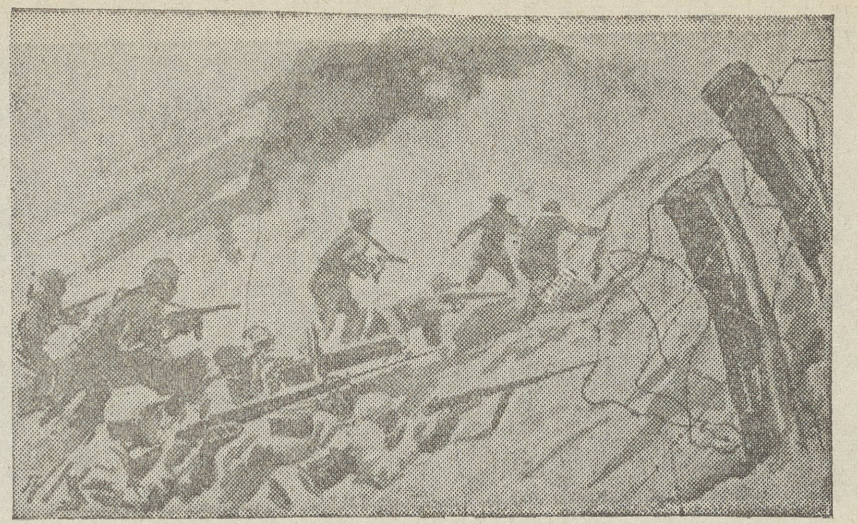
주공 돌격 소대 용사들이 전진하는 전연에는 적의 포탄이 쉴새 없이 날아와 작렬하였다。용사들은 계속 영용 무쌍하게 적이 차지하고 있는 고지 정점을 향하여 돌격하였다。그러나 돌격 구분대 용사들은 대성산 정점을 약 二〇〇메터 앞두고 잠시 전진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였었다。그것은 적의 철조망이 용사들의 전진을 가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주공 돌격 소대장은 즉시로 二명의 폭발수를 파견하였다。그러나 폭발수들은 불행히도 도중에서 중상을 입고 말았다。돌격 구분대는 적들의 포화에 저지 당하였다。오직 앞을 가로 막은 적의 철조망을 타개하여야만 순조롭게 전진할 수가 있었다。짜릿짜릿한 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용사들은 몹시 조급했었다。

—빨리 돌격하여 올라가지 않으면 적들은 전부 도망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뒤에 따라오는 전우들도 여기에 와서 함께 몰리게 되면 희생이 증가될 것이 아닌가?—

선두에서 내닫던 용사 몇몇은 벌써 부상을 입었으며 철조망에 걸려서 애를 쓰고 있는 순간이였다。이 광경을 눈여겨 본 공산당원 리 운봉 분대장은 그대로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순간이 지났다。



「동지들! 승리를 위하여! 나의 몸둥으로 넘어가라!」리 운봉 동지의 쨍쨍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그는 번개 같이 포복 전진하여 적의 철조망을 자기 몸으로써 덥석 덮었던 것이다.

여러 전투원들은 깜짝 놀라서 몸까지 움직 하였다.

—차라리 내가 저렇게 하고 전우들을 나의 몸둥으로 넘어가게 하였을 걸…—

소대장도 잠시 생각하여 보았다.

—소대 전투원들이 자기의 전투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철조망을 돌파한 후의 전투 임무가 더욱 간고하리라는 것을—

—옳다, 여기에서 一초라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더욱 큰 손실을 볼 것이다—

소대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였다.

소대장은 바른 손을 높이 휘두르면서 「돌격! 앞으로!」라고 웨쳤다.

이때! 운봉 동지가 웨치는 소리가 다시 들려 왔다.

「동지들! 빨리 넘어가시오! 빨리!」

전투원들은 모두 다 깊이 감동되여 복쑤의 불길을 일층 높이고 운봉 동지의 몸둥으로 넘어갔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명의 전투원들이 무기 탄약을 메고 그의 몸둥으로 넘어 갔으니 그것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았으랴!

그러나 운봉 동지에게는 이러한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강한 인내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전우들이 전부 넘어간 후 다시금 일어나서 돌격 서렬을 따라 나갔다.

그러나 돌격 구분대는 얼마 전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철조망과 부딪치게 되였다. 리 운봉은 이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 자기 몸으로서 적의 철조망을 가로 막았다. 전투원들은 리 운봉 임을 눈치 차리게 되자 저마다 그의 몸둥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리 운봉은 또다시 전우들을 향하여 소리 높이 웨쳤다.

「빨리 넘어 가시오! 적들을 소멸하는 것이 제일 긴급한 문제입니다!」

옳다! 적을 소멸하는 것은 제일 긴급한 문제이다! 전투원들은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마음의 아픔을 참아 가면서 또다시 운봉 동지의 몸둥으로 련이어 넘어갔다. 용사들은 벌써 적의 진지 정점 근처에로 육박하고 있었다. 승리는 맑은 눈동자 속에 휘황히 보이고 있었다. 리 운봉 동지의 마음은 그 얼마나 기뻤으랴!

그는 철조망에서 일어나 전우들을 따라가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기진 맥진하여졌다. 그의 앞 반신에는 철조망의 날카로운 가시가 막 찔려서 구멍이 숭숭 났었다. 그 구멍 속으로부터는 붉은 피가 그칠 줄 모르고 막 흘

러 나왔다. 그의 머리에서는 식은 땀이 쭐쭐 흐르고 있었다. 뒤에 따라 오던 돌격 서렬 용사들은 운봉 동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구급 붕대로써 운봉 동지의 상처를 감아 주려고 하였고 또 담가에다 눕이여 후송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운봉 동지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는 철조망 우에 엎드린채 말하였다. 『동지들! 빨리 전진하십시오、나에게 대해서는 조금도 념려마시고 그저 저놈들을 한놈이라도 도망 못하게만 하시오』

그는 잠시 동안 실신 상태에 빠졌었다. 그러나 요란한 포성이 울려왔을 때 그는 다시금 정신을 채릴 수가 있었다.

그는 불굴의 강한 의지를 견지하려고 어금이를 악물고 전신의 맥을 손과 발에다 주면서 일어섰다.

—나는 공산당원이다. 어떻게 하든지 나의 전투 임무를 완수하고야 만다—

이렇게 굳게 결심한 그는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다시금 적 진지 정점에로 향했다.

모진 상처의 아픔을 참아가면서 한메터 한메터 전진하였다. 그러나 몇메터 나가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두 눈동자는 빛났다. 오직 적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그리고 조선의 한치의 땅이라도 더 걷고 싶었고 더 해방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걸을 수 없으면? 기여서라도!」그는 이렇게 자문 자답 하면서 나무 그루를 붙잡고 기여 나갔다.

그러나 얼마 나가지 못하여 또 한개의 철조망이 그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뒤따르던 아군 돌격 구분대들은 여기에서 전진을 멈출 수가 없었다. 용사들은 비호 같이 철조망을 뛰여 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철조망에 걸려서 깊은 교통호 속에 빠진 것을 본 리 운봉은 또다시 전우에 대한 높은 계급적 우애심이 북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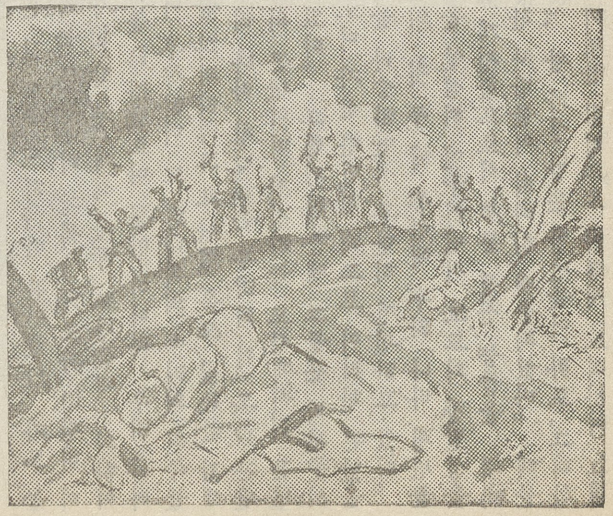
—내 한몸이 죽더라도 저 많은 동지들은 저 철조망을 돌파하여야 한다—

그는 번개 같이 몸을 막 굴려서 철조망 우에 엎드렸다.

「전우들! 적 고지 정점은 눈 앞에 보인다. 빨리 나의 등을 거쳐 전진하라!」

전투원들이 방금 철조망을 건너서자 적의 포탄이 운봉 동지의 옆에 와서 작렬하였다. 철조망은 완전히 아가리를 벌이고 말았다. 그러나 운봉 동지는 이 순간 여섯곳에나 부상을 입었다.

그는 그만 실신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적 진지를 완전히 탈취한 후 그의 분대 전사 호 영귀가 그를 업고 대피호 속으로 들어갔다. 몇분 잘 지난 후 그는 또다시 정신을 차려 가지고 가냘픈 소리로 한마디 묻는 것이였다. 「우리 구분대가 적 고지 정점에로 올라갔



소? 안갔소?」전사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분대장 동지! 저걸 보시요」운봉 동지는 머리를 처들고 대성산 정점을 쳐다 보았다. 캄캄한 상공에서는 붉은 신호탄이 두발 떠올랐다. 그것은 곧 전투는 이미 승리적으로 결속되였다는 것을 의미함이였었다. 그제사 운봉 동지는 맑은 정신으로 쩌 유쾌한 웃음을 띠였다.

이 전투에서 그가 속한 구분대는 적의 一개 련대 이상의 병력을 전부 섬멸시키는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리 만 규)

중국 청년들은 사회주의의 실현을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중국 신 민주주의 청년단
중앙 위원회 서기처
서기 구 당 량

중국 청년들은 다년간 자기 나라에서 만든 비행기를 타고 가 없는 조국의 하늘을 날으며 자기 나라에서 만든 기관차와 자동차를 타고 조국의 땅 우를 달리며 또 자기 나라에서 만든 뜨락또르와 꼼바인으로 조국의 기름진 땅을 갈아 제끼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하는 그 날이 올 것을 꿈꾸었다。

그런데 이제 위대한 제一차 五개년 계획이 작성 공포되여 그들의 이 념원이 실현되게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 청년들은 이 五개년 계획으로 하여 커다란 감격에 싸여 있다。 그들 매개 중국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제一차 五개년 계획은 조국의 사회주의화를 실현함에 있어서의 전투적 강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사회주의를 위하여』 또는 『청춘을 조국의 사회주의화를 위하여 바치자』는 구호를 웨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비길 바 없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업에 자기들의 력량을 바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커다란 긍지감을 느끼고 있다。

당은 특히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이 력사적 과업이 주로 새 중국의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중국 청년들은 당이 준 이 교시를 가슴 깊이 명심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당의 이 무한한 신뢰와 절실한 기대에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맹세하고 있으며 동시에 거기서 용기를 배가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 우에는 허다한 곤난들이 가로 놓여 있다。 즉 우리 나라는 본래부터 경제적 기초가 대단히 미약한데다가 제국주의자들 및 장 개석 매국 도당들에 의하여 다년간 혹심하게 파괴를 당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건설 자금과 경험이 부족하며 또 국내외의 우리의 원쑤들은 우리의 건설 사업을 파괴하려고 부단히 음모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청년들은 우리의 이 모든 곤난이 승리하는 도상에서의 곤난이며 전진하는 도상에서의 곤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락관주의 정신으로 충만되여 있으며 자신 만만한 태도로 이러한 곤난을 극복하고 온갖 원쑤들을 타승하면서 부단히 전진하고 있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첫 두 해 동안에 우리 나라 청년들 가운데서는 자기 사업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고도의 창발성을 발휘하여 작업 방법을 개진함으로서 로동 생산 능률을 대대적으로 제고시킨 훌륭한 사람들이 허다히 배출되였다。 례를 들면 왕 숭륜、 여 식연、 왕 항성 같은 청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하여 그러

한 성과를 거두게 되였는가 하는 데 대한 이야기가 널리 소개되자 광범한 청년들 가운데서는 그들에게서 배우자는 목소리가 드높아졌다。 선두 시의 국영 기계 수리 공장에서 일하는 제관공 라 목명 청년은 미 제국주의 자들이 감행한 세균전을 분쇄하기 위하여 분무기를 만들어 조선 전선에 보내려고 작업하던 중 아세찌렌 까스가 폭발하여 두 눈이 멀게 되였다。 그러나 많은 영웅들이 온갖 곤난을 극복한 끝에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모범적인 사실에 고무된 그는 쏘련의 폴·카챠찐을 본 받으면서 『왕 숭륜을 향해서 배울 것』을 결심하였다。 그후 그는 온갖 곤난을 극복함으로써 一九五四년 七월—一九五五년 一월 기간에 대소 一六종에 달하는 공구와 작업 방법을 개량 및 창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작업 능률을 四배로 제고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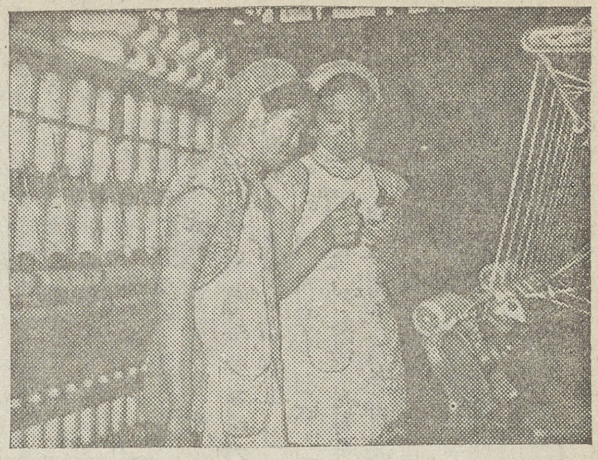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청년들의 열의가 날로 앙양됨에 따라 청년 돌격대、 청년 선진반 및 조、 청년 감찰대、 청년 절약대 등 각종 새로운 조직들이 끊임 없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기본 건설장에서는 약 一、五五〇여의 청년 돌격대에 망라된 三만 八二五명의 대원들이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증산 절약 운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다。 북경시에는 一四〇여의 청년 돌격대가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二·四분기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있다。 우 춘화 청년 돌격대에서는 상반년 국가 계획을 七六·二六%나 초과 달성하였으며 또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 관하여 학습한 후에는 그들에게 맡겨진 하반년의 과업을 八九% 초과 달성하는 동시에 재료 감모률을 국가에서 제정한 二%로부터 〇·五%로 저하시키겠다는 투쟁 목표를 내 놓았다。

철저한 절약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자금을 축적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승리적으로 완성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청년 로동자들이 조직한 절약대는 이 방면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으며 또 놀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료녕、 산서、 북경、 상해、 천진、 안산 등 단 一七개의 성 및 시에서 六、二八三개의 청년 절약대에 망라되여 三一만 四、〇〇〇여명의 청년 로동자들이 고철 기타 폐품 회수 운동에 참가하였는바 그들은 국가를 위하여 강철 九만 六〇〇여톤、 유색 금속 九六七톤 및 각종 기계 부속、 공구、 기재 등 五六만 여건을 수집하였다。

농촌의 청년들은 이 증산 절약 운동에서 도시 청년들에게 뒤지지 않고 있다。 당이 내 놓은바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첫째 방법은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 청년들은 당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항상 협동화 운동의 선두에 서 있다。 현재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의 수는 六五만에 달하는데 거기에는 一、七〇〇만의 청년 조합원들이 망라되여 있고 그 중 一三〇만명이 협동 조합내의 핵심으로 되고 있다。 섬서성 례천현의 봉화 농업 생산



※ 안산 제철소 용광로 젊은 기술자 호 조삼(좌)은 용광로를 검사하고 있다。



※ 국영 상해 제17방직 공장 모범 정방공 황 보배(우)는 선진적 작업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인 청년 단원 왕 보경(공산당원)은 새로운 경작 방법과 우량종을 사용하여 자기의 모범 경작지에서 밀을 매 무(畝—약 一六〇평에 해당—역자 주)당 六九〇근을 생산하고 옥수수는 매 무당 一,三一六근을 생산함으로써 전 성적으로 최고 기록을 내였다. 이리하여 작년에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이 조직되였을 때 왕 보경은 관리 위원장으로 피선되였던 것이다. 이 一년 동안에 그가 지도하는 생산 협동 조합에서는 밀을 매 무당 一,〇二七근 四량, 옥수수는 매 무당 一,五〇〇근 一三량이란 다수확을 걷었다. 금년에는 그들의 조합에 있는 옥수수 모범 경작지에서 매 무당 수확고가 一,六〇〇근에 달하게 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왕 보경과 같은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청년단 단체들은 농촌에서 추수 과정에서의 식량 및 면화 감모량을 감소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청년보』지는 『四五억근을 되 살릴 것』을 목표로 내 놓으면서 이렇게 많은 식량만 가진다면 三〇〇만의 인구를 가진 북경의 시민들이 三년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현재 전국의 농촌 청년 및 소년들은 이 운동을 열렬하고 광범하게 전개하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사천성 一九개 현의 三〇〇여 향들에서는 추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八,六〇〇여의 청년 수확대(조), 절약대(조), 돌격대(조) 및 검열대(조)가 조직되였는바 그들은 수확에서의 감모량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례를 들면 같은 사천성 강북현 삼회향에서는 七一八명의 청년들로써 四六개의 청년 절약대를 조직하여 一〇일간 도릿개질과 뒷마당질을 세밀히 함으로써 식량 감모량을 五,二九四근이나 감소시켰다.

청년들은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더욱 큰 력량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과학 기술 수준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나라 청년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기의 과학 기술 수준의 제고를 위한 투쟁을 완강히 진행하고 있다.

과학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문화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급선무로 된다. 현재 전국에서는 二九〇여만의 로동자들이 로동자 특별 강습소에서 공부하고 있는바 그 가운데서 약 七〇%가 청년 로동자들이다. 二〇개의 성, 시들에서의 一九五四년 말의 통계에 의하면 약 一,〇〇〇여만의 농촌 청년들과 五〇여만의 도시의 근로 청년들이 각각 농민 특별 강습소와 도시의 특별 강습소들에서 공부하고 있다.

현재 초급 중학교와 소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七,〇〇〇여만에 달하며 고급 중학, 중등 실업 학교 및 전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一四一만 七,〇〇〇여명에 달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바 책임의 중대성을 잘 인식하고 자신들을 지와 덕이 겸비하고 몸이 튼튼한 그러한 쓸모 있는 인간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위해서 복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청년들이 자기들의 작업 외 시간에 과학 기술을 어떻게 련마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하여서는 참으로 감격적인 실례들이

많다. 한 례를 들면 산동성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쩨호 교대 책임자 서 인무는 그가 처음 작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한개의 잡 로동자에 불과하였고 지식 수준도 고등 소학 정도이였다. 그러나 그는 八년 동안 하루 같이 매일 시간외 학습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는 화학, 수학 등 과목에서 이미 대학 수준에 도달하였다. 금년에 와서 그는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는 모 주석의 호소를 받들고 로어를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로어 원서를 읽을 수 있게 되였다.

당은 우리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은 한개의 지극히 첨예하고 복잡한 투쟁이라는 것을 재삼 교시하였다. 한편으로는 외래 제국주의자들이 수수 방관하려 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이미 타도되였거나 앞으로 타도될 계급들이 온갖 기회를 리용하여 당과 인민의 리익을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은 경각성을 고도로 높여 가지고 조국의 건설 사업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결심을 하고 있다.

一九五四년에 국가에서 군대 초모 사업이 진행되였을 때 중국 청년들은 고도로 앙양된 애국심과 조국을 보위하려는 결심을 뵈여 주었다. 그 당시 국가에서는 수십만을 보충하려 하였는데 초모에 응한 적령의 청년들은 一,〇〇〇여만에 달하였고 그중 四〇〇여만이 청년 단원이였다. 다시 말하면 이는 농촌에 있는 적령에 달한 청년들의 거의 전부가 지원한 것으로 된다. 이 응모 숫자는 국가에서 실제 징모한 숫자의 십여배에 달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 투쟁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공개적으로 총을 든 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온순』하고 『성실』한 체 하면서 량면주의자의 전술을 써서 혁명 대렬내에 잠입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현재 전국 청년들은 당의 령도하에서 전국 인민과 한 덩어리가 되여 일체의 숨은 반혁명 분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인민 해방군의 젊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주야로 조국의 변강과 해안 령공 및 매 한치의 땅을 수호하고 있다. 그들은 원쑤놈들이 침범해 오기만 하면 그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조국의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조국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인 처녀 서 건춘(좌)은 종자의 발아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조국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중국 신민주주의 청년단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믿음직한 당의 방조자로 되고 있다. 지금 청년단은 一,三〇〇만의 단원들을 망라한 중국의 선진적 청년들의 대중 조직인바 그는 一억 二,〇〇〇의 청년들을 중국 공산당의 주위에 철석 같이 집결시키고 있다.

청년단 제二차 전국 대표 대회 석상에서 류 소기 동지는 중

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대표하여 청년 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였다. 『조국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건설이 개시된 새 시기에 있어서,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 과정에 있어서 청년단의 전체 단원들은 당의 방조자가 되고 후비군이 되여 당과 더불어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투쟁의 최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청년단은 몇해 동안 당이 준 이 지시를 충실하게 집행하여 전체 단원들과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도 및 조직하여 조국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대렬로 보내였다.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 것은 전체 청년단 사업 중에서도 가장 주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청년단은 자기의 실천 활동을 통해서 쓰딸린 동지가 주신 이 교시가 전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당 중앙과 모 택동 동지는 청년단에게 투쟁 목표를 제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단의 사업 방향과 사업 방법을 교시하였다. 모 택동 동지는 청년단은 청년들을 『몸이 건강하고 공부를 잘 하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교양하고 인도하여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한 새 일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또 청년단은 당의 중심 사업과 배합하는 외에 청년들의 특성에 알맞는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청년단은 당과 모 택동 동지가 주신 이 교시에 의거해서 자기의 전 사업을 조직하고 있다.

청년단은 지난 二년 동안에 당의 령도 하에서 매개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중심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청년들을 조직 동원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였다. 왜냐 하면 청년들은 오직 로동 과정에서만 오직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투쟁 과정에서만 진정으로 심각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단 단체들은 실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특성에 알맞는 여러가지 사업 방법을 적용하는데다 많은 주의를 돌렸다. 최근에 청년단 중앙과 각성 및 시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청년 열성자 대회가 소집되였는바 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조국 건설에서 일층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러 할 것이다.

청년단 단체들은 청년들의 밑으로부터의 제의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청년단은 청년 돌격대, 청년 절약대, 청년 선진반(조)들을 지지 성원하였으며 六〇명으로 조직된 북경 청년들의 한 그루빠가 멀리 흑룡강성으로 가는 황무지 개간대에 지원할 것을 지지하였으며 각종 의무 로동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한편 청년단은 청년들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조직하고 청년들 가운데서 문맹 퇴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의 독서를 지도하며 각종 통속 과학 강좌를 개설하며 군중적인 예술 및 체육 활동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젊은 청년들을 높은 정치 의식을 가진 일군으로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적 지식과 건전한 정신 및 고상한 도덕을 가진 그러한 일군으로 육성해 내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중국 청년들은 자기 조국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면서 영웅적 조선 인민과 조선 청년들이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새 생활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청년들은 김 책 제철소, 수풍 발전소, 평남 관개 공사 등 거대한 복구 공사에 대하여 조선 벗들이 새로 거두고 있는 성과의 하나 하나에 대하여 충심으로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창조적 근로 정신에 의하여 고무되고 있다. 중국 청년들은 중, 조 량국 인민과 청년들 간의 친선 단결은 자기 조국을 건설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사업에 있어서 특히는 극동의 평화를 보위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심각히 인식하고 그러한 친선과 단결을 일층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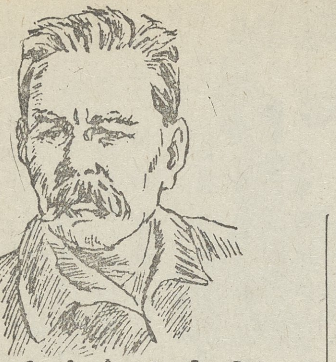
독서에 관한 교훈



책은 덜 읽어도 그의 내용, 그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을 더 많이 연구하며 좋은 책인가, 좋다면 어떤 점이 좋은가—하고 독자적으로 책을 평가하는 데 노력하며 자기 수첩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엠·이·깔리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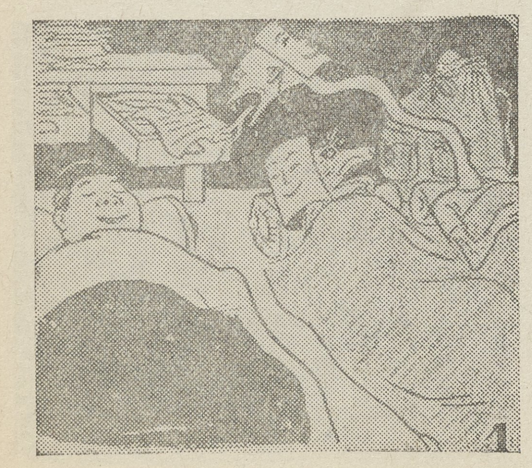


……내가 확신하는 진실로써 깊은 자신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책을 사랑하시요. 책은 당신에게 쉽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며 복잡하고 폭풍우 같은 혼란 속에서 사상, 감정, 사건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며 책은 사람과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것을 배워 주며 세계와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하여 지혜와 심장을 기운내게 합니다.』

× ×

☆경각성과 해이성☆

1. 신분도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재우면 이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 『설마 목욕탕이야?』하고 안심하겠지만 사실은 이런데도 적의 암해 분자들은 노린다.
3. 함부로 버린 휴지가 적들에게 리용될 수 있다.
4. 기계 파손은 『평범한 일』로 『불가피한 일』로 볼 수 없다.
5. 『이것은 비밀인데?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시요』하고 국가 비밀을 루설하는 사람이 없는가?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책들의 혜택이다。 책을 사랑하시라、지식의 원천을…」

(엠·고리끼)



◇

독서—이것이 바로 제일 좋은 학습 이다。 위대한 사람의 사상들을 뒤따르는 것은 제일 흥미 있는 학문이다。

(아·뿌쉬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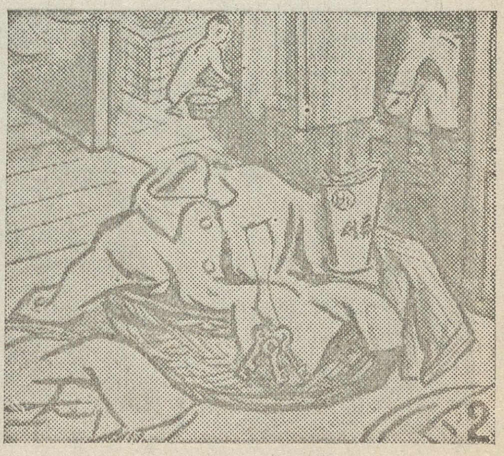
◇



글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읽는가? 장차 글 짓는 재주를 풍부히 하기 위하여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차 글 많이 안다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인가? 아니다。 독서를 하고서 그것의 실용을 모른다면 그것은 학문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며 리용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

소위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그 소리가 고운 것을 말한 것도 아니오、그 구절을 잘 뗀 것을 말한 것도 아니오、그





뜻을 잘 푼 것을 말한 것도 아니오、그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을 말한 것도 아니다。

× ×

글을 읽되 사사로운 공명심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몇해를 두고 글을 읽어도 그 학문의 진도가 없는 것은 거기에 사사로운 공명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문하는데 출세를 노리기에만 급급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글 읽는 것이 도리여 유해롭다。

× ×

어진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까지 하루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오직 글 읽는 일이다。

아이들은 질탕하게 놀며 장난하다가도 곁에서 글 읽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 으젓해진다。

아이들은 아무리 총명하고 잘나도 글 읽기를 싫어하지 않는 아이가 없으며 어머니들은 밭 고랑에서 일을 하면서도 글 읽는 소리를 듣기 좋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부모는 너나 할것 없이 아들의 글 읽는 것을 바란다。 아이들이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글을 읽을 때처럼 그 부모가 기뻐한 적은 없다。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어려서 그처럼 글 읽기를 싫어하였던고! 집이 가난하여도 글 읽기 좋아하였다는 말은 들어도 부자로서 글 읽기 좋아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 ×

글 읽는 법은 과정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질질 끄는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 너무 욕심부려 많이 읽으려 하지 말며 너무 빨리 읽어 넘기려고 서둘지 말라。 분량을 일정하게 정하여 매일 쉬지말고 하라。

글자를 날리지 말며 뒤바꾸지 말며 빼먹지 말라。 또 글자를 성글게 쓰거나 빽빽하게 쓰지 말며 꺼꾸로 쓰거나 비뚜러지게 쓰지 말라。 그 음은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고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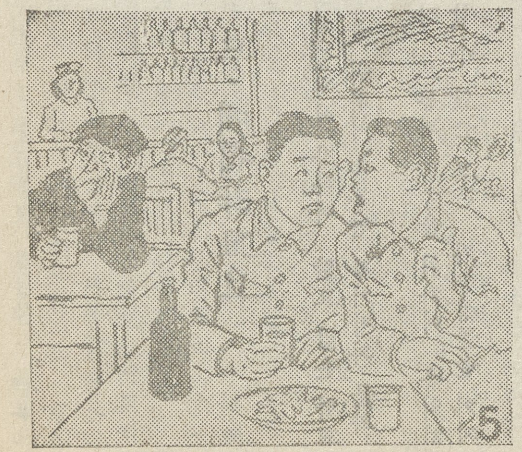
× ×

책을 펴 놓을 때는 하품을 하지 말며 침이 튀게 하지 말라。 또 재채기가 나드라도 머리를 돌려 책에 침이 튀지 말게 하며 표식을 한다고 하여 손톱으로 금을 긋지 말라。

책을 벼개 벼지 말며 책으로 그릇을 덮지 말라。 책을 함부로 헤쳐 놓치 말며 자주 먼지를 털어서 좀벌레가 먹지 않도록 시시로 일광에 포쇄를 하여야 한다。 남의 서적을 빌려볼 때 거기에 잘못 쓴데가 있으면 정하게 고쳐 주며 종이가 찢어졌거나 책을 꿰맨 끈이 풀려졌을 때에는 이를 말숙하게 보철하여서 돌려 주어야 한다。

(연암·박 지원)





자유로운 로동의 길보다 더 참된 행복에로의 길은 없다

쏘련 영웅 근위 소장 므·메쉐랴꼬브

자기 개인의 행복을 건설하려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체 로동자와 농민들의 행복의 야장공으로 건설자로 되여야 하며 그가 전체를 위한 행복의 야장공으로 된다면 그는 자기 자체의 행복의 야장공으로 될 것이다。

므·이·깔리닌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행복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적 행복이 없이 개인의 행복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많은 젊은 사람들을 격동시키며 열렬한 론쟁과 토론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어떤 청년들은 사람은 그가 지극히 사랑을 받을 때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청년들은 부유한 가운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며、세번째 청년들은 그들이 건강할 때 행복하다고 하며、네번째 청년들은 그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 행복하다는 등등 기타이다。

어떤 청년들은 우리 생활의 행복과 쏘베트 정권에 의하여 그에게 이루어진 모든 복리를 특별한 자연의 선물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청년 남녀들은 탄생된 첫 날부터 자본주의 및 식민지 나라 청년들이 다만 상상 밖에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름다운 산아원들에서 탄생되며 충분한 설비를 갖춘 유치원들에서 자라며 밝고 넓은 학교들에서 배우고 있다。 그들을 위하여 훌륭한 경기장과 문화 궁전들이 건설되고 있다。

쏘베트 청년들은 창조적 로동과 조국을 위하여 유익하며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럴 것인가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더 큰 것에 대하여 념원하고 있으며 더욱 훌륭한 생활을 이룰 것이다。

실로 행복한 사람들인 동무들은 동무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적 및 정신적 수요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동무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심장에는 그들이 지난 날에 걸어온 투쟁과 승리의 길을 더듬어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 흐를 것이다。 바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공산당의 지도 밑에 세계 최초의 자유로운 국가를 건설했고 단기간 내에 낡은 도시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새 도시들을 건설하였는바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지 않는가! 그들이 웅장한 공장을 건설했고 우리 조국을 고도로 발전된 기계 제조의 능력을 가진 강유력한 공업국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또한 바로 그들이 오랫 동안 묵은 처녀지의 완고한 지층을 개간할 수 있는 강철 같은 말에

안장을 메웠었다。 그들이야 말로 아름다운 볼가와 쎄비리의 큰 강들을 사람에게 복종케 했던 것이다。 동무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직접 자기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복리를 자연의 선물로서 간주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없을 것이다。

동무들 중에는 누구도 자본주의적 노예 제도가 무엇인지、누구도 실업의 무서움과 공장주 헌병 지주에 의한 사람의 천대를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 우리 나라에서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넘어온 그 때로부터 벌써 三八년이 경과했다。 그 동안 많은 새 세대가 자라 났지만 동무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굶주린 사람들을 한 쪼각의 빵 때문에 지나치게 천대 받는 로동에로 때로는 범죄에로 몰아 넣은 실업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로운 생활과 행복을 심각하고도 예리하게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 그들의 손과 그들의 피로써 쟁취되였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지도 밑에 우리 인민들이 쟁취한 위대한 력사적 승리들은 모든 인민들의 운명에서와 세계 력사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나타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우리 당을 세계 혁명 운동의 첫 돌격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모든 나라의 근로자들은 우리 쏘베트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우리 심장을 당연한 기쁨으로 충만시키지 않으랴! 여기에서 어찌 우리들이 참된 위대한 행복을 느끼지 않으랴!

주위를 살펴 보라! 우리 나라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들끓으며 쏘베트 사람들이 설정된 목적을 향하여 어떻게 확신성 있게 나아가는 가를。 남쪽 국경으로부터 북쪽 변강까지 심지어는 북극에 있는 빙상 관측소에 이르기까지、깔리닌그라드로부터 꾸릴쓰크 렬도까지—어데서나 우리들은 창발적인 창조적 사업을 보게 된다。 나라의 모든 부는 보통 사람들의 수중에 있다。 우리의 심장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들이 울려 나오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넓은 땅 주인공 답게
사람마다 활개 치누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며 로동하며 새롭고 진보적인 길을 개척하는 것—여기에 전체 우리 쏘베트 사람들의 커다란 행복이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동무들이 그리고 있는 행복 그것은 전체 쏘베트 인민과 모든 진보적 인류의 행복인 것이다。 우리는 다른 한편 매개 사람들의 개체 행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하며 그 행복을 어떻게 획득하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며 또 그 개념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여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무엇 보다도 우선 인간의 행복이 사회 생활과 동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 사회를 떠나서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자연 속에는 그러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 쏘베트 작가 아·엔·똘쓰또이는 땅에서 뽑아지여 모래바다에 내 던져진 식물이 살수 없는 것처럼 사회를 떠나서는 개인의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썼다。 이 말속에는 심오한 의미가 포함되여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때나 행복을 옳게 리해한 것이 아니였다。 맑스 이전 시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의 감정을 일반적으로 반영한 다시 말해서 현실적 생활과 동떨어진 인간의 감정을 반영한 그런 내용을 가진 행복의 개념을 생각해 내려고 하였다。 그 일례로 고대 희랍의 철학가이며 유물론 자인 데모크리트는 행복이란 것은 정신적 균형 속에 성격、륜리、정신의 안락한 쾌감 속에、진정한 기쁨 속에 이루어진다고 간주하였다。 데모크리트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준비된 형태의 행복을 얻는다고 한다。 고대의 가장 저명한 사상가 아리스토텔리는 행복을 리성적인 행동 방식과 자선적인 생활에서 보았다。 행복이란

자기 자체를 충족시키는 종국적 목적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종교의 설교자들은 자기 주인과 지배 계급들에게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행복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일체 행복은 신(神)이 가지고 있으며 최대 행복은 죽은 후 그 세계에서 사람의 마음이 신과 신비하게 결합되는 데 있다고 설교하였다(바로 지금도 역시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 행복의 개념에 대한 이 모든 정의와 또는 기타 많은 정의들의 반동적 본질과 계급적 국한성에 대해서는 구태여 론증할 필요도 없다。 그것들은 모두가 한가지 문제에 귀결된다。 즉 사람들의 행복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의 선물이거나 신에 의한 선물이며 또는 지상에서는 행복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우기 부르죠아 리론가들은 이 보다 더 뒤떨어진 리론을 내놓고 있다。 그들은 행복이란 것이 다만 금전과 황금에만 있다고 뻔뻔 스럽게 말하면서 종전의 행복에 대한 모든 종교적 및 관념론적 개념들을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부터 떼여 버렸다。 돈을 가지는 자는 행복도 가진다。 돈과 행복은 그것들의 개념상으로 보아 친 형제이다。 한푼의 돈을 버는 사람은 보잘 것 없는 존재이며 一년에 수십만원을 받는 사람은 다만 수만원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수백만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된다。 돈은 모든 "안락"의 기본 토대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돈의 소지자는 행복자인 것이다。 성실 하거나 또는 불성실하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돈을 획득하는 것——그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은 바로 이러하다。

아·쯔·뿌쉬낀은 "인색한 무사(武士)"라는 비극에서 돈의 권력에 대하여 훌륭하게 이야기 했다。

——나에게 무엇이 복종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나는 어떤 악마와 같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오직 원할 것은—궁전들이 일어서고,
호화로운 나의 정원들에
이쁜 아가씨들 떼를 지어 재빨리 뫼여 들고
무즈(시신)들은 자기의 공물을 나에게 가져 올 것이며,
자유로운 천재가 나에게 예속될 것이니,
자선과 밤을 모르는 로동이
나의 상을 공순히 기다릴 것이다。
내가 휘파람 불면,
피투성이가 된 악한이 온순하고 얼뜨게
나에게 기여 들어와
나의 손을 핥을 것이며
그리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나의 의지의 표식을 엿볼 것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순종될 것이다…

그러나 뿌쉬낀의 탐욕스럽고 가혹한, 그리고 인색한 무사는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신화적 리익을 획득하고 있는 어떤 현대적 모르간, 로끄펠레르 또는 멜론과 비교하면 단순히 어린애에 불과하다。

네가 다른 사람을 략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략탈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하여 일하게 되며 네가 노예 소유자가 아닐 때엔 네가 노예로 되는 원칙을 기초로 한 낡은 사회—그러한 사회에서는 참된 인간적 행복은 대단히 적다。 다른 자본가를 기만했거나 또는 파멸시킨 자본가는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간주하며 파업을 진압시켰을 때에 행복하다고 하며 전쟁 시기에 수백만 인민들의 피의 댓가로서 돈을 벌었을 때도 역시 행복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매개 협잡군, 살인자, 배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자기의 보잘 것 없는 비렬한 목적을 달성할 때

어떤 감정이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을 인간적 행복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행복에 대한 멸시일 것이다。 음주 방탕하는 부자놈들의 정권하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보통 사람들은 노예제의 모든 공포들을 체험한다。 그들이 어떠한 돈에 대해서, 어떠한 복리에 대해서 공상할 수 있는가?

부르죠아지들은 금전에서 가장 고상한 행복을 보고 있으나 자기 로동력에 대해서 보잘 것 없는 임금을 받는 근로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혁명 부대가 착취자들과의 투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물론이다。 한때 칼 맑스의 딸은 그가 행복을 어떻게 리해하고 있는가를 그에게 물었다。 맑스는 간단한 의미 깊은 말로써— "투쟁"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들은 압박과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자기의 모든 력량을 이바지한 칼 맑스의 생활이야 말로 아름답고 행복스러웠다고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다。

동무들이 자연 법칙에 의하여 늙은 몸으로 될 때 동무들의 마음은 젊은 대로 남을 것이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동무들이 쟁취한 것이 동무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인민의 해방을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 력량과 모든 재능을 이바지한 사람들의 이름은 불멸하다。 수많은 해가 지나 갔으나 우리는 라지쉐브, 一二월 당원들, 위대한 로씨야 혁명가—민주주의 자들의 거대하고도 명백한 생활을 민족적 긍지감을 가지고 회상한다。 그들은 인민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 없이 사회적 활동이 없이는 자기 생활과 자기 행복을 상상하지 않았다。

느·그·체르니쉡쓰끼는 다음과 같이 썼다——만약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나의 관찰계에서 또는 행동 범위에서 공통적인 리익을 목표로 하는 사상과 자극을 제외한다면 즉 공민적 모찌브들을 제외한다면 내가 관찰할 것은 무엇이 남겠는가?

어디에 관심을 돌리게 되겠는가? 자기의 호주머니와 자기의 배나 또는 오락에 대한 개인적인 협소한 근심을 가진 개별적 개성들의 까다로운 혼잡만이 남을 뿐이다——。

청년들 중의 그 누가 혁명의 열렬한 무사 에프·예·드제르쥔쓰끼의 영웅적인 생활을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드제르쥔쓰끼는 자기의 행복을 짜리즘과의 투쟁에서와 당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보았고 그는 이 투쟁과 떨어져서는 자기 생활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완전하고도 풍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할 때면 항상 우리들은 사회주의 사상과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거나 또는 투쟁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향한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과의 통일은 생활 법칙으로 되였다。 때문에 참된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며 전체 인민들과 함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참가하면서 자기 개인의 행복을 느낀다。 느·오쓰뜨롭쓰끼, 쁘·빅또브, 아·마레씨예브 및 기타 많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은 그 모범으로 될 수 있다。 쁘·빠블렌꼬의 장편 소설『행복』에서 쏘베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제마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를 회상하여 보라。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해방된 로동의 기쁨과 적에 대한 승리의 기쁨을 느꼈으며 난관과의 투쟁에서 자기 력량을 단련 축적하였고 참으로 행복하였다。

우리 조국에서의 생활의 나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성과들을 가져다 주고 있다。 즉 새로운 공장, 학교, 및 료양소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운하들이 굴설되며 새로운 발전소가 조업을 개시했고 수많은 량의 강철과 주철들이 용해되며 새로운 마크의 기계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승리든지 긴장된 로동이 없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다。 우리의 길에는 적지 않은 난관들이 부닥치고 있다。 — 우리들이 투쟁하고 있는 위업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과 정력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러나 난관과의 투쟁에서 쏘베트 사람이 승리자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 그것이 과연 행복이 아니겠는가! 처녀지에서 첫 이주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초원의 어려운 조건에서 살면서 주택과 식량 문제에서 곤난을 체험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한 해가 지나 갔다。이리하여 젊은 정열가들의 손에 의하여 아름답고 잘 정비된 마을과 학교들이 건설되였고 정원과 소 공원들이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무인 지경이였던 이 초원들에서 풍족한 첫 수확이 걷우어졌다。 자기 로동의 열매를 보며 이러한 열매들로써 쾌락을 느끼며 조국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 그것이 과연 행복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람들의 행복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희망이 래일을 향하여 달리는 데 있다。 오늘 어떻게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래일은 더욱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고귀한 목적이 앞에 있다는 인식은 우리의 모든 길을 행복한 길로 만들고 있다。

모든 시대의 선진적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창조와 건설에서 찾았다— 바로 이 창조적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정신적 부를 백방으로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창조를 위하여 얼마나 넓은 범위를 제공하고 있는가! 참말로 우리 나라에서는 매개 직업이 지혜와 기질 및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거대한 가능성을 주고 있다。 창조적으로 로동하며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들이며 용감하게 행동하며 새로운 길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그것이 어찌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자。 나는 쑤워로브 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의 로동은 나에게 적지 않은 힘과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즉 진정한 친절성 사랑 관심 및 엄격한 대책을 나의 피 교양자—쑤워로베쯔들에게 많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로동의 열매가 보이고 수백명의 어린 눈동자들이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나를 쳐다볼 때에는 참으로 기쁜 감정을 느낀다。

쓰딸린상 계관자인 고속도 선반공 빠벨 븨꼬브는 『행복에로의 길』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자유로운 로동의 길보다 더 참된 행복에로의 길은 없다〃라는 아•엠 고리끼의 현명한 말을 회상시키고 있다。 빠벨 븨꼬브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매개 쏘베트 사람들의 로동 생활은 이 말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있다。 로동은 우리에게 아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우리 쏘베트 나라에는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재능을 무한정 발휘하며 창조적 열성을 내며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여 있다〃

쏘베트 청년 남녀들은 자기 인민과 자기 조국의 복리를 위한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로동 속에서 거대한 만족과 진실한 기쁨을 찾고 있다。 젊은 열정가들은 제때에 드네쁘르 수력 발전소와 마그니뜨까 용광로들을 건설했다。 지금 꾸이븨쉐브、쓰딸린 그라드、까호브까 및 기타 씨비리의 큰 강들에서 크나큰 발전소를 건설하며 처녀지를 개간하며 옥수수를 재배하는 젊은 애국자들은 자기의 영예를 떨치고 있다。

꾸이븨쉐브 수력 발전소 젊은 건설자인 전기 용접공 왈렌찐 깜쓰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쏘베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로동—그것은 생활이며 그것은 평화를 위한 투쟁이다……전기 용접공으로서의 나의 길은 깜쓰크 수력 발전소에서 시작되였다。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내가 거대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二五세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나의 생애에서 두번째 큰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발전소들이 얼마나 많이 건설될 것인가!—

물론 행복은 지식、세계의 인식 과정、자기 시야의 확대 및

자연 비밀에 대한 인식에 있다。 위대한 레닌이 청년들에게 인류가 이루어 놓은 모든 풍부한 지식으로써 자기의 의식을 풍부하게 함으로써만이 공산주의 자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리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쏘베트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즉 그들에게는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구비되여 있다。 그리고 사람은 그가 자기의 지식을 사회와 공동적인 인민적 사업에 이바지할 때 二중적 행복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예술 작품들에서 커다란 쾌락을 느끼고 있다。 음악회와、극장、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훌륭한 모든 것을 예민하고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자체가 진실한 미적 감정으로 교양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우선 고전 작가들과 쏘베트 전문가들의 작품을 알며 미술 전람회들을 찾아가며 라디오를 통하여 에쓰뜨라다 뿐만 아니라 교향악 꼰체르트와 오뻬라를 들으며 훌륭한 모든 문학 작품들을 통독해야 한다。

사람은 거대하고도 순결한 사랑이 없이、어린애들이 있고 배려와 기쁨이 흐르는 화목한 가정이 없이 생활의 충족을 느낄 수 없다。 사랑은 쏘베트 사람들을 풍부하게 하며 그들을 더욱 생기 발랄하고 로동력이 많은 사람으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가정을 가진 사람의 생활은 더욱 풍부하고 더욱 완전하다。 따라서 더욱 행복하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직 자기의 창조적 사업에서 불안을 느끼면서 가정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쓸데 없이 자기 생활을 빈한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안해에 대한 열렬한 사랑、화목한 가정、건강한 아이들은 쏘베트 공민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생활에서 사람을 방조한다。

브•아쟈예브는 장편 소설『모쓰크바를 멀리 떨어져서』에서 기사 베릿제의 입을 통하여 쏘베트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우리들은 사랑할 줄 안다!우리들은 다만 사랑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우리들은 그것에 의하여 산들을 변화시키고 있다!우리들은 그것에 의해서 더 강해지며 더 훌륭해지기도 하며 더 깨끗해 지기도 한다!〃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행복은 바로 이러하다。

물론 매개 청년 남녀들이 튼튼한 건강 상태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므•이•깔리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만일 우리의 학교가 매해 료양소에서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무던 신경과 상한 위를 가진 사람들을 졸업시키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생활에서의 행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서야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건전한 교대자인—건전한 남성들과 건전한 녀성들을 준비시켜야 한다〃우리 나라 에서는 매개 젊은 사람들이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자라나야만 한다。 즉 경기장、운동장、수영장、자원적 체육 협회、각종 체육부와 크루쇼크들이 그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육체적 단련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四五세쯤 되면 늙겠다든가 빨리 늙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끄•예•워로쉴로브는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때로는 행복을 잘못 생각하고 행복이 우연한 것이라고 불리워지는 데 대해서 잘 관찰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생활에는 여러가지 행복하거나 또는 불행한 우연성들이 많다。

례를 들어서 사냥군들이 똑 같은 시간에 똑 같은 장소로 나갔다。

그러나「운」이 좋다고 불리워지는 어떤 사냥군에게는 토끼들이 총 밑으로 면바로 기여 오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냥군

에게는 쇠약해진 조그마한 토끼도 보이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일이 한번 또는 두번 생긴다면 『삐뜨로브에게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들 한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형편이 해마다 반복될 때에는 『정말 삐뜨로브는 그야 말로 행복하며 그에게는 행복한 훠르뚜나 (희랍 신화에서의 행복한 녀신)가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어떠한 신비적인 훠르뚜나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니며 머저리 같은 토끼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지식、숙련、경험에 있다。 매개 일의 성공은 우연한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재능、그의 지혜、수완、로동 애호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렇게 참된 사람들의 진실한 행복은 나의 견해에 의하면 생활의 풍부성에 대한 주관적 감각이며 정신적 및 육체적 힘의 조화이다。 이 감정들은 객관적 사회적 조건、사람들의 문화 수준、그들의 물질적 및 정신적 요구、사회적 리상들에 의하여 생긴다。 행복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부단한 발전에서 또는 사람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요구들의 장성과 관련시켜서 관찰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물질적 및 정신적 요구들은 똑 같지 않다。 따라서 생활의 풍부성에 대한 감각도 똑 같지 않으며 행복에 대한 느낌도 같지 않다。

쏘베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평화와 진보를 위해서와 자기 인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생활의 풍부성은 많은 측면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정치적 자유、인민의 독립、창조적 사회적 로동에 대한 능력、조국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적 재능、훌륭한 건강 상태와 복리、육체적 힘、로동과 투쟁에서의 인내성、화목한 가정 생활、아동들의 건강、학습과 로동에서의 그들의 성공 및 기타들이다。 다만 조국과 가정과 동무들、그리고 로동하는 사람들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거대한 인간의 심장만이 또는 인류의 진보를 가로 막는 적과 평화의 적들을 그야말로 증오할 수 있는 심장만이 생활의 모든 풍부성과 인간 행복의 풍부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이란 집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의 말이나 또는 한마디의 문구로써는 규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제공한 정의들에 의하여 본다면 복리、사랑、건강 상태 등과 같은 일부 요소들이 아직 쏘베트 사람에게서 완전한 행복의 감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에 있어서 만일 례를 들어 사랑에 빠지거나、또는 배가 부르거나、또는 건강한 사람이 다만 자기 개인의 만복과 자기 개인의 쾌락 및 개인의 성공으로써 만족하게 된다면 또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될 대신 사회의 적들과 싸우기를 그만 둔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일 것인가。 아니다。 이러한 행복은 쏘베트 사람의 행복인 것이 아니라 속물의 행복일 것이다。 자본가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소 시민의 심리를 가지며 다만 자기 개인의 향락에 대해서만 돌보며 그것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또한 그것을 자기 개인의 행복이라고 부르는 때에 유리하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잘 것 없는 돈냥으로써 만족하게 생각하며 자기 개인의 향락을 자기 계급 및 자기 인민의 향락과 분리시키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추악한 목적을 위하여 용이하게 집결시킬 수 있다。 헌병、형사、날조자、배신자、파업 파괴자들의 부대들이 어떠한 사람들로써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라。 그들은 다만 개인의 리익에로 지향하며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였으며 리기주의적이며 자기 탐욕에 대해서 떨며 자기 인민들과의 련계를 잃은 사람들로써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그 앞잡이들이 자기 인민의 팔굼치를 감독하며 그의 심장이 고동침을 느끼는 사람 또는 자기 인민과 함께 행복에 대하여 환상하며 그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을 살려고 해보라! 누구도 이러한 사람들을 세계의 어떠한 보물로서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때나 자기 인민과 계급과 당을 배반하

지 않는다。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

로동자도、꼴호즈원도、인테리겐차도—쏘베트 사람들의 개인의 행복은 전 인민적 리익에 대립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도리여 전 인민적 행복의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 매개 공민의 행복은 우리 조국의 행복 여하에 달려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 사람들은 『우리 조국을 행복스럽게 만들자、그러면 우리들 매개 사람들도 행복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쏘베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한다。 바로 그 세계는 전 인류를 위한 가장 행복한 시기일 것이다。

잡지 『젊은 공산주의자』 一九五五년 八호에서

김 경 식 역

개의 천당
근로 인민의 지옥

미국의 반동적인 신문 『뉴욕 선구론 단보』는 홍에 겨운 열렬한 갈채속에서 『미국개들의 현재 생활은 지난날보다 썩 더 좋아졌다』고 보도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자본가들은 매년 一억 七천 五백만 딸라를 소비하여 개에게 특별히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있으며 그들은 一九五一년에 五백만 딸라로서 개자리 털탄자와 개털 깎는 가위、개놀음감을 샀다。 단지·이럴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이미 전국에다 개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후견회』를 성립하였다。

미국의 갈포니야 지방은 물산이 매우 풍부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농민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 농민의 어린이들은 배를 곯고 학교로 다니는데 여위여 누런 가죽 밖에 없으며 제정신도 없다。 어떤 어린이들은 정말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시간 도중에 손을 들고는 『선생님 나는 배 고파요』하며 말한다。 선생도 역시 방법이 없으므로 『너이들이 가서 물을 한 컵 마셔라』할 밖엔 더 좋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 물을 한 번 마시면 억지로서 반시간은 참겠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요한은 미국의 한 실업 로동자이다。 그는 매일 거리에서 거리를 돌아 다니며 일자리를 얻으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었다。

하루는 병원에서 사람의 피를 산다는 것을 알고 『나의 피를 그들에게 판다면 그 돈으로써 능히 먹을 것을 사리라』고 생각하여 병원 문 앞으로 다가·가니 벌써 피 팔러온 사람들은 줄을 지어 가득 서 있었다。 요한은 줄의 마지막 끝에 서서 자기의 차례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피만 팔게 되면 나에게는 곧 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먹을 것을 사겠지』하며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가 그의 신체를 검사한 끝에 그더러 『네게는 병이 있으므로 너의 피를 안 쓰겠다。 냉큼 돌아가라』고 호통치는 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요한은 굶주린 배를 걷어 안고 괴로워 하며 돌아갔다。 미국에는 요한과 같은 실업 로동자들이 五백만도 넘는다。

☆ ☆ ☆

민청원의 정직성과 진실성

송 정 우

정직성과 진실성—이것은 사회주의 도덕의 불가결의 훌륭한 품성이다. 정직한 사람이란 결국 사업에서의 원칙을 위하여 투쟁하며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정당한 길을 찾으며 정의와 대치되는 그 어떤 사소한 일과도 융화하지 않는 적극적 투사를 말하는 것이다.

진실성과 정직성은 사업에서 원칙적이고 적극적일 것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리론과 실천, 언어와 행동의 통일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호상 신임과 존경에 기초한 우리 사회에서는 허위와 위선이 존재할 수 없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원칙적 립장에서 주위 세계를 판단하며 자기가 사고한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며 자기가 말한 그대로 행동하며 약속하고 결의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 그의 행동은 항상 그의 의지에 일치한다. 진실한 사람은 자기 신념에 충실하며 정직하고 량심적이며 리론과 실천의 통일로서 타의 모범이 되며 언어와 행동의 일치로서 특징적이다.

부르죠아 도덕은 근로 대중에게 하나의 「선행」—순종과 소극성, 혁명적 투쟁의 거부를 요구한다.

부르죠아 도덕과는 반대로 사회주의 도덕은 자본주의와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애국자의 고상한 품성인 정직성과 진실성으로 교양된 우리 나라의 남녀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혁명의 리익과 그 승리를 위한 투쟁에 헌신 복무하여 왔으며 또 복무하고 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과 조국 앞에서 진실하고 량심적이며, 사회주의적 의식 밑에 리론과 실천, 언어와 행동의 통일을 기하는 원칙적인 젊은 애국자로서 부정의와 제국주의적 전쟁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조국을 수호하는 三년 간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목숨을 바치여 헌신 투쟁하였다.

오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투쟁에 있어서도 민청원들은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창조적 로동에서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관료주의와 국가 사회 재산에 대한 탐오, 랑비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정직성과 진실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 가운데서는 아직 사회주의적 도덕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동하며 생활하는 부정적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례를 들면 집단과 조직의 리익에 배반되는 개인 리기주의적 립장을 취하며 위선과 기만으로써 자기를 음폐하면서 자기 과오

를 비판 시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는 국가 결정과 집단의 결정을 실천하는 데서 소극적인 태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자기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덕적 비행을 폭로 비판하여 그것을 시정시켜 줄 대신에 그것을 음폐하여 주며 그와 융화 타협하는 데서도 표현된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탐오, 랑비에 대한 자백 운동에서 일부 청년들은 자기의 탐오, 랑비 행위를 음폐하거나 혹은 일부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며 다른 방면으로 일부 청년들은 자기 친우의 탐오, 랑비 행위를 알면서도 「내 일이 아니다」는 생각 밑에 그것을 폭로하지 않는 례가 있다. 일부 청년들은 친우의 과오와 결점을 폭로 비판하는 것이 마치 우정과 동지애가 아닌 것 같이 오해하고 「남을 괴롭히지 말자」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과연 참된 우정과 동지애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것은 허위이며 가짜 「우정」이다. 참된 우정과 동지애는 언제나 진실성과 정직성, 그리고 원칙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진실로 동지를 사랑하며 집단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지의 과오와 결점을 비판하고 시정해주는 그런 원칙성이 있는 사람이다.

청년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말과 결정만 앞서고 실천적 행동이 그와 동반되지 않는 데서도 표현되며 또는 원칙성, 진실성과 정직성, 겸손성과 기타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들은 다만 기업소와 협동 조합, 기관과 학교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사생활과 가정, 거리와 기타 공중 시설과 장소들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의를 싸고 돌며 비도덕적 행위를 감행하는 데서도 표현된다. 사생활에 있어서도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인도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여야 한다. 새로운 인간을 위하여 열렬히 투쟁한 유명한 쏘련의 시인 마야꼽쓰끼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공산주의는
농토에서
공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뿐이 아니라
집안의 책상 옆에서도
가정에서도
생활에서도 필요하다

공화국 청년들의 대다수는 사회주의적 도덕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직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불건전하고 비도덕적 행위들과 타협하지 않는 사실들에서 증명된다.

음주 방탕하고 로동을 기피하며, 로동 규률을 위반하고 군중 도덕을 파괴하며 생활에 무관심하고 탐욕적이며, 생활에서 불건전하고 자기의 가정적 의무에 대해서 경솔하게 대하며 이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하고 허위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민청 단체는 그것을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청년들을 당과 인민과 민청 조직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진실성과 정직성의 교양은 민청 단체에서의 도덕 교양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엠·이·깔리닌은 교원이 학생들에게 교양하여야 할 중요한 품성들 중에서 정직성을 지적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정직성을 배워 줄 것이다. 나의 의견에 의하면 교원은 반드시 가능한 모든 교양 방법을 다하여 점차적으로 이것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교원들의 중요 과업으로 될 뿐만 아니라 민청 단체에서 청년들을 교양하는 중요 과업으로 된다.

교양 과정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할 것을 청년들에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온갖 위선과 허위 및 량면성을 반대하

여 대담하게 투쟁하도록 그들을 관습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객관적 진리 탐구에 청년들이 열중하며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서 투쟁하며 언제나 리론과 실천、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생활하며 사업하도록 그들에게 강한 요구를 제기할 것이며 이와 상치되는 온갖 행동은 자본주의적 잔재의 특징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올레그 끄쉐보이의 어머니인 예・엔・끄쉐바야는 자기의 「아들의 이야기」에서 미래의 「청년 근위대」대장의 대담한 성격이 어린 때부터 어떻게 형성되였는가,하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나는 올레그가 진실하고도 정직하게끔 되게 하며 진리와 허위에 의식적으로 대하게끔 노력하였다。 나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군하였다。「너의 잘못은 언제나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은 어느 때도 용서할 수 없다」 어린 때부터 올레그는 모든 일에서 진실하였다。 그리하여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 원쑤와의 준엄한 투쟁이 닥쳐 왔을 때 그는 적은 일에서도 우리를 기만하지 않았으며 또 큰 일에서도 모든 동무들을 기만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적 잔재를 청산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비판과 자기 비판은 유력한 무기로 된다。 민청 단체는 청년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비판과 자기 비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폭로 비판하여야 한다。 원칙적 비판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업의 정체와 락후가 조성되며 자본주의적 잔재가 소생한다。 매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부정의에 대해서 언제 어데서나 무자비하게 대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하여 락후하고 해독적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쇄하고 근절하는데 용감하여야 한다。

속 담

☆ **싸고 싼 사향(麝香)도 냄새 난다.**
재덕(才德)이 탁월한 인물은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알아 주고야 만다는 말, 또는 비밀히 하려고 드는 일일 수록 더 잘 폭로된다는 말.

☆ **덩덕궁이 소출 (所出).**
있을 때는 막 쓰고 없을 때는 쫄쫄 굶는 생활을 말함.

☆ **자룡이 헌창 쓰듯 한다.**
물건을 조금도 아낌 없이 함부로 쓰는 데 대하여 하는 말.

☆ **누워서 떡 먹으면 콩 고물이 눈에 들어간다.**
편안하기로만 위주 하면 도리여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

☆ **증한 에미네 아이 핑게 하듯.**
일을 하기 싫으니까 아이에게 젖 먹일 핑게를 한다는 뜻이니 무슨 피만 살살 피우는 사람을 이르는 말.

☆ **미친체 하고 떡판에 엎드러 진다.**
사리를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고 슬그머니 자기 리익을 취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새우로 잉어를 낚는다.**
내 조그만 것을 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큰 것을 얻어 낸다는 말.

☆ **선가(船價)없는 놈이 배에 먼저 오른다.**
실력 없는 자가 있는자 보다 더 뽐내는 꼴을 웃는 말.

우리 조국의 력사 (제二회)

—근세 및 현대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원사 력사학 박사 박 시 형

四、一九一〇년—一九一八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하의 조선

일본 제국주의의 『총독』 통치의 개시、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의 조선 인민의 생활 형편의 악화

一九一〇년 八월에 우리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일본 강도배들은 조선에 대하여 식민지 통치를 감행하였다。 조선의 통치자로 등장한 『총독』의 밑에는 지방의 산간 벽촌에 이르기까지에 수많은 일본 관리들과 경찰、군대들이 배치되여 조선 인민을 억압하며 지배하였다。 식민지 통치의 시초에 벌써 일본 제국주의 자들은 二개 사단 이상의 륙군과 二만 三천명의 헌병、二〇만명의 헌병 보조원과 영흥、진해만 등에 집결된 해군 등 무장의 그물로써 조선을 덮었고 수십개의 감옥으로써 조선 인민의 손과 발을 얽어매여 놓았다。

조선 인민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일제는 조선의 어느 계층도 정권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충실한 자기의 주구들로 『중추원』이라는 총독의 자문 기관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실권을 가지지 못한 것이였고 다만 주구 역할만 담당한 것이였다。

일본 제국주의 자들은 조선 인민을 『렬등한 민족』으로 취급하며 혹독한 민족적 차별과 멸시로서 대하였다。『첫 총독』이던 데라우찌는 공공연하게 『조선 사람은 우리의 법에 복종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선포하였으며 그대로 탄압과 학살을 감행하였다。

조선 인민에게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까지 박탈되였다。 一九一九년까지 조선에는 중세기적 태형이 존재하였고、일본 헌병、경찰은 마음대로 인민들을 처벌할 수 있는 즉결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 인민들은 재판도 없이 맞아 죽었다。

이러한 일제의 야만적 통치를 폭로하여 레닌 선생은 조선에서의 일제의 통치는 미증유의 야만적 탄압과 아세아적 고문에 최신식 기술을 가미한 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일본 강도배들은 이러한 야수적 『총독』 통치를 감행하

면서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군사 기지로 건설하며 조선의 재산과 부원들을 략탈하기에 광분하였다.

이미 조선 강점 과정에서 략탈하기 시작한 토지를 본격적으로 략탈하며 토지에 대한 전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八백여만 정보의 토지와 림야를 직접 략탈하였으며 막대한 면적의 『군용지』『철도용지』를 떼 내였다. 한편 일본 략탈자들은 소작료、조세와 고리대、부역 등으로써 착취하였으며 농산물은 헐값으로 략탈하였다.

일제는 이미 로、일 전쟁 시기부터 시설 장악한 조선의 철도、도로、교량、항구를 확장 정비하며 시장을 시설하며 화폐를 정리하며 도량형을 통일하는 구실 밑에 직접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의 억압 착취의 기초를 닦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산업을 완전히 독점하고 점차 자본을 투자하며 부원을 채굴 채취하였는바 그것은 제一차 세계 대전 시기와 그 후에 급속히 확장되였다.

일제 통치 하에서 조선 인민은 빈궁、공포、죽음、문화적 암흑의 무서운 구렁에 빠져 있었다.

일제는 二중、三중으로 조선 농민을 착취하기 위하여 조선 농촌에서 봉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착취와 봉건적 착취를 배합시켜 높은 리윤을 짜내였다.

일제 통치 하에서 로동자、농민、수공업자、소상인들의 생활은 날로 악화되였다. 한편 조선의 지주들은 일제에 의하여 기생충적 착취 생활을 보장 받았고、일제의 충실한 주구 노릇을 하였으며 일제의 비호 하에서 자란 대부르죠아지는 처음부터 정치、경제적으로 일제에게 예속되여 그의 충실한 주구 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일제 통치 하 조선에서는 일제와 조선의 지주、예속 자본가、친일파、민족 반역자를 한편으로 하고 광범한 조선 인민들 로동자、농민、중、소 상공업자들을 다른 편으로 하여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이 서로 엉켜 있었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였다. 이 모순은 인민의 민족적、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폭발시켰다.

一九一〇년—一九一八년 반일 민족 해방 투쟁

토지를 빼앗기고 수확의 五〇—八〇%의 소작료와 수십종의 세금、강제 로동 등 날로 증대되는 억압과 략탈에 견딜 수 없는 농민들은 일제 통치와 지주의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섰다.

이 당시 농민들의 투쟁은 일본 통치배들이 발표한 숫자에 의하여도 二만여건에 달하였다. 농민은 소작료와 조세의 납부를 거부하며 지주와 일본 관리들을 습격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투쟁은 분산적이고 소 규모적이였으며 조직성을 가지지 못하였는바 이는 아직 혁명적 로동 계급의 지도가 없었기 때문이였다.

자라나기 시작한 로동자들은 과중한 로동과 견딜 수 없는 생활과 일제 기업주의 비 인간적 대우、혹독한 처벌과 벌금 등에 분개하여 일제와 기업주 및 감독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첫 시기의 투쟁은 개별적 반항이나 기계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였고 다음에는 단결하여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점차 장성하였는바 비교적 큰 파업 투쟁으로서 一九一五년에 九건 (八二八명 참가)이 있었다면 一九一八년에는 五〇건 (四、四四二명 참가)에 달하였다.

그러나 로동 계급은 당시 혁명적 단체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혁명적 리론으로 무장되여 있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자、농민의 대중적 반일 반 봉건적 진출은 점차 장성하며 날로 혁명화하여 갔다.

한편 一九세기 말부터 계속 전개되여 온 농민들을 주로

한 인민들의 반일 의병 투쟁은 일제의 야수적 『토벌』에 의하여 그 규모가 적어지고 주로 산간 지대에서 전개되였지만 애국적 인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가 하에서 계속 전개되였다.

그러나 일제 통치가 강화되고 기타 조건으로 말미암아 반일 의병 투쟁은 一九一五년까지 여러 산악 지대에서 전개되고 그 후로는 압록강、두만강 연안 지대에서 전개되였는바 이를 독립군 운동이라고 불렀다. 이 운동은 그것이 애국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에 타격을 주는 것이였으나 조직적으로나 정치、사상적으로 락후한 형편에 있어 거대한 력량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一九세기 말부터 전개되여온 애국적 인테리들의 사상 계몽 운동도 계속 전개되였다. 특히 두만강、압록강、대안 지대에서 학교의 설립、신문、잡지의 발간、대중 계몽 사업들이 광범히 전개되였는바 이 운동은 반일 독립군 운동과도 련계를 가지였으며 인민들을 반일 투쟁에 고무 추동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

이와 같이 인민 대중의 민족적、계급적 각성이 점차 높아갔으며 그리하여 인민들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은 점차 장성 발전하였다.

五、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승리와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새 시기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의 앙양

一〇월혁명의영향하에서의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三·一운동

一九一七년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이 승리하였다. 一〇월 혁명에 의하여 지구의 六분지 一의 지역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압박과 착취를 근절하는 프로레타리아 주권이 수립되고 인류 력사의 새 기원이 시작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一〇월 혁명 전까지에 있어서 민족 해방 투쟁은 모든 압박과 착취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과 련결되여 있지 못하였다. 一〇월 혁명은 처음으로 민족 해방 투쟁을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분으로 되게 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서방과 예속적 동방과를 밀접히 련결시켜 새로운 세계적 반제국주의 전선을 결성하여 놓았다.



一〇월 혁명을 계기로 하여 동방 식민지 예속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의 후비군으로부터 혁명적 프로레타리아의 후비군으로 그의 동맹자로 전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나라들의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 하에서 수행되는 식민지 혁명의 새 시대에 들어 서게 되였다.

이러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一〇월 혁명의 승리, 민족적 압박의 철폐와 모든 민족의 자유 평등을 선포한 쏘베트 주권의 정책은 동방 피압박 민족들을 무한히 고무 추동하였다. 실로 一〇월 혁명은 오랫 동안 졸고 있던 동방 피압박 민족 인민들을 깨우쳐 그들을 제국주의와의 투쟁에로 끌어 들인 세계 최초의 혁명이였다. 一〇월 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제국주의 자들이 식민지 예속국가들을 평온 무사하게 착취하고 압박하던 시대는 끝났다.

一〇월 혁명의 영향 하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야, 토이기, 아프카니스탄, 그리고 우리 조선 등 동방의 여러 피압박 인민들은 자유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궐기하였다.

一〇월 혁명의 승리, 제국주의 무력 간섭자들과 반혁명 백파 도당을 반대한 쏘베트 인민의 투쟁에 고무된 조선 인민은 一九一九년 三월 一일을 기하여 대중적 반일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 군대와 일본인들은 물러가라!』『조선 독립 정부를 세우자!』『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 자유 평등 만세!』『조선 독립 만세!』등의 기치 밑에 서울, 평양, 남포, 선천, 의주, 원산 등지를 위시하여 전국 중요 도시들에서 인민들은 반일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는바 이는 료원의 불길처럼 곧 전국 방방 곡곡에 파급되였다.

인민들은 손에 낫, 호미, 괭이, 몽둥이, 식칼, 도끼, 돌맹이 등을 잡고 헌병대, 경찰서, 면 사무소, 군청 등을 습격 소탕하였으며 일본놈과 매국노, 악질 지주, 헌병 보조원 등 친일과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였다. 인민들의 폭동에 의하여 일제 통치는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인민들의 반일 폭동은 혹독한 일제의 탄압과 학살 속에서도 三개월간 계속되였으며 二백여만명의 인민들이 이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 투쟁은 일부 해외 지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특히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쏘련의 존재는 조선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 추동하였다. 일제는 대중적 학살로서 조선 인민의 독립 운동을 말살하려 하였다. 일제가 축소하여 그 일부만 발표한데 의하여도 二만 四천명의 사상자, 五만 三천명의 피검자를 낸 것이였다.

三·一 운동은 농민을 주로 하고 점차 장성하는 로동자들과 기타 학생, 도시 소시민 등이 참가한 전 인민적 반제, 반봉건적 민족 해방 민주 운동이였으나 혁명의 적인 일제와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승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一 운동은 우리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력사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졌다. 즉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은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놈들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하였으며 동시에 허위적 민족 자결의 구호를 들고 팽창 정책을 감행하는 미 제국주의 자들의 반동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조선 인민은 자기의 해방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나라는 오직 쏘련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으며 이때에 이미 조선의 선진 분자들은 해방의 길이 쏘련의 뒤를 따르며 쏘련과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정치적으로 각성하여 맑스-레닌주의를 투쟁의 지침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사회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도록 자기의 해방 운동을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三·一운동을 계기로 하여 一〇월 혁명이 열어 놓은『민족 해방 투쟁의 새 시대』에 실질적으로 들어 섰다.

로동 계급의 장성, 로동운동과 농민 운동의 장성

제一차 세계 대전 행정에서 상품 시장을 확장하고 중국을 략탈함으로서 급격히 팽창한 일본 독점 자본은 전후 특히 식민지에서 최고 리윤을 짜내기에 발광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독점 자본의 진출과 조선에서의 착취의 강화로 일제는 소위 문화 정치의 간판 밑에 식민지 산업과 상업을 확장시켰다. 이는 조선 경제의 예속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선에서 로동 계급의 량적 장성을 촉진하였다. 一九一〇년에 八천명에 불과하던 공장 로동자의 수효가 一九二八년에는 一一三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량적 장성과 一〇월 혁명의 영향 하에 로동 계급은 계급으로 형성되면서 민족 해방 투쟁의 선두에 나섰다. 성과 있게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낀 로동자들은 一九二〇년 四월 一一일에 서울에서 첫 로동자 단체『로동 공제회』를 조직하였다. 각종 로동자들이 망라된『로동 공제회』의 조직은 곧 전국 주요 도시 一六개소에 확대되였고 빈농민과의 련계도 가지였다.

一〇월 혁명의 승리의 결과에 우리 나라에 전파되여 민족 해방 투쟁의 전략 전술의 기초로 된 맑스-레닌주의는 처음에 연구 소조들에서 연구되였고 다음에는 대중 운동의 령역에 진출하여 그에 조직성과 목적 지향성을 주었다. 그리하여 一九二四년에 로농 총 동맹(一九二七년 로동 총 동맹, 농민 총 동맹으로 분리)이 조직되였고 전국적 청년, 녀성 단체들이 결성되였다. 대중 운동의 조직화 과정에서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 농민의 소작쟁의, 학생 청년들의 반제 투쟁이 장성하였다.



로동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一九二五년 四월 一七일에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였는바 이는 민족 해방의 급속한 발전에 추동력을 주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혁명적이며 볼쉐위크적인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당내 소 부르죠아 인테리의 동요, 종파, 간첩 분자들의 암해, 일제의 탄압 등에 의하여 一九二八년에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그러나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은 계속 앙양되였다. 一九二八년 원산 총 파업을 비롯하여 부산 고무 공장 및 방직 공장 파업, 평양 고무 공장 파업, 신흥 탄광 로동자들의 폭동 등 일제의 발표에 의하여도 一九二九-三〇년의 두해 동안에 二六二건의 파업에 二七, 二六五명의 로동자가 참가한 파업 폭동이

전개되였다。

이와 동시에 만명이 참가한 단천 농민 폭동을 비롯하여 어대진 농민 폭동、전북 농민 폭동 등 농민의 소작쟁의와 반일 폭동들이 계속하여 각처에서 전개되였다。 청년 학생들의 반제 투쟁도 계속 앙양되였다。 이 시기 운동의 특성은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이 밀접히 결부된 것이며 운동이 대중적 형태를 띤 것이였다。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에 겁을 집어 먹은 일제는 『치안 유지법』과 같은 팟쇼적 법령을 조작 적용하며 경찰과 스파이망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문화 정치』의 허위성과 간교성을 자체로 폭로하면서 맑스—레닌주의 기치 하의 로동 운동을 주로 하는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탄압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계급적 리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자 지주 예속 자본가와 그의 대변인인 부르죠아 민족 개량주의 자들은 조선의 로농 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더욱 로골적으로 협조해 나섰다。

이러한 일제와 그 주구들의 공개적 탄압과 종파 간첩 분자들의 파괴 암해 공작에 의하여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은 막대한 희생을 당하였으나 그것은 일제의 팟쇼적 탄압에 대답하여 적극적 무장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즉 一九三〇년대에 들어서며 김 일성 원수를 위시하여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의 선두에서 가장 애국적이며 헌신적으로 투쟁한 견실한 공산주의 자들에 의하여 조선 인민의 항일 무장 투쟁이 조직 전개되였다。

과거를 연구하시요

어린이들、당신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에 존재하는 것을 잘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당신들은 과거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과거에 관한 지식을 회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현재를 보다 훌륭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당신들이 바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서는 안될 그 곧은 길을 뵈여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당신들에게 현재 처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참답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당신들이 四〇—四五년전의 생활로부터 얼마나 훨씬 전진하였는가를 뵈여 줍니다。

(므·고리끼)



랭수마찰

랭수 마찰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집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춘、하、추、동 사시를 통하여 특수한 시설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물에 의한 신체 단련법이다。

랭수 마찰을 매일 계속하여 정확히 실시한다면 피부와 정신의 저항력이 높아지고 신체가 잘 발달될 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가 심한 불량한 기후 조건하에서도 아무 고통 없이 지낼 수 있게 되며 감기와 폐염 등에도 자주 걸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랭수 마찰법은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단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 사업 및 기타 단련법과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물은 열을 포함하는 량이 공기 및 기타 물질보다 크며 열을 전도하는 힘이 아주 크므로 신체 표면에 공기가 접촉한 때보다 물이 접촉한 때에 피부의 온도 감각은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기 온도가 二〇도 이상인 때에도 강물이나 호수물에 들어가면 찬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이러한 때문이다。 피부에 물이 작용하면 피부의 신경과 혈관들은 적극적으로 단련되며 체온 조절도 그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나 그의 정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인간 개체의 반응성에도 각각 차이가 있다。 때문에 랭수 마찰을 할 때에는 자기의 건강 상태와 년령에 따라서 조직해야 하며 계절과 시간과 물의 온도와 실시한 후의 처치들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물의 온도는 二〇도 이하를 랭수라고 하며、二〇—二八도를 약간 찬 물이라고 하며、二八—三五도를 약간 더운 물、三八—四五도를 더운 물이라고 한다。

랭수 마찰은 처음에 약간 찬물로 하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랭수 마찰에 습관된 다음에도 섭씨 一五도 이하의 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랭수 마찰은 봄、혹은 여름부터 시작하여 겨울까지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아침 기상 후 약간의 체조를 한 다음에 즉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시간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택하며 신선한 공기가 잘 들어오는 실내에서 하되 쓸데 없이 마찰 시간을 연장하지 말고 보통 五분 정도로 하며 길어도 一〇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랭수 마찰법은 랭수를 수건에 적시여서 목、가슴、팔、다리의 순서로 씻고 즉시 마른 수건으로 수분을 닦은 다음 계속하여 마른 수건으로 전신을 골고루 마찰한다。 이렇게 되면 전신의 피부는 붉어지고 온기가 생긴다。 랭수 마찰이 끝나면 그 계절에 알맞는 의복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또한 마찰을 한 후에는 잠시간 안정을 취하였다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랭수 마찰은 식사한 직후에나 신체가 극히 피로한 때에 하여서는 안되며 미열이 있다든가 전신에 이상한 불화감이 있을 때에는 금하여야 한다。

랭수 마찰은 아동기에서부터 청년기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특히 발육기의 청년들에게는 그의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만약 소모성 질환에 걸렸다든가 현재 병중에 있을 때에는 랭수 마찰을 해서는 안되지만은 다만 몸이 약하다는 리유만으로써 랭수 마찰을 기피할 필요는 없으며 도리여 적당하게 함으로서 허약한 체질이 강해질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기후 조건으로 보아 봄、여름、가을의 랭수 마찰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으나 령하 一〇도—二〇도나 되는 겨울에는 실내 기온이 一八도 정도 보장되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만약 실내 기온이 一五도 이하—一〇도 정도되는 장소에서 전신을 라체로 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우며 체온을 과도하게 잃어 버림으로서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랭수 마찰에 습관되고 단련된 때에도 전신에 과도하게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섭씨 一五도 이상되는 물을 사용할 것이다。

랭수 마찰을 실시하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랭수 마찰을 했어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해서 중지하거나 무리한 정도로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몸에 지장을 줄 것이 아니라 우선 점차적으로 순서 있게 가장 작은 자극으로부터 점점 강한 자극을 가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근기 있게 실시해야 한다。

평양 의학 대학 위생학 강좌장

배 영 기

술어해설

집단주의

집단주의란 사람들의 공통성, 동지적 협력, 련대 책임 및 개인의 리익을 사회적 리익에 의식적으로 복종시킴을 기초로한 사회적 리익에 대한 사람들의 충실성을 말한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집단주의 사상과 원칙의 보지자로 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집단주의는 사유 재산을 기초로 한 부르죠아 개인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 당하고 대 기계 공업과 련결되여 있는바 그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 집단주의적 특성이 이루어졌다. 자본주의적 착취를 반대하는 해방 투쟁은 프로레타리아들을 조직하고 결속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프로레타리아적 련대성, 조직성, 집단주의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위력한 힘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리해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의식이 로동운동에 침투됨으로서 프로레타리아 집단주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며 수백만의 프로레타리아와 피 착취 근로자들은 자기의 해방 투쟁을 위하여 맑스주의 당의 지도 밑에 결속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가진 무정부적 부르죠아 개인주의를 폭로하였고 집단주의의 과학적 론거를 주었다。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은 전체 근로 대중이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충족될 수 없으며 개인의 해방은 대중이 해방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맑스—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개인은 집단 속에서만이 자기의 재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집단 속에서만이 가능하다。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면서 맑스주의 당은 로동자들의 계급적 의식을 발전시키며 그루빠와 쩨흐의 리익을 프로레타리아 계급 투쟁의 근본적 리익에 복종시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모든 사회 생활 분야에서의 집단주의 원칙의 승리를 의미한다。『생생하고 창조적인 사회주의는 바로 그 인민 대중들의 의식이다』。(브·이·레닌) 용서할 수 없는 적대적 계급들로 나누어진 이전 사회들과는 달리 사회주의는 착취 계급들의 전복과 착취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동지적 협력과 사회주의적 호상 원조의 관계를 기초로한 실로 인간적인 공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즉 도시와 농촌 간의 모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모순, 민족적 적의등과 같은 그러한 장해물들의 소멸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고 서로 보충하며 풍부케 한다。 사회주의의 사회는 개인의 리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고한 담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로력자들의 집단적, 창조적 로력은 사회주의적 경제, 국가 제도, 과학 및 문화적 륭성의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제도 하에서의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은 그 사람이 사회적 리익에 대하여 더 많이 관심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가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더 훌륭하게 일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욱 충분하고 훌륭하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는 사상과 행동의 원칙으로서 온갖 종파와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리익을 파괴하는데로 인도하는 온갖 협소한 태도를 비난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의 정신으로, 사회적 리익에 대한 충직성의 정신으로 개인의 리익을 사회적 리익에 옳게 적응시키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개인주의적 잔재들과 투쟁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세계관

세계관이란 사람들이 주위 세계 또는 우주 전체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 또는 견해의 체계를 말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바 계급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기들의 생활 조건을 반영하여 언제나 계급적이다。 즉 사람들의 세계관은 착취—지배 계급들의 세계관과 피착취—피지배 계급들의 세계관으로 나누어진다。 착취 계급들의 세계관은 곧 관념론적 세계관이고 피착취 계급들에 고유한 세계관은 곧 유물론적 세계관이다。 육체 로동에는 종사하지 않고 정신 로동에만 종사하는 착취자들은 피착취 대중을 자기네에게 온순하게 복종시키려는 계급적 욕망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신이 우주의 기본이고 물질은 정신에 의하여 창조되였고 그에 종속되는 것이라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견해 즉 세계관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철학이다。 피착취 계급과 착취 계급과의 투쟁을 반영하여 철학에서도 유물론 철학과 관념론 철학이 대립 투쟁한다。 피착취 계급의 세계관이며 철학인 유물론 철학만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물질이 우주의 기본이라는 것, 물질의 선차성과 의식(정신)의 후차성을 주장한다。 유물론적 세계관은 맑스주의 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에 이르러 완성되였다。

생산 수단

인간이 생활을 위하여 물자를 생산하는데는 크게 나누어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두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의 로동력 이외에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생산 수단에 속한다。 생산 수단은 로동 대상과 로동 수단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로동 대상이란 그것에 로동을 가하여 생산물 또는 제품으로 전화시키는 대상물 즉 원료, 재료, 광물, 기타 지하 자원, 삼림, 물 속에 있는 어군 등을 말한다。 로동 수단이란 기계, 도구, 설비, 철도, 선박, 자동차, 비행기 등 수송 수단, 전신, 전화, 라디오와 같은 통신 수단(이상을 생산 도구라고 부른다)과 토지, 공장, 건물, 창고, 자금 등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수단들을 말한다。 로동력과 그리고 로동 수단의 일부인 생산 도구의 두가지가 합쳐서 생산력을 구성한다。

산 로동과 체화 로동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내며 교통, 운수, 체신, 상업, 교육, 의료, 사무 등 사업에 종사하는 활동은 모두 다 로동 또는 로력이다。 로동의 결과로서 생산된 생산물을 물체화된 로동 즉 체화 로동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바로 생산물을 생산하는 활동 자체, 교통, 운수, 상업, 의료, 사무 등 사업에 종사하는 활동 자체 즉 로동력의 소비 행정 자체를 산 로동이라고 말한다。 경제 절약은 결국 산 로동과 체화 로동의 절약에 귀착한다。 즉 한편 생산된 생산물 원료, 자재 등등을 랑비하지 않고 될 수 있는대로 합리적,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로동력을 랑비하지 않는 것, 동일한 일을 하는데 로동력 소비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동일한 로동력의 소비로써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생산품을 생산하게끔 하는 것이 경제 절약의 목표로 된다。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

생산 수단이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로 되여 있는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생산의 목적은 자본가들의 리윤 추구에 있으며 이 목적은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로써 실현된다。 로동자들을 착취하는

방법으로써 잉여 가치, 즉 임금을 지불하는 이상으로 생산되는 가치를 생산하여 자본가들의 리윤을 장성시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 수단이 전 인민적 또는 사회적 소유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의 목적은 생산 수단의 주인인 전체 인민 또는 집단(협동 단체)의 모든 성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는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여 있기 때문에 생산 관계와 생산력 간에 불상용적 모순이 없으며 따라서 생산력은 기술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부단히 그리고 급속히 장성한다. 사회주의적 경제는 생산력의 부단한 장성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그때 그때의 조건 하에서 최대 한도로 충족시킬 수 있다. 이리하여 『높은 기술의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고 개선하는 방법으로써 전체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요구의 최대한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쓰딸린) 이것이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다. 이 기본 경제 법칙으로부터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이 흘러나온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고 전체 사회의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를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하는 국영 경제와 도시 농촌의 협동 경리들에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과 도 기

노예 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계급 사회는 모두 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기초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봉건적 생산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봉건 사회의 태내에서 발생 장성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부르죠아지는 봉건 지배 계급을 타도하고 자기 손에 주권을 장악하였을 때, 이미 성숙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지배적 지위를 완성하는 것만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모든 계급 사회에서의 생산 관계와는 전연 달리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와 사적 소유와는 전연 불상용적, 적대적이다. 그러니만큼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 사회주의적 경제―이러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태내에서는 전연 혹은 거의 발생할 수 없다. 국가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부르죠아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혁명으로써 부르죠아지의 주권을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장악한 연후에야 비로소 사적 소유,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철폐하고 사회적 소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창설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적 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창설하며 사회주의적 경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전복된 계급들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는 장기간의 간고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그것이 완전히 승리하는 때까지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 또는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인민 독재가 수립되는 때로부터 사회주의의 건설이 승리하는 때까지가 과도기, 즉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이다. 과도기는 일반적으로 로동 계급의 주권 또는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주권이 수립되는 그때로부터 시작된다.

개인 영웅주의

커다란 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영용한 행동 또는 활동은 사람들의 영웅성 또는 영웅주의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 영웅주의가 단지 개인의 명예와 출세를 위하여 발휘될 때 그것은 개인 영웅주의라고 불리워진다. 오늘날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의식으로 교양 받고 있

는 사람들이 계급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 전체 인민과 국가의 리익을 위하여 영웅성을 발휘할 때 그것은 대중적 영웅주의라고 한다. 오늘날 개인 영웅주의는 낡은 자본주의적 의식 또 생활 태도의 잔재이다. 개인주의적 의식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이름을 날리며 공훈을 세워 보려고 하는 우쭐거리는 태도는 소 영웅주의라고 부르는바 이것은 조그만한 개인 영웅주의란 말이다. 대중적 영웅주의가 애국주의,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의 표현으로서 사회 발전을 위하여 극히 긍정적 역할을 논다면 개인 영웅주의는 부정적 해독적 역할을 논다.

집체적 지도

집체적 지도는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으로서 상부가 하부를 지도하며 당 단체들이 대중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 지도자의 판단, 지식, 의지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다수 사람들의 협의에 의하여 종합된 집체적 의견, 지혜, 의지에 의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단독으로서는 지도의 정확성, 현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개인의 지식과 지혜는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집체적 협의로써 다수의 의견 또는 지혜를 종합함으로서만 정당하고 현명한 지도를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은 지도 사업에서의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행정적 지도 사업에서는 사업의 성질상 유일 관리제가 원칙으로 되여 있으나 유일 관리제 책임자도 반드시 집체적 협의 대중의 의지와 지혜에 의거함으로서만 현명한 지도를 보장할 수 있다.

로농 동맹

자본주의 하에서 인민 대중을 구성하는 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도시 소시민, 인테리겐챠 등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 계급인 로동 계급은 수효상으로 보아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 계급이다. 따라서 혁명의 령도자로서의 로동 계급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서 단독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때문에 그는 혁명 투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리해 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농민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피착취 대중과 동맹하여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이 호상 지지하며 단결하여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 력량을 로 농 동맹이라고 한다. 로동 계급에는 많은 동맹군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것은 농민이다. 그것은 그들의 리해 관계에 공통성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에 일제와 봉건 지주 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 계급은 농민들과 동맹하여 싸웠고 오늘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반제 반봉건 혁명 투쟁에서 또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로농 동맹은 혁명의 기본 력량으로 되여 있다. 로 농 동맹의 주위에는 과거에나 오늘에나 광범한 도시 소시민, 근로 인테리들, 량심적 민족 부르죠아지들―일체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이 집결되여 로동당의 지도 하에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

정 정

『청년 생활』 九호 "우리 조국의 력사" 五七폐지 하단 「一八九四년―一八九五년 로일 전쟁과 一九一〇년 일제의 조선 강점」을 「一九〇四년―一九〇五년 로일 전쟁과 一九一〇년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 정정합니다

젊은 남녀간의 우정과 애정에 대하여

—두 청년 편집자의 대화에서—

기 구

갑: 근래 편집부는 적지 않은 청년들로부터 남녀 간의 우정과 애정 문제에 관하여 많은 편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제기된 문제를 해명해 주는 글을 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을: 그러면 어디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좀 들려주십시요。

갑: 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경향으로서 일부 사람들은 남녀 간에는 우정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젊은 남녀가 조금 접근한다거나 함께 이야기를 하기만 하여도 곧 편애를 하고 있느니 옳지 않은 남녀 관계를 맺고 있느니 하고 인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 젊은 녀성 동무의 이야기 인데 그는 도시에서 자라난지라 활동적이고 놀기를 좋아 하여 남자 친구들도 비교적 많은데 이것을 본 다른 동지들이 그를 보고 친구를 함부로 사귀고 품행이 좋지 못하다고 나쁜 여론을 돌렸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녀성 동무는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생각다 못해 이제는 아무하고도 교제를 말 것이며 남자들을 만나도 엄숙하게 대하면서 혼자서 사업하고 공부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젊은 남녀 간에는 우정이 있을 수 없나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을: 나는 그러한 여론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에는 우정이 있을 수 없다는 사상은 곧 『남녀 七세 부동석』이라는 그 봉건 사상이지요。

새 사회에서 젊은 남녀들이 조국을 보위 및 건설하는 공동의 투쟁 과정에서 맺어진 그러한 친밀한 우정은 지극히 자연적인 감정이라 할 것입니다。 당신도 『청년 근위대』를 읽었겠지요? 그 책 가운데서는 젊은 남녀들이 얼마나 깊은 우정으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창생들인데 독일 침략군이 크라스노돈을 강점하게 되자 함께 『청년 근위대』를 조직하여 독일 파씨스트들을 반대 투쟁하였습니다。 녀성들인 울랴、 류봅까、 왈랴、 니나、 끄라와 그리고 남성들인 올레그、 쎄료쟈、 와냐…… 그들은 함께 투쟁하고 사업하였으며 친근한 우정으로 맺어졌지요、 그들은 지하 투쟁을 진행하면서 항상 같이 나가서 구호를 쓰고 삐라를 붙이였

으며 적들이 들어 있는 건물 우에다 국기를 게양하였습니다。 그들 호상간의 친밀한 우정은 적들과의 간고한 투쟁 과정에서 거대한 력량을 발휘하여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젊은 남녀들도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국을 위하여 일치 단결되고 우정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남녀 간에 맺어지는 이러한 우정은 조국 건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남녀들 간에는 우정의 기초 우에서 애정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청년 근위대』가운데서 일부 남녀들 간에 애정이 싹텄는데 그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실이지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애인은 언제나 벗들 가운데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며 또 오직 우정의 기초 우에서의 진정한 호상 리해가 있어야만 진정한 애정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애정만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것입니다。

갑: 우리 청년들 간에는 이 밖에 또 한 가지 사상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성과 접촉하거나 함께 이야기를 하고 우정 관계를 맺어서는 안되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 묶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일하는 녀성 동무가 자기의 사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조를 받기 위하여 나이가 많은 기혼 남자와 몇번 만나 이야기를 하였더니 고만 물의가 분분해졌답니다。 또한 기혼 녀성 로동자 동무 하나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늘 어느 한 기혼 남성 로동자를 찾아가 같이 문제를 연구하였더니 이것이 옳지 않은 행위로 인정되였다 합니다。

을: 이 두 젊은이들과 이미 결혼한 이성 간의 접촉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업과 학습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남녀간에 호상 원조하는 고상한 우정이 필요한 만큼 물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은 호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에서 제기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발전하기 위하여 래왕하였습니다。 그래 이러한 동지들 호상간의 원조가 사업에 대단히 리로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호상 관계를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동지들 간에서의 이러한 우애와 단결을 제창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 그렇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과의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을: 일정한 한도라고요? 만약 그것이 그들은 우정 관계만 맺을 수 있지 그것을 애정 관계로까지 발전시킴으로써 남의 부부 관계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면 그러한 한도는 물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는지 『모쓰크바를 멀리 떠려져서』에 나오는 제냐란 인물을? 그는 대단히 활발하고 고상한 처녀입니다。

이 경리 일꾼은 청년 기사 아렉쎄이를 퍽 따랐습니다。 그래서 만나자 마자 곧 내놓고 친구가 되여 달라고 말하였지요。 후에 제냐는 아렉쎄이를 사랑하게 되였으나 자기의 처 지나에 대한 그의 진실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그의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며 자신을 억제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렉쎄이가 고민에 싸여 있을 때에도 순결한 동지적 감정으로써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그 후 마침내 아렉쎄이는 자기

처가 죽었다는 것이 잘못 전해진 것임을 알고 모쓰크바를 향해 떠나게 되였는데 이 때 제냐는 그를 떠나보내면서 자기가 그를 사랑한 것은 잘못이였다는 것을 스스로 비판하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쏘베트 청년들이 풍부한 도덕적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쏘베트 청년의 이 도덕적 자제력은 곧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회 관계의 요구에 의해서 산생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또 본론으로 돌아왔는데 애인이 있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오직 우정 관계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겠지만 이와 동시에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정당한 교제를 금지하거나 또는 구체적 정형을 살펴봄이 없이 그들이 이성하고 접촉하는 것만 보고 곧 그들이 품행이 좋지 못하다고 비판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갑: 편지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남녀간의 우정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우정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을: 사실이 명백하게 뵈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국가 건설 상의 필요에서 말하나 청년들 자신의 리익에서 말하나 젊은 남녀간의 우정은 높이 제창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 청년 단원들은 젊은 남녀간의 우정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데로부터 남성 단원이 녀성 단원을 가맹시키지 못하고 남성 초급 단체 위원이 녀성 단원과 담화하지 못하며 또는 남녀 초급 단체 위원들끼리 좀 더 접근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단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리론적으로 해명되여야 겠습니다.

갑: 그러면 당신이 리론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요.

을: 내 생각 같아서는 현재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하고 있는 만큼 로동은 이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임무입니다. 따라서 녀성들로 하여금 가정을 떠나 사회에 나가서 남성들과 함께 로동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의 로동 능력을 길러 주고 단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녀성들은 농촌에서、공장、학교에서、기관에 이르는 모든 일터에서 그것이 녀성들의 체력에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사회주의를 형성하는 집단적 생활입니다. 이 집단적 생활은 사회주의 건설의 필요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므로 그것은 자신의 생활 양식과 사업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이거나 공장이거나 농촌이거나를 막론하고 젊은 남녀간의 접촉을 끊어 놓고서는 이 집단을 산만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보시요. 만약『청년 근위대』의 그 남 동무들이 녀 동무들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사상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원쑤를 반대 투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왈랴라는 녀성 련락원은 갖지 못하였을 것이며 크라스노돈과 워로시로브그라드 간을 왕래한 류롭까란 용감한 통신원을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젊은 남녀간의 우정은 곧 사업을 크게 방조하는 것이며 집체적 생활 및 사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서 그것은 집단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더욱 훌륭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매개 젊은 남녀들이 호상 존중하고 호상 방조하며 혁명적 우정으로 맺어져 다같이 창조적 로동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갑: 여기 있는 이 한 묶음의 편지들 가운데서는 다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우에서 말한 문제들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남녀들 간에 친밀한 우정이 맺어졌다가 그것이 애정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비도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 이성하고 비교적 접촉을 많이 하거나 또는 함께 어떠한 문제、사상、사업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정이 점점 두터워졌었는데 그 후 우정에 기초해서 그것이 애정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여 사이가 멀어졌으며 곧 이어 다른 이성과 교제하게 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를 비도덕적이고 품행이 나쁘며 부르죠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을: 그것은 물론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쏘련의 작품들 가운데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여야 한다는 말을 늘 듣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즉, 혼인과 련애는 우리 생활에서의 대사이므로 일시적 감정에 사로잡혀 경솔히 행동한 결과에 결합될 토대가 약한 경우에는 왕왕 불행하게 되거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있어 우정이 애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잘 고려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청년들에게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하며 그들과 친한 이성 동무와 련애결혼 하여야 한다고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그가 만약 우정이 애정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는 다른 대상과 우정 관계를 맺는 것도 허용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설사 남녀간에 애정이 있고 심지어는 동거 생활까지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상상으로 커다란 원칙적 대립이 있어서 억지로 살아 나가도 조금도 리로운 것이 없는 경우에도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비도덕적이 아니며 반대로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사회에 리로운 것입니다.

쏘련 소설『용감』에 나오는 안드레이와 지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안드레이는 조국 건설에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 있으며 고상한 리상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처 지나는 부화 방탕하고 허영심이 많으며 물질욕이 강한 녀자였기 때문에 도처에서 교태를 부리고 돌아다녀 결국은 건설장에서 삼각 관계의 사랑 싸움을 일으킴으로써 남의 내외간의 불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안드레이는 재삼 권고하였으나 조금도 고치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고통을 참으면서 그의 곁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그래 안드레이의 이 행동이 옳지 않단 말입니까? 또한『청년 근위대』의 올례그도 이와 마찬가지 태도로 자기 애정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올례그는 학교 시절에 레나와 퍽 사이가 좋았으나 일단 레나가 독일 파쑈스트에게 교태를 부리는 것을 보자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레나를 버렸습니다. 쏘베트 청년들은 조국을 사랑하며 인민을 사랑하는 원칙적 립장에서 자기 감정을 처리합니다.

갑: 자 이야기가 이만큼 되였으니 이제는 결론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을: 좋습니다. 이상의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남녀 七세 부동석』이란 봉건적 관념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국가 건설 사업에서 거대한 력량을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는 젊은 남녀간에 혁명적 우정을 맺을 것을 적극적

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여 남녀 관계가 정상화하고 광범한 사교적 활동이 보장되여야만 청년들을 도와 성 문제를 옳게 인식 처리케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대상을 랭정히 그리고 진지하게 선택하여 훌륭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애인을 버리고 결혼 및 련애 문제에 있어서 부화 방탕하거나 기만 희롱하는 것을 반대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청년들에게서 사랑의 대상을 자유로히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으며 중대한 원칙적 대립이 있든 없든 덮어놓고 한 사람하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에서 든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봉건적 도덕관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습관과 사회 사상의 개변은 언제나 물질적 생산에서의 변혁보다 뒤 떨어지는 법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봉건 계급이 방금 타도 되였을 뿐 아직도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날 남녀 관계와 결혼 및 가정 문제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봉건 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는 원인이 곧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갑: 좌우간 나는 우리 청년들은 봉건 사상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봉건 세력을 용감히 타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렇습니다. 봉건 사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은 그들이 국가의 리익과 자기의 행복을 생각하는 한 그것들을 소탕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들과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남이 하는대로 봉건적 견해를 고수하면서 남녀 관계를 신비화하고 젊은 남녀가 좀 접근하는 것만 보아도 볍석을 대여 남녀간에 비 정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당한 우정과 애정이 자연스럽고도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 청년』 一九五五년 八월호에서

석 화 역

☆ ☆ ☆

대중 과학 지식

낮과 밤

해(태양)는 거의 일정한 방향에서 떠 오르고 그것과 대체로 정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다. 해가 떠오르고 지는 지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의 아홉개의 혹성 중의 하나이다. 이 혹성들은 태양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고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어둡게 보인다. 또한 이 혹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각각 다른 거리에서 원에 근사한 궤도 우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지구도 역시 회전하고 있는바 매초 三〇키로메터의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대략 三六五일에 一회전을 하게 된다. (이런 회전을 공전이라 한다.)

지구는 공전을 하면서 남극과 북극을 통하는 자기 축 주위를 회전한다. (이 운동을 지구의 자전이라 한다.)

그런데 지구의 축은 지구의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는 궤도와 태양을 포함한 평면(이것을 궤도 평면이라고 한다)과 경사되여 있으며 공전할 때 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그림 참조)

태양의 주위를 운행하는 지구의 운동은 이상과 같다.

낮과 밤의 교체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자기 축 주위를 자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의 한 부분은 햇빛을 받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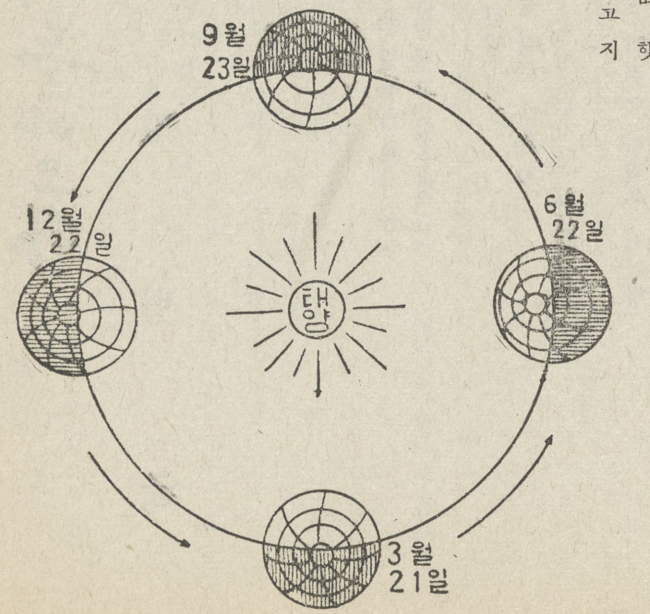
이와 같이 햇빛을 받는 곳이 낮이 되며 햇빛을 받지 못하는 곳이 밤이 된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은 련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낮은 정오를 지나서 밤으로, 밤은 정자(야간의 절반)를 지나서 낮으로 교체되게 된다. 또한 지구의 축이 지구의 궤도 평면과 경사를 이루며 이 축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이루면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이 계절에 따라서 변하게 되므로 여름의 낮은 제일 길며 겨울의 낮은 제일 짧고 추분(九월 二三일)과 춘분(三월 二一일)의 낮의 길이는 서로 같게 된다. (그림 참조)

이와 같이 낮이 길고 짧다는 것은 해가 떠오르고 지는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가 점점 길어지면 해 뜨는 곳과 지는 곳은 점차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이동하여 오고 해가 점점 짧아지면 각각 동쪽과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간다.

김책 공업 대학 물리학 강좌 제공

☆ ☆



(시)

옛 "막간집" 아들 고향에 돌아오다

민 병 균

一

전투도 잘하고 마음도 구수해
습격조원으로、저격수로、특무장으로
전우들의 사랑 받든 농민 출신 전사 한 사람

총을 잡든 손에 호미를 쥐고
배낭을 메든 어깨에 풀짐을 지고
고향 땅 논밭 길을 웃으며 걸어오네

옛날엔 좋은 일 생겨도
말 없이 웃고 만 섰든 고향 젊으니
이제는 남도 잘 웃기는 새 익살쟁이로

은하수 비낀 선전실 마당에
멍석 두자리 깔아 놓고
모기 불 후후 불어 올리면

동네 늙으니 젊으니 처녀들도
불타는 오솔길 비오는 고개 길을 넘어
밤 가는 줄 모르는 전사의 이야기…

二

……전선에도 겨울이 깊어
고지에 흰 눈은 길길이 쌓이고
매운 바람 윙윙 날고 있는데

전사는 나무 한짐 지고
병사로 돌아갈 길도 잊은듯
눈 우에 바우 처럼 앉아만 있었지요

원쑤들이 우굴 거리는 까칠봉 서이령
아아한 적진을 한눈에 노려 보며
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가난한 "막간집" 아들로 태여나
겨울마다 지주의 나무짐을 저날라 주며
등골이 얼어 터지든 소년 시절을—

해방의 종소리 두메에도 울리여
내 땅을 찾아 춤추며 일어서는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웃어보든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행복의 웃음이 물결치는 누런 밀밭에
원쑤의 검은 폭탄이 떨어져 내리며
전선으로 다름쳐 오든 불타는 마을 길들을……

그 다음 포탄과 총탄이 우박치는
가혹한 전투와 주검을 넘어
이제는 필승의 불길을 안은 자기의 가슴을

—그렇다!
원쑤놈들아! 올테면 오너라!
"막간집" 아들도 이 산 우에서 싸운다!

점심 때는 기울어 가고
포성은 멀리 쿵쿵 거리는데
눈 우에 앉아 일어설 줄 모르는 전사……

다만 한 없는 긍지와 자랑으로
원쑤의 진지를 한눈에 내려 보며
가슴에 다시 활활 타오르는 증오의 불……

우리 특무장이 어째서 돌아오지 않는가?
눈길은 깊은데…

소대장은 찾았다네、찾아 냈다네!
고지 남쪽 기슭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싸리 나무짐 하나—

—거 누구야?

그러나 소대장이 찾는 것도 모르고
제 생각에만 잠긴 전사는 문득 일어서며 대답하는 말

—"막간집" 아들입니다!

전사는 이렇게 이름하나 더 얻었다네
전우들이 웃으며 부르는 "막간집 특무장"으로

그 이름 들으며 불리우며
원쑤와 더 용감히 싸운 전사는 훈장 번쩍이며
고향 땅에 돌아 왔다네……

三

전투 처럼 일손도 걸싸고 말마다 익살이 붙어
조합 사람들의 마음 웃음으로 살지우는
제대군인 늙은 총각 고향 전사!

오늘도 말이 길어 밤만 깊었으니
어서들 돌아가라고、래일 일 위하여 편히들 주무시라고!
모기 불 밟아 죽이고 멍석을 걷네

그러면 모두들 웃으며 일어섰네
인사하며、헤여지며、집으로 돌아가며
혼자서、둘이서、셋이서、이야기했네

—봉수는 이야기 만이 아닐세!
그는 익살만이 아닐세!
그는 오늘밤도 눈에 불이 나고 있었네!

우리 땅 위하여 피와 땀 애끼지 않는
고향 전사들의 붉은 념원 조합 땅 깊이 심으세
고향 전사들의 웃음 조합 벌에 높이 가꾸세!

한설야 작

「대동강」(三부작)에 대하여

양재춘

한설야 작 장편 소설「대동강」은 해방 후 一○년간의 조선 문학의 성과들 가운데서 보람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다。

전부 三부작으로 되여 있는 이 장편의 제一부는 이미 조국 해방 전쟁 시기(一九五二년)에 나왔으며 그후 제二부「해방탑」과 제三부「룡악산」은 전후 시기에 들어와서 발표되였으며 금년에 들어와서 三부를 합친 단행본으로서 출판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독자들 가운데서 사랑을 받으면서 애독되고 있는 작품이다。

三부작「대동강」은 우리 조국의 운명이 가장 위기에 처하였던、따라서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과 곤난한 시기였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원쑤들의 강점 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민주 제도 하에서 교양 받은 조선 로동 계급의 젊은 세대들이 당의 향도적、지도적 역할 밑에 어떻게 민주 수도 평양의 영예를 지키기 위하여 원쑤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인 투쟁—이 투쟁은 곧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였던 것이다—을 전개하였는가를 취급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열렬한 사랑과 긍지로써 우리 조선 인민의 불타는 애국주의와 영웅주의를 힘차게 노래하고 있으며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의 야수성과 부패성을 무자비하게 폭로 규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가가 제시한 작품의 쩨마는 이 작품의 주인공들인 젊은 세대들—점순을 비롯한 문일이、천석이、태선이、신복이、상락이、동수 등을 중심으로한 한 집단과 이와 대치되는 미군 스미스、해리슨 및 그들의 주구인「국군」정훈 장교 정만、기석 등의 적대적 집단과의 투쟁을 통하여 형상화되여 있다。

「대동강」제一부에서 중심에 놓여 있는 사건은 원쑤들의 피묻은 발톱이 우리 조국의 민주 수도 평양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을 때、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고귀한 로동으로써 이룩한 인쇄 공장을 놈들이「평양 일보」란 간판을 붙이고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선전하는 본부로 전환하려는 책동들에 대하여 우리 조국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시도를 매 걸음마다 파탄시켰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의 제二부에 와서는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의 협동 작전에 의한 재 진격에 의하여 미제가 호언 장담하던「크리스마스 공세」가 전 전선에서 수치스러운 파산을 당하는 력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해방을 앞둔 평양에서 작품의 긍정적 주인공들이 지하 당의 조직적 지도 밑에 삐라 산포 투쟁「강제 수용소」의 해방 및 놈들의 기관、교량、도로、파괴의 음모를 제때에 어떻게 솜씨 있게 분쇄하면서 해방을 맞이하는가가 그려져 있다。

제三부「룡악산」에 와서는 해방된 평양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후퇴에서 돌아온 동무들과 함께 다시 자기들의 품

안에 안긴 공장을 소개 복구하기 위하여 원쑤들의 폭격 하에서 어떻게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 복구 과정에서 대렬내에 잠입한 기석이와 같은 파괴 분자들을 어떻게 폭로 적발하였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작품 전체를 일관하여 흐르는 우리 인민들의 애국주의에서 흘러 나오는 불패의 위력을 산 예술적 화폭으로써 뵈여 주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점순의 형상은 특히 우리들의 사랑을 이끄는 매혹적인 형상이다。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점순이가 엠·피들에 붙잡혀 가는 대목(一부)에서 또는 제三부에서 적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점순의 행방이 며칠간 불명할 때 피와 살을 나눈 형제처럼 그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며 불안해 할 것이다。왜 독자들은 이렇게 이 인물에 대하여 같이 기뻐하며 같이 슬퍼하게 되는가?

그것은 인민의 소박한 딸인 점순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기 때문이며 그에게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특성들이 체현되여 있기 때문이다。점순이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도덕적—정신적 품성—그것은 자기의 생의 가치와 의의를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항상 복종시키는 그것이며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때마다 자만 자족할 대신에 새로운 보다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새 과업의 성과적 수행에로 달라 붙는 정지를 모르는 그것이며 항상 어려운 일의 해결을 자기가 거기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서 찾으려는 그의 원칙적인 태도와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원쑤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미움이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된 이 사랑스러운 인민의 딸의 이와 같은 고상한 품성은 그의 전우들로 하여금 자기 력량에 대한 신심과 승리에로 뭉치게 하였으며 처음에는 그릇된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점순이를 자기 개인의 리욕에 리용하려고한 상락이를 나종에 가서는 사형장 앞에서도「대한 민국 만세!」를 부르기를 백번 고개를 저으면서 거부케 한 투사로 단련 육성시키는데 또한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원쑤들에게 잡혀가서 갖은 악형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면서도『어머니!어머니에 대한 원쑤놈들의 죄악은 그놈들이 조선 사람에게 지은 죄악의 몇천 만분의 하나도 안됩니다。우리는 아직 행복한 사람입니다。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심정을 토로한 점순의 이 말에서 우리는 개인의 운명보다 전체의 운명을 념려하는 이 우리 시대의 기둥들의 굳세고도 아름다운 특질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매혹적인 주인공 점순의 성격 발전에 있어서 작가는 그것을 점순이나 그를 둘러싼 공장 로동자들의 그루빠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당과 인민과의 혈연적 련계 밑에서 뵈여 주고 있다。

독자들은 이 작품에서 투쟁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는 당 일꾼들의 형상은 발견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진전됨과 아울러 독자는 점순이 그루빠들의 일련의 투쟁은 물론 동아 직당의 폭파 사건에서의 전공의 활동、이층에서 뛰여 내린 사나이—이들은 후에 점순이들과 공작의 손을 합치는 용범과 시형이였다—녀급으로 공작하는 영관、기타 적 진영에 뿌리를 박고 있는「딱총」및 전화수 등의 활동을 통하여 원쑤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슬기로운 이 투쟁들이 혁명 투쟁에서 참모부인 당의 조직적 령도와 지도 밑에 하나의 통일된 총체적 운동의 련쇄된 고리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대동강」에서 이러한 점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은 극히 긴요한 일이다。왜냐하면 이 소설의 근저에 놓여 있는 사상、실로 작가가 정력적으로 해명하려고 한 중심적 쩨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까닭이다。

이에 대하여 평론가 한 효는「우리 문학의 一○년」(조선 문학 八월호)이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소설의 중심 쩨마는 모든 승리의 조직자로서의 당의 고상한 역할에 관한 쩨마이다。 작가는 우리 현실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인 당의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을 예술적으로 묘사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소설에서 당의 역할은 덕준이라는 한 인물의 역할로써 훌륭히 인격화되였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당 자체는 소설의 전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덕준이를 통하여 당의 역할이 선명하게 들어나 있다。 이 사실은 작가의 창작 방법의 특질과 높은 예술적 수법을 말해 주고 있으며 작품에는 반드시 당 단체를 등장시켜야만 당의 역할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또한 가르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문학에서 이 당적 인간의 형상화에 대한 맑스주의적 미학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략하기로 한다。

다만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승리의 고무자였으며 조직자인 우리 당의 역할이 「대동강」과 같은 작품 속에서 예술적으로 훌륭히 그려졌다는 것과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거둔 또는 거둘 모든 승리는 그것이 어느 것을 막론하고 우리 당의 지도와 투쟁과 결부됨이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우리의 생활상 진리를 더욱 명백히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충성으로써 우리를 교양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다。

적들의 신문사 내에서 신문의 발간을 파탄시키는 공작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종에는 적의 강제 수용소와 지휘부를 습격하는 데로 이르는 점순이를 중심으로 한 공장 로동자들의 투쟁 규모의 확대 과정과 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용범、시형 등의 력량이 이 젊은 세대들과 합류하는 과정은 승리를 쟁취함에 있어서 옳은 력량 배치가 가지는 결정적 의의에 대하여 또 투쟁에서 검열되며 투쟁 속에서 단련되는 매개 인물들의 성장 행정은 당이 그들의 성장에 대하여 얼마나 극진한 당적 배려를 돌리고 있는가에 대하여 또한 말해 주고 있다。

매일 같이 평양 거리에서만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점순이는 그것이 당이 각 분야에 포치한 조직선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느낀다。 이와 같은 점순이의 느낌은 점순이로 하여금 정의의 힘이 매일、매 시간마다 악을 반대하여 싸우는 투쟁에서 이기면서 자기의 승리적 길을 개척한다는 신념을 더 굳게 다지게 하였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의 기대에 보답하며 다른 동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더욱 채찍질하여야 할 것을 주인공들은 마음 속에 다짐하는 것이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인가!

이 소설에서 상락이의 형상—그의 성격적 발전은 특히 생동하며 교훈적이다。 상락이는 그가 로동 계급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상적 의식의 미약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부정적 면을 지닌 인간이였다。 그는 안팎이 같지 않은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쑤들의 강점 하에서 자기의 생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적에게 굴종하여 적의 손에 넘어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점순이까지 끌어들여 자기의 애정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한 비굴한 인간이였다。

그러나 상락은 점순이의 적극적인 고무와 방조 밑에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다시 옳은 길로 들어선다。 그런데 상락이가 적극적인 투사로 변모 발전하게 되는 진정한 동기는 점순이와 손을 잡고 투쟁하면서도 항상 자기가 범한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산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리하여 작가는 해방 전 소설 「황혼」에서 경재라는 소 부르죠아 인테리의 형상을 통

하여 실지 행동과 결부되지 아니한 「량심」이란 한장의 휴지 쪽지만도 못하다고 규탄하였다면 해방후 「대동강」에서는 상락의 형상을 통하여 참회와 반성에서만 머므르는 것이 아니라 실지 투쟁에서 자기의 과거의 흐린점을 씻어가며 새 인간으로 재생 장성하는 하나의 측면을 감동 있게 뵈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락은 원쑤들의 신문을 파괴하는 공작으로부터 삐라 원문의 기안자、그의 제작자、산포자로 원쑤들의 감옥 속에서도 갖은 고문을 이겨내며 총살장으로 끌려 나가면서도 조금도 동요치 않을 뿐더러 최후의 순간에서까지 까딱도 하지 않는 그 굳센 혁명적 절개로 하여 도리여 「딱총」의 구출을 받아 석방된다。

이렇게 상락이는 투쟁에서 단련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후 수용소 인원들을 해방시키는 투쟁에서와 인쇄 공장 복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투사의 한 사람으로서 출현한 것이다。

상락이의 형상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작가가 이 형상을 통하여 로동 계급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락후한 하나의 사회적 타이프가 조국 전쟁 기간에 어떻게 개변 성장되였으며 무슨 힘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정을 밟게 하였는가를 뵈여 주고 있다는 데 있다。

상락이의 형상과 대비하여 볼때 원쑤들의 공장에서 기계 과장으로 일하던 정만이의 형상은 매우 대조적으로 생동하게 그려져 있다。 조국과 인민을 팔면서도 더러운 자기 목숨을 건지고 어떻게 하여서라도 살기 위해서는 남도 찍어 넣어 보고、살려 달라고 애걸도 해 보는 인간 찌꺼기들의 추잡한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춤을 뱉게 되며 정만이의 운명은 이러한 자들의 숙명적인 말로를 힘 있게 확인하고 있다。

점순이 그루빠들 외에 후퇴에서 돌아와 공장 복구에 일떠선 공장 지배인 태민、기타 긍정적 주인공들의 형상화에 있어서도 각각 개성적인 특질을 부여하면서 그들의 고상한 정신 세계를 실지 활동가의 유기적 련계 속에 잘 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제三부 「룡악산」편에서 가장 감명 깊게 느끼게 되는 것은 공장의 복구 투쟁을 통하여 세찬 파도처럼 물결치는 그들의 로동에 대한 산 희열이다。 비록 「대동강」에는 공장을 복구하고 첫 기계가 돌아가는 작업 소리의 개가는 못 본다 하더라도 소설의 마지막에서 점순이가 태민에게 속삭인 말—「인제 마음껏 일하게 됐어요」하는 말 가운데는 이날을 위해 간고한 길을 이겨내여 왔으며 로동과 참된 생활을 사랑하는 조선의 진정한 아들 딸들의 웨침이 자랑 높이 울리고 있다。

소설 「대동강」에는 일련의 긍정적 인물들 외에 부정적 인물들의 형상—례하면 미군 민정 사령관 스미스、해리슨、「국군」 장교、「평양 일보」의 편집국장、기계 과장、동아 식당 주인、파괴 분자 기석 등의 형상에 있어서도 각각 특질들을 뵈여 주고 있다。

이 형상들이 가지는 의의는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 형상들을 통하여 그들의 야수적인 략탈적、강도적 본성을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패한 도덕적 파멸을 남김 없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원쑤들의 이와 같은 죄악은 조국 전쟁 기간 중에 우리가 실지 보고 부닥쳤던 만큼 이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적개심은 이 소설을 읽음과 함께 더욱 고조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작품에서의 원쑤들의 형상을 통하여 진정한 공산주의 도덕의 소유자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미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더욱 투절히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장 복구를 파괴하기 위하여 대렬에 잠입하였던 파괴 분자 기석의 형상의 의의는 특히 오늘날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 원쑤

들의 책동에 대한 우리들의 경각성을 순시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는 현실적 교훈을 주고 있다.

한 설야의 장편「대동강」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이며 우리 세대의 젊은 주인공인 민청원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써 교양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는 우수한 작품이다.

대중 과학 지식

우뢰와 번개

대기 중에는 항상 적은 물 방울 혹은 얼음의 적은 결정체(結晶体)들이 포함되여 있다. 이러한 물 방울(혹은 얼음의 결정체)이 뫼여서 구름이 된다.

구름에는 양전기와 음전기를 띤 두 구름이 있다. 이러한 구름들이 지구 표면에 접근하면 여기서 감응 작용이 일어나서 지표에는 구름과 반대 종류의 전기가 생기게 된다. 그 구름과 지표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에 달하면 여기서 방전 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이 번개이다. 이와 같은 방전 작용 외에 양전기를 띤 구름간에도 방전 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벼락이라고 한다.

번개의 모양은 지자형(之字形)인 것과 구형(球形) 및 주수형(珠數形)과 같은 것이 있으나 보통 지자형인 것이 많다.

지자형인 번개의 길이는 五〇키로메터에 달하는 것도 있는데 그 번쩍거리는 순간은 〇·〇〇一—〇·〇〇二초이다.

번개가 일어날 때의 전류의 세기는 아주 큰 바 쏘련 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一〇만 암뻬아에 달하는 것도 있다.

지자형 번개는 보통 모진 파렬음을 낸다. 이때 나는 소리가 우뢰이다.

우뢰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번개의 전류는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의 공기가 매우 짧은 순간에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된다. 이런 데로부터 공기는 폭발적으로 팽창한다.

이 팽창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이때 모진 소리가 나게 된다.

최근에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번개의 전류가 끊어진 후에 그 곳의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고 주위의 공기가 이곳으로 몰리여 순간적으로 심하게 압축되므로 소리가 난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이 폭발과 압축의 두 과정은 매우 짧은 순간에 함께 일어나면서 복잡한 우뢰 소리를 내게 된다.

우리들이 흔히 볼수 있는 바와 같이 번개의 불빛을 본 다음에도 얼마동안 지나서야 우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번개의 모양은 간혹 둥군 모양으로 나타나는 구형인 것도 있는바 이는 때로는 매우 아름다운 채색으로 또한 어떤 때에는 눈부실 정도의 흰 빛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이 구형인 번개의 본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주수형의 번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김책 공업 대학 물리학 강좌 제공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은 농업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면 토양의 비옥도를 보다 더 제고할 수 있으며 그를 오랫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로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또한 오늘날도 계속 로력하고 있다. 오늘날의 농업 과학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토양의 비옥성 제고와 그의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즉 첫째로 그루 바꾸기(륜작), 둘째로 땅을 다루는 법(정지), 세째로 비료 주는 것(시비) 등이다.

이외에 토양의 성질을 개량하는 토지 개량 사업도 적용 도입한다. 례를 든다면 강한 산성 토양에 석회를 시비한다든가 모래 땅에는 점토를, 식토질에는 모래를 객토한다든가 또는 저습지의 물을 배수하여 말리워서 논 밭으로 만든다든가 간석지에서 염분(소금)을 물로 씻어 버리는 제염 작업 등등의 많은 부문들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문제 즉 정지법(땅을 다루는 법)에 대하여서 설명하여 보기로 하자.

정지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즉 첫째로 가을에 실시하는 정지(그루의 조경, 추경, 써레치기 등등…이것을 추기 정지라고 부른다.) 둘째로는 파종전 토양 관리(춘경 써레치기 등등)이며 세째는 작물의 비배 관리 작업이다. 그 하나 하나에 대하여 그 작업을 무엇 때문에 실시하며 그의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여 보기로 하자.

우선 추기 정지는 토양의 구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작물을 재배한 결과와 기타 원인—소, 말, 기계, 뜨락또르, 사람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토양 구조가 파괴되며 또한 빗방울에 의하여 그리고 토양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까닭에 파괴된 토양 구조를 회복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어째서 추경을 하면 토양 구조가 회복되는가?

그것은 이상의 원인에 의하여 토양의 구조가 약 一〇센치메터 깊이 까지 파괴되나 그 보다 깊은 데서는 식물 뿌리의 작용에 의해서 토양 구조가 다시 조성된다. 따라서 우에 있는 파괴된 토양을 기경에 의하여 같아 엎음으로써 밑에 들어가게 하고 하층에 있는 구조가 회복된 토양을 우로 올라오게 한다.

추기 정지의 두번째 목적은 잡초와의 투쟁을 진행하는 데 있다. 즉 땅우에 떨어진 잡초 종자들을 기경에 의하여 땅속 깊이 파 묻음으로써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잡초와의 투쟁은 추기 정지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완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파종전 토양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잡초와 투쟁하게 된다。다음 세번째로서는 병충해와의 투쟁을 진행하는 데 있다。추경은 병충해와의 투쟁의 기본으로 된다。

이와 같이 추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서 추경은 뜨락또르 기경으로써 심경하는 것이 좋으며 뜨락또르 임경소가 없는 곳에서는 뿌라우를 사용하여 기경할 것이다。

그러나 심경한다 하여 단번에 깊이 갈아서는 생땅이 나오게 되므로 오히려 해가 된다。때문에 해마다 二—三센치메터씩 깊이를 증가시키면서 기경하는 것이 좋다。

다음 파종전 토양 관리에 대하여 언급하면 그의 임무는 토양내에 최대의 수분을 저축하며 유지하는 데 있다。그것은 이른 봄은 눈 녹은 물과 땅 녹은 물 때문에 수분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따라서 토양에 많은 수분을 축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이른 봄에 봄갈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써레를 쳐서 수분 증발을 될수록 적게 하여야 한다。잡초와의 투쟁도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된다。

이상과 같은 것이 추기 정지와 파종전 토양 관리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토양 관리 하나만을 잘 하였다 하여 작물의 높은 수확을 걷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작물의 높은 수확은 식물이 요구하는 주위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서만 가능하다。따라서 다수확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량 종자의 확보、종자 처리、적기 파종、적기 이앙、철저한 비배 관리、제때에 되는 수확、병충해와의 화학적 투쟁、합리적인 시비 방법의 적용 등、선진 영농법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도입함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끝으로 아까데미크 베·에르·윌리얌쓰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해 보기로 하자……『나쁜 토양은 없으나 나쁜 주인은 있다。다만 태양 광선과 온열을 받아 들일 수 있다면 어떠한 토양에서든지 임의의 수확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얻어야 한다。이 얻는 수완은 농업하는 자의 자격의 척도이며 임무이다……』

이 말은 어떠한 토양이던지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극복하여야 하며 모든 토양에서 임의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과학원 농학 연구소

농림 화학 연구실 제공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청 년 생 활』 1955년 제10호
1955년 10월 15일 인쇄
1955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ㄱ—30193 21,000부 발행 값 40 원

100-

